

연애, 결혼, 가정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8
연애	10
완전한 결혼 상대자란 존재하는 것인가?	11
비현실적인 기대감	14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결혼할 때)	17
결혼을 준비하라!	20
결혼 준비 (1)	20
결혼 준비 (2)	21
결혼 준비 (3)	22
결혼 준비 (4)	23
존재의 중요성	26
건강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27
결혼 준비, 경제적 준비?	28
두려움	30
이성감정	32
종매를 싫습니다.	36
꼭 연애를 해야 하나요?	38
헌담	39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애해야 하나요?	41
갈등	44
상처	46
순결	50
남녀의 다른 점	53
남녀의 다른 점 (1)	53

남녀의 다른 점 (2)	55
남녀의 다른 점 (3)	57
남녀의 다른 점 (4)	60
남녀의 다른 점 (5)	62
남녀의 다른 점 (6)	64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란?	66
결혼하면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69
결혼	76
결혼의 기초	77
결혼의 기초 (1)	77
결혼의 기초 (2)	77
결혼의 기초 (3)	80
결혼의 목적	82
결혼의 목적 (1)	82
결혼의 목적 (2)	84
결혼의 목적 (3)	86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89
결혼의 준비	89
결혼과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4가지 P	90
존재의 중요성	91
올바른 부부관계의 모델	92
균형 있는 관계	93
결혼에 대하여	94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97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101
가정	103
균형 있는 가정관	104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부부 관계	105

신혼 초기	108
첫째 아기의 죽음	110
가정을 광야로 삼으라!	113
사랑과 존경	115
사랑과 존경 (1)	115
사랑과 존경 (2)	117
성령 충만한 남편	122
성령 충만한 남편 (1)	122
성령 충만한 남편 (2)	128
당신의 아내를 복되게 하십시오!	132
여자가 원하는 것	137
여자가 원하는 것 (1)	137
여자가 원하는 것 (2)	140
여자가 원하는 것 (3)	144
여자가 원하는 것 (4)	145
여자가 원하는 것 (5)	148
여자가 원하는 것 (6)	149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153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1)	153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2)	154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3)	157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4)	159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5)	160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6)	163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7)	165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168
Target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여자	170
지혜로운 아내	172
지혜로운 아내 (1)	172
지혜로운 아내 (2)	177

남자가 원하는 것	182
남자가 원하는 것 (1)	182
남자가 원하는 것 (2)	183
남자가 원하는 것 (3)	185
남자가 원하는 것 (4)	186
남자가 원하는 것 (5)	188
남자가 원하는 것 (6)	189
살인-전 증후군 (Pre-Murder Syndrome)	192
“잘났어”	194
부부의 다른 점	196
불안한 부부 관계	197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198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1)	198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2)	200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3)	201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해서는 아니 됩니다.	208
부부간의 이행할 의무	214
불편한 은혜	221
부부 관계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25
80/20 원리	226
이기적인 마음	228
자기중심 (Self-centeredness)	230
습관적인 비판	236
갈등	238
갈등 (1)	238
갈등 (2)	239
정신 나간 주기 (Crazy Cycle)	244
대화하기 위해 암호를 해독하라.	247
아내와의 대화	249
남편과의 대화	249

‘모하니’	340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어요!)	341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	344
모본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354
콩가루 집안	360
영적 치매를 극복하는 가정	365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372
경건한 가정	376
화목한 가정	379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	387
감사와 기도	390
“새해 돈 많이 주세요.	392
두 손 모아기도	393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395
아빠, 아빠가 죽은 면 제가 기억할게요.	405
결론	407

서론

저는 연애했던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여자 친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제 자신도 어떤 자매랑 결혼하게 될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혼에 대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읽었던 책들 중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So You Are Getting Marry”(드디어 당신이 결혼을 하는군요?) 하루는 교회에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대학 후배가 와서 보고 ‘형, 여자 친구도 없는데 뭐 하러 이 책을 읽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저를 좀 비웃었습니다. ㅎㅎ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에 계속해서 배우야겠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중매로 아내를 소개 받아 만난 지 약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네 자녀를 선물로 주시길 기도하며 기대하였습니다. 그 네 자녀 중 신혼 초에 첫째 아기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딜런(Dillon), 예리(Yeri), 예은(Karis)이를 선물로 주셔서 저희 부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란 (1)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의 배우자가 될 그 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자매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와 (2) ‘하나님, 그 자매가 제 안에 작은 예수님을 보게 하옵시고 저 또한 그 자매 안에 작은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이 기도를 드렸고 만나고 나서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내와 함께 이 땅에 사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사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도 저를 생각하는 제 아내의 마음(또한 자녀들의 마음)에 저 안의 작은 예수가 기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으로 세움을 받기를 기

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저희 가정이 붕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증인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움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애, 결혼, 가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제가 결혼 전부터 읽었던 책들 및 결혼 한 후에 읽었던 책들에서 배운 교훈을 글로 쓴 것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 말씀 목상한 것들 외에 2009년부터 쓰기 시작한 ‘가정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애, 결혼, 가정”이란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1) 연애, (2) 결혼, (3) 가정. 각 부분 마다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애도 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세 자녀들과 추억을 남기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5년 2월 13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연애

완전한 결혼 상대자(a perfect match)란 존재하는 것인가?

Marianne J. Legato의 "Why Men Never Remember and Women Never Forget"이라는 책을 보면 제일 성공적인 관계는 완전한 결혼 상대자를 찾는 남녀에게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현명하게 삶의 동료로 서로를 보완해 주는 자를 찾는 두 남녀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The most successful relationships I know of take place between people who sensibly looked for a complement in their life partner, not a "perfect match"). 많은 젊은 싱글 남녀들이 이 완전한 결혼 상대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글 형제, 자매 입장에서 자기의 결혼 상대자에 대한 목록들이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연 그 목록들이 내가 원하는 것(what I want)인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what I need)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싱글 형제, 자매들이 생각하는 결혼 배우자의 목록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결혼의 목표 중에 하나는 서로의 필요한 점을 채워주는 삶의 동료가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싱글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필요한 점을 채워주는 삶의 동료를 기도하면서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완전한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에나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알고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더 자기 보기에 완전한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는지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환상(illusion)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혼 상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19절입니다. 즉, 아담은 일 지향적이고 여자는 남자 지향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죄를 범한 후 그들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으로서 이들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아담은 일 지향적, 여자는 남자 지향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하지 못한데서 결코 완전한 결혼 상대자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의 동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싱글 형제, 자매들은 "완전한 결혼 상대자"를 찾기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녀의 다른 점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남녀의 다른 점을 모르는 가운데서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필요성조차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무지한 가운데서 여자를 알려고 결혼 전 이런 저런 남녀의 다른 점을 가르쳐 주는 책들을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우수록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젠 결혼을 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보면 저는 참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제 아내를 여자로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과연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필요성에 전보다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결혼 전부터 더 일찍 배우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우리 부부는 어떠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서로의 필요를 더 잘 채워주는 좋은 동료로서 주님 안에서 더 만족한 부부 생활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내 자신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은 준비되어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 상대자가 완전하기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으신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하면 싱글 형제, 자매들은 주로 경제적 준비를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싱글 형제, 자매들은 경제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을 준비하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글 형제는 미래의 아내를 지도(lead)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spiritual leadership)을 키워 나아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그는 미래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물댄 동산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미래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경건한 형제로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싱글 자매는 이러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럼 싱글 자매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싱글 자매는 인격에 있어서 겸손함과 또한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복종"(submission)이란 단어는 '아래서 듣다'라는 의미가 있음].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자매가 형제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이성 관계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한 두 배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물론 요즘은 남자가 여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자매가 형제의 말을 겸손히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내 자신을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비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준비해 나아가면서 깨닫게 해 주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우는 '영적 청소'를 말합니다. D. L. 무디 목사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의 부족함 보기도 바빠서 남의 부족함을 보는데 시간 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영적 청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그의 선하신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너무나 멀고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씻겨 지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차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함으로 내 마음의 소리와 내 뜻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결혼 상대자'(a perfect match)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생각하여 결혼한다하여도 그리 성공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뤄 나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결혼 상대자를 찾는 수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녀의 다른 점들을 배워가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워지는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은총을 누리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필요로 하는 동료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매에게 혹은 그 형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성 관계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관계는 결혼에 골인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결혼을 해서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부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감

"Unrealistic expectations always lead to disappointment"[(이성 관계에서) 비현실적인 기대감은 항상 실망을 줄 것입니다] [Paul David Tripp, "What did you Expect?"]].

크리스천 싱글들은 결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만남이 교회 안에서이든 교회 식구들의 소개로 갖는 만남이든 직장에서의 만남이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갖는 만남이든 그들은 좀 적극적인 자세로 만남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 싱글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과의 만남을 갖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 싱글들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갈 때에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자아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미래 배우자를 만날 때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만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미래 배우자와 만나 연애를 할 때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싱글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미래 배우자와 함께 결혼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애할 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커플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미래 배우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면 싸우지 않고 평생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공상(fantasy)입니까?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떠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악 된 세상에서 한 죄인 남자가 한 죄인 여자와 결혼할진데 어떻게 그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두 죄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 번도 다투지 않고 마음

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상대방 배우자가 죽도록 까지 입지는 않을지라도 결혼을 하면 충분히 부부는 마음으로 미워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악 된 현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미성숙한 크리스천 싱글들은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결혼식은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지 모르지만 실상 자신들의 결혼 준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하고 있는 결혼 준비 중 하나는 바로 부부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연애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서로 사랑하여 아무 갈등도 없기에 부부 갈등에 관한 것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는 비록 지금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갈등을 다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결혼 준비에 있어서 부부 갈등에 관한 준비는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한답시고 부부 갈등에 대해서 책을 사서 읽고 고민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 커플들이 연애할 때 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갈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부들은 갈등으로 인하여 상처 받기를 두려워하여 서로에게 거리를 두든지 간격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격을 두되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까지만 알려고 하지 그 이상은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럴 용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 하길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사는 부부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사랑이 깊지 못하기에 현상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부의 관계는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면 살아갈수록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고 두터워지면서 부부 관계에 진보가 있어야 하는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갈등으로 인하여 잘 싸울 줄 모르는 부부는 깊고 두텁고 성장과 진보가 있는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이란 바로 부부 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고자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부부에게는 언제나 그 공간 틈으로 다른 이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성이 부부 사이에 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는 원인은 부부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부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가지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입는 상처를 자신들의 부부 관계에 유익하게 하려는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부부 갈등은 더 서로를 깊

이 알아가고 깊이 사랑하는 유익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갈등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부는 그 순간에 갈등은 모면하여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 관계는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른 등등 남녀는 얼마나 다른 점이 많습니까. 그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딪혀 깎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딪히기가 싫고 깎이는 아픔을 감수하고자 하는 헌신이 없는 부부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부부 관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커플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공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만일 그 공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들은 장차 결혼해서 서로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실망감을 경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커플들은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결혼한 부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되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부부 관계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부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결혼에 대하여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듣고 싶지도 않겠지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커플들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책을 잘 쓴 크리스천 카운슬러(목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카운슬러 목사님들이 잘 쓴 책들이란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쓴 책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즘 너무나 많은 가정에 관한 책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였다기보다 사람 중심된 심리적 이론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 커플들이 본이 될 만한 결혼한 부부들의 말과 성경적인 크리스천 카운슬러 목사님들의 말을 듣는 가운데서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서로의 말입니다. 즉, 크리스천 커플들은 이미 들은 그 결혼한 부부들의 말과 크리스천 카운슬러 목사님들의 말을 토대로 하여 서로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씨름한 것들을 서로 진솔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러한 진솔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크리스천 커플들은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되 서로의 공통점들을 알아 가는데서 만족하지 말고 서로의 다른 점들 알아 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싱글들은 서로의 다른 점들을 정직하게 나누면서 그 점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조금이나마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인한 실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기다림 속에서 받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결혼할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룯기 1장 3-5절).

죽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은 자기들과 동족인 유대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모압 지방의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들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인 나오미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론과 기론의 결혼 문제는 아내를 맞아들이는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맞이하는 그들의 어머니인 나오미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동족 유대인 며느리들을 맞아들이느냐 아니면 이방인 모압 여인을 며느리들로 맞아들이느냐 나오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인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로 선택하였습니다(룯1:4). 그들은 실용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곧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같은 동족인 유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모압 땅에 살면서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룯을 아내로 삼았습니다(4절). 이러한 그들의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는 자기들의 아버지처럼 말론과 기론은 자신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5절). 그들의 어머니인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의 생명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두 아들의 생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기업 무를 자보아스의 선택인 이방 여인 룯과 결혼한 것(4장)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 또한 말론과 기론처럼 유대인 동족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 모압 여인이요 과부인 룯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니까? 왜 말론이 룯과 결혼한 것은 실용적이지만 비성경적인 선택이면서 보아스가 룯과 결혼한 것은 비실용적이지만 성경적인 선택이자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룯이 말론과 결혼했을 때 룯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신들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1:15). 그러나 룯이 보아스하고 결혼했을 때에는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자기 백성과 자기 모압 신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미 선택한 상태였습니다(16절). 곧, 룯은 보아스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인 룯하고 결혼한 말론의 선택은 실용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반면 신앙인인 이방 여인 룯과 결혼한 보아스의 선택은 성경적인 선택이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잠31장) 현숙한 여인(룯3:11) 룯과 결혼한 보아스의 선택은 성경적이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혼에 대하여 한 2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1) 과연 우리 크리스천 싱글들이 동족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같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인 사위 또는 며느리를 볼 수 없다하여 자신들의 아들이나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확고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녀가 원하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도 허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 약 시대 때 유대인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동족인 유대인들하고만 결혼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 부모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동족인 유대인들하고만 결혼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하고만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2) 과연 우리 크리스천 싱글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동족 유대인과 결혼케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배우자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동족결혼을 명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

므로 동족결혼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 싱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실용적인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성경적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싱글들은 같은 크리스천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크리스천 결혼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지만 같은 동족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그가 타민족 사람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자녀들이 같은 한국인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가 뭇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싱글 자매라고 해서 그 자매가 현숙한 여자 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결혼에 대하여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원하는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의 눈으로 며느리나 사위를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크리스천들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곧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싱글들은 믿음으로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현숙한 우리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라!

결혼 준비 (1):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식 할 준비를 갖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게리 콜린스 박사).

공감되는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더 많이 신경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결혼식을 올릴 것인지 결혼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배우자나 결혼식이나 결혼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들은 많을지 몰라도 나 자신이 실제로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듯합니다.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듯 해 보이는데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할 때 상대방 배우자보다 나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는 기도와 기대감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배우자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잘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취보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반영해 보는 습관이야말로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 자신을 말씀 인격화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 인격화되어 가지 못하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찾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배우자를 기대하며 찾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잘 가꾸기 위해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신실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최우선순위인 영적인 영역에서 내 자신을 잘 준비해 나갈 때 바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위하여 바른 기도와 바른 기대감을 갖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때 명백한 확신(clear conviction)이 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결코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준비 (2):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빨리 채워지지 않을 때 흔히 조급함, 무감각, 자기중심적인 태도, 부적절한 관계 기술, 그리고 큰 실망이나 환멸 등이 나타난다"(게리 콜린스 박사).

결혼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싱글 형제, 자매들은 주로 결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린스 박사님의 말씀처럼 "결혼에 가까이 가면서 대부분의 남녀가 자신들의 관계는 독특하며 또 많은 다른 관계들을 파괴하는 위협에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기의 결혼생활은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많은 상상 속에서 큰 기대감과 높은 만족도를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 결혼을 한 부부들은 알고 있다시피 두 부부가 결혼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크면 클수록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커플은 인내심을 금방 잃어버리고 성급한 이혼과 같은 생각 속에서 속단을 내리기가 십상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결혼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을 잘 준비하지 못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미성숙함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녀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에 대한 자기의 기대감을 빨리 채워지길 원하는 조급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급함 속에서 자신의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녀는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결혼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기보다 인간의 죄성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게 되므로 결국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배우자를 위하여 잘 준비하는 싱글 형제, 자매들은 먼저 자신의 미성숙한 점들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그 미성숙한 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성숙하게 변화되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자신의 미성숙한 부분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결혼식 준비만 하고 배우자를 찾는 데만 마음이 분주해 있다면 배우자에 대하여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

혼을 준비하는 싱글 형제, 자매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먼저 자신의 미성숙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미성숙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책임도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기가 미성숙한 가운데서 결혼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자기 안에서 무너뜨리고 지혜롭게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결혼에 대한 높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결혼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지혜롭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준비 (3):

“남녀는 그들의 차이점들을 해결하고 서로의 요구들과 개성을 인정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게리 콜린스 박사).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서로의 차이점들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후에는 눈감아 주던 차이점들이 갈등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트 할 때 서로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배우지 못했으므로 결혼한 후 표면화되는 차이점들로 인한 갈등을 보는 관점조차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로의 차이점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므로 말미암아 결혼의 기초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콜린스). 남녀가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점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란 말은 억지로 알아가려고 한다기보다 서로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표면화되는 서로의 차이점들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마음의 훈련이 해야 합니다. 결코 서로의 차이점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서로의 차이점들을 계속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점들을 꺼내놓고 정직하고 세워주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화 기술을 데이트할 때 조금씩 터득할 때에 결혼 후에도 서로의 차이점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야 제 아내와의 차이점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혼 전 연애했 때는 아내와의 차이점들을 거의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서로의 다른 점들을 보았어도 저는 그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다른 점들로 인하여 갈등이 종종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면이란 서로의 차이점들을 통하여 저는 아내를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다른 점들을 통하여 저는 아내를 좀 더 잘 알아가며 아내의 요구가 무엇이고 아내의 개성을 인정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로서 여자를 알아가야 하지만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알아감에 있어서 갈등만큼 확실하게 깊이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갈등이란 주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아픈 만큼 갈등이란 아내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통해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처도 사용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치유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데이트하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차이점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의 책임은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갈등 해결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또한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실수들을 통해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서로의 요구들을 충족해 나가는 화목한 관계로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준비 (4):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신과 서로의 책임에 관해 분명치 않은 역할 의식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결혼했을 때 그 후의 결혼생활은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게리 콜린스 박사).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자 남자는 앞으로 남편으로서, 여자는 앞으로 아내로서 책임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워야 결혼생활의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자 자신의 책임 외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까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책임까지 알아두면 막연한 기대감이나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인한 좌절과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애할 때 이러한 준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 남녀의 책임과 역할 분담 같은 것을 특별히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연애하는 남녀들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책임 및 역할이나 배우자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해 분명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생활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더러와 잭슨(Lederer and Jackson)에 의하면 결혼이 붕괴되는 것은 보통 “의식적으로 악의 있는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성의 없게 말하고 소홀히 행동 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의 붕괴는 의식적으로 악의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 배우기를 게을리 하는 나태함에서 온다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배우기를 게을리 하는 커플이나 부부는 레더러와 잭슨 말대로 결혼 실패 가운데 양쪽 모두 역할에 관련된 두 가지 공통된 실패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능력과 책임에 따른 영역들을 확인하고, 결정하고, 서로 배분하는 것, 즉 누가 무엇을 맡을 것인가를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서로의 차이점을 열등감의 표시로써가 아닌, 단지 차이 그 자체로서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된 실패들은 커플이나 부부들이 배우기를 게을리 한 탓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결핍된 남녀는 결혼에 행복을 기대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편의 책임과 아내의 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마땅히 헌신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공정하게 자녀를 훈육하며, 또 지혜롭게 가정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을 지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애하는 커플들은 이러한 성경적 남녀의 책임들을 결혼 전부터 거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뿐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성경적 지식을 어떻게 앞으로 부부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기독교 서적들 중에도 도움이 될 만

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실천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책임은 별로 없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담처럼 아내와 가정을 지도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가정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어떠합니까? 남편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결혼생활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책임들을 결혼 전부터 적어도 지적으로라도 배워 알아가면서 상대방 배우자 될 사람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각자의 책임을 명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가정에 질서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의 중요성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장 21-24절).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존재를 가꾸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아닌 그/녀의 존재(예: 사랑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꾸는 일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갈등이 별로 없는 결혼 전에는 서로의 존재가 많이 가려져 있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 속에 노출되어 서로의 가려진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됨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존재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존재로서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때에야 우리 존재는 비로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결핍된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포장된(?) 행함은 결혼의 기초를 흔드는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찾아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가 나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행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기보다 결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되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혼할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입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 경제적 준비?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잠언 24장 27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집을 세우기 위해선 먼저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는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경제적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여러분, 결혼할 남녀가 결혼 준비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면서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커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겠습니까? 아마 결혼식을 올려도 그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취업포털 커리어에 기혼 직장인 278명을 대상으로 부부 싸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25.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인터넷). 또한 200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한 이혼상담자 3천 537명 가운데 별거중인 1천 304명(여성 1천102명, 남성 20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갈등이나 생활 무능력, 빚 등 경제문제(33%)가 별거 사유 1위였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잠언 24장 27절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 잘 세우기 위해서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우리가 잠언 6장 7-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베짚이”이를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동안 베짚이는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개미들을 조롱합니다: “어이, 개미들,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베짚이는 매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며 살다가 겨울이 되어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밥을 구

결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이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개미처럼 되고 베짖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베짖이처럼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 이솝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저 개미처럼 근면성실해야 한다는 교훈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잠언 6장 8절에서 성경은 개미보다 못한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도 성경은 개미를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즉 자기들의 음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개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여름”에 겨울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여름이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개미들은 겨울철 먹을 것을 모아 들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미들은 추수 때 겨울철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미처럼 추수할 시기에 미래(장래)를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잠언 24:27). 재정도 준비해야겠지만 성경적인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재정 관리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

“문제는 그들이 영적인 망원경을 거꾸로 집어 들었다는 사실이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크기보다 문제의 크기를 확대시켰다”
[토미 테니, “하나님의 관점”].

이성 관계를 맺고 싶은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저 형제/자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충분히 앞설 수 있습니다. "거절"(rejection)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거절의 두려움을 대학교 때 여러 번 경험한 적이 기억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세 단어를 자주 생각하면서 애용했었습니다. 그 세 단어는 "Denial"(부인), "Suppression"(억제), 그리고 "Rejection"(거절)입니다. 아내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저는 대학교 때 "자매 사역"(sister ministry)을 했습니다(아내가 연애할 때 내 대학 앨범을 보고 후배 자매들의 독사진들을 다 본 후 한 말이 바로 '자매 사역'임). 자매 사역을 하면서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 감정이 들 때에 주로 사용한 것은 "부인"(denial)과 또한 "억제"(suppression)였습니다. 이성의 감정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자매를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주위 형제나 자매들이 저에게 모 자매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워낙 부인하다보니까 진짜 제 자신이 모 자매를 이성감정으로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나는 저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거야'라고 스스로 제 자신에게 말하면서 자꾸만 그 자매와 함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성감정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억눌렀습니다. 한 후배 자매를 1년 동안 짝사랑하면서 이성감정을 억누르고(억제하고) 그 후배 자매를 그냥 오빠와 후배로 지내는 가운데 저는 곁눈어서 대학교 5학년 때에는 1학년 자매 후배들에게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인의 방법과 억제의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될 때는 이성감정이 들었던 자매에게 사랑 고백을 두려움 속에서 해보았습니다. 물론 결국 저는 "거절(rejection)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절당한 후 그 후배 자매에게 전화해서 거절해줘서 고맙다고 까지 말

했습니다. ㅋㅋㅋ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사랑고백 못하다가 했을 때 자매가 거절해 주니까 (?) 감사했던 내 자신의 모습... 지금 생각해도 웃깁니다.

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나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만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있기보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토미 테니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자면 "영적인 망원경"을 제대로 들고 하나님을 봄으로 상대방에게 이성 감정이 드는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거절") 작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위대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상대방의 반응이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망원경"을 거꾸로 집어 들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문제'가 확대되므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 또한 불확신 속에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있어도 인간의 혈기로 '대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감정이 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망원경을 바로 집어 들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길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만일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 있다면 잠시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영적인 망원경을 제대로 집어 들고 상대방(과 상황)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망원경을 거꾸로 집어 들고 있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그 문제인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어 쫓긴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며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성감정

"이성감정"하면 대학교 때 한 자매를 짝사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대학 크리스천 동아리에 다니다가 한 모임 때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오빠가 병중에 있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오빠'에 대한 사랑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 그 자매에게 '오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 자매에게 다가가 잘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자매가 금식을 3일 할 때 저도 덩달아 그렇게 오래 금식(굶식이다) 해보았겠습니까. 하하~ 이렇게 점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 주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제임스랑 모 자매랑 사귀는가 보다.' 그 때 그 자매는 제 roommate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 여자 친구의 이성 관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생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고 또한 질문하는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제 roommate와 헤어진 후 제가 그 자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제 안에 억눌렸던(?) 이성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 주위에 그 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형제들을 제가 경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도서관 같은데서 함께 그 자매와 공부를 하는데 한 형제가 다가와 그 자매에게 말을 걸면서 대화를 하면 저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것을 눈치 챈(?) 그 자매가 저를 좀 보자고 하여 바깥으로 나가서는 '너무 overprotective(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였습니다. 그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 그 자매를 동생으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나를 싫어한다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저는 공부를 집어치우고 차타고 혼자 바닷가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후로는 그 자매하고 대화를 1년 동안 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 뒤 대학 졸업 후 저도 결혼했고 그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카드 보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스스로에게 말했고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은 결국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를 동정심에 이끌려 '사랑'을 했지만(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동정심에 이끌림을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음) 결국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이 '이성감정'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저는 그 자매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

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저는 과연 이 자매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가 수 없이 질문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은 '과연 나는 이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자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하나님보다 그 자매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성감정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성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이성감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이야기는 그 이성감정(feeling)이 하나님의 말씀(fact)에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 것입니다. 대학교 때 제자 훈련 받으면서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하루는 기관차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맨 앞차를 "Fact"(사실), 그 다음 차는 "Faith"(믿음), 그리고 세 번째 차는 "Feeling"(감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감정이란 사실과 믿음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 감정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이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그 자매와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매에게 상처를 입혔고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총각, 처녀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보면 이성감정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솔로(single)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는 드는 이성감정 지금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저도 한 때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웃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나의 연애편"이라는 포더(folder)도 제 개인 웹사이트 만들어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저처럼 실수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이성감정"이란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그 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를 적어 본다면 그 자매보다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총각 때인지라 아무래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너무나(?) 잘 보이는(ㅎㅎ) 예쁜(?) 자매랑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금식기도라는 것도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 자매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게 말했던 이런 저런 말들은 지금 돌아보면 거의 다 합리화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성감정이 드는 형제나 자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 이성감정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성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에게 이성감정이 들 때 그 상대방하고 좀 떨어져서(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에

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정 새벽기도도 좋고 수요 기도회나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제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자신의 이성 감정도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들은 이것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들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성감정이 들 때에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많이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감정이 들면 폭 빠지는 스타일 지체들은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목표, 비전 등등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그 뜻과 목표 또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들에게 있어 이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형제들이 이것을 게을리 하고 자매들 좇기에(?) 바쁘면 바로 서있는 자매라면 그러한 형제에게 영적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나 목표에 이끌림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매를 이끌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이성감정에 폭 빠져있으면 이런 생각은 들지도 않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째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둘째로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서야 이성감정이 드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나는 과연 이 자매 혹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저 이성감정뿐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드는 가운데서 드는 이성감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확신이 없는 이성감정은 마치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암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연애"하여 "그 누이로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까지 되어(삼하 13:1-2) 결국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말을 듣고(3절) 다말과 억지로 동침한 후(14절) 이젠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했던 것(15절)과 같은 감정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성감정이 들어 사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실증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싫어지는 것, 어쩌면 이러한 감정의 변동 혹은 변질은 확신이 없는 이성감정에 이끌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이성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이끌림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므로) 내 자신을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동기와 의도 등등이 부적절하며 불결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이성감정과 이성 관계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

다. 그 결과(consequence)를 제 자신이 경험하면서 부끄럽고 그저 하나님과 그 자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자매인데 저는 제 잘못과 죄로 그 자매를 잃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친구로도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제 죄요 또한 제 죄의 결과의 쓴 맛을 내가 맛본 것입니다.

중매는 싫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형제가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만난 형제이자 함께 1년 동안 roommate했던 형제입니다. 그 때 함께 살았던 6명 형제들 중 다 결혼을 했는데 이 한 형제가 아직 안하고(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서너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한 번 시도 후 그 다음부터는 원치 않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중매는 싫습니다"란 제목을 적으면서 그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중매보다 연애하겠다는 얘기가 생각됩니다. 저는 중매를 받아 결혼을 했기에 중매를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매에 대해 왜 열린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매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원치 않는 만남 때문?), 자존심 상함(이 자존심을 언제까지 펼쳐보려고 하는 것인지?), 귀찮음(말이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는 연애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아니면 직장인데 그 두 군데에서도 만남을 가질 수 없으면 결국 연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중매를 찬성합니다.

저와 아내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그 때 담임 목사님께서 중매를 서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서는 저의 아버님 목사님과 같은 노회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목사님은 장인어른이신 장로님과 함께 교회에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 중매로 양가 부모님의 허락(?) 아래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1996년 10월 13일 주일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 옛 건물 예배당에서 11시 예배 후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말이 중매이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한 3일 기간 동안 제가 장인어른 가족(아내를 포함해서)을 여기 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때 저는 '중매로 내가 아내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매"라는 용어가 제 생각과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이 만났습니다. 저는 나의 중매결혼을 뒤돌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중매결혼(?) 시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기 종에게 시켜서 자기 거하는 가나안 땅 이방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않기로 결심하고(지금 말로 하면 불신자와 결혼 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고 생각함)(창24:3)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예수 믿는 크리스천과의 결혼을 말한다고 생각함)고 자기

종에게 명령하는 것을 창세기 24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창세기 24장 전체를 보면 결코 이삭은 연애를 해서 결혼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 용어로 말한다면 그는 중매결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구약의 말씀으로 중매가 좋다는 주장 논리를 피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저 성경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결코 우리 모두가 중매 결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중매를 싫어할 필요가 없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의 중매결혼 장면 중 제일 마음에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족속 중 한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로 가서 기도하는데(창 24:12-14)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그 기도 응답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창24:15, 18-20). 그런데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인지 알고자 하는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결코 모든 사람들이 중매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저는 왜 중매를 싫어하면서 연애만을 고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기에 중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매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서 배우는 것처럼 중매를 통하여 만나는 형제 혹은 자매를 한번 "묵묵히 주목하여" 보되 그 형제, 자매의 미모를 묵묵히 주목하기보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 형제 혹은 저 자매를 나에게 배우자로 보내주셨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묵묵히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신 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찾아서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야만 그 결혼은 견고히 서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우자와의 만남에 역사하실 공간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배우자를 찾고자 하더라도, 아니 만나서 연애까지 해서 결혼을 한다해도 그 만남(부부)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 연애를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한 경험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꼭 연애를 해야 하나요?"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주위 친구들이 연애를 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자매하고 연애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자매하고 연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애를 자주하면 여자를 더 잘 알아간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들은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 주위 사람들에게 조심히(?) 제 주장을 이렇게 폈습니다: '연애 그렇게 자주하면 시간허비, 물질 허비다.'

저는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한 여인입니다. 물론 저는 아내를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후 저희는 약혼하였고 그리고 나서 4개월 후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연애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저 저의 "연애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연애를 해야 하나요?"란 질문에 저의 대답은 "아니오"와 "예"입니다. "아니오"란 대답은 결혼을 목표로 하지 않은 연애는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목표로 하는 연애에는 "예"라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물질과 정신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연애는 자주한 사람들을 알아주는(?) 세상에서 저처럼 아내와의 연애 외에는 연애경험(?)이 없는 사람은 '바보'취급 받기 딱 좋은 대상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해보지 못했으니(?) 여인에게 kiss한 적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것을 한 어린 소녀가 저더러 "stupid"(바로)란 말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바보'로 보여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애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성감정에만 이끌려 연애를 함부로 걸었다가(?)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이 목적이 아닌 철없는 청소년들처럼 남들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 친구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연애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매 혹은 형제를 상처 입힐 권리가 없습니다. 함부로 연애하지 마십시오.

혐담

연애하는 과정에서 형제와 자매가 혐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연애하는 형제가 자기 여자 친구인 자매에 대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이런 저런 혐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매도 자기 친구들 앞에서 남자 친구에 대한 혐담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혐담 외에 연애하는 형제, 자매는 친구들이 상대방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에 대하여 이런 저런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연애 관계가 잘 안되어 갈 때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언젠가 대학 동창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였는데 그 때 후배 자매 한명이 나에게 와서 자기 남편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후배 자매를 면책했습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더 이상 남편에 대해서 혐담을 늘어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혐담이란 주제는 더 적용이 잘 될 줄 알지만 연애 관계에서, 특히 그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이나 또는 깨어진 후에 서로를 향한 혐담 (혹은 비방)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한 자매하고 채팅을 하면서 그 자매의 지혜로움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연애하고 있는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친구들과 나눌 때에 아마도 그 자매의 친구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그 남자 친구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매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자기 남자 친구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지 않아 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랑 사귀고 그리고 사귀는데 헤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혹은 패턴(pattern)은 혐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형제, 혹은 자매가 상대방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에게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을 혐담합니다. 물론 자기 친한 형제, 자매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 혐담으로 인하여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 된 인격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인격체로서 대우 (혹은 사랑)를 받지 못한다면 과연 이러한 혐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고 아름답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히10:24-25) 모여서 다른 형제, 자매를 혐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 아니요 합당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애하는 형제, 자매는 들리는 음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음성이나 가족들의 음성이나 또한 자기 자신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음성들을 잘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애에 있어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나를 사랑하므로 위로하고자 상대방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하지 못할 말까지 해가면서 험담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것은 중단 해야 할 패턴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갈 때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내가 상처입고 힘들 때에 하나님에게 나아가 내 아픔과 상처를 쏟아 내면서 참된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연애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 된 형제, 자매들을 험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힘든 상황을 대처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감정은 상처만 더 깊어지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이 '험담'의 패턴 (pattern)이 중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핍박 받으시고 배반당하시고 상처 입으시되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처 입히는 자나 상처를 받는 자나 사람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서 비판하며 험담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모습이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입 조심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애해야 하나요?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첫째로, 한 신앙 (믿음) 안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소개로 만난다고 하여서 신앙 안에서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나 연애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신앙 안에서 만남을 가져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만남을 갖고 두 사람의 이성관계의 우선성을 두기보다 주님께 우선성을 두고 함께 또한 각자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나아가갈 때에 그 이성 관계는 건강하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혹은 두었다가 점진적으로) 이성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이성 관계는 점진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두 사람의 건강하지 못한 이성관계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끼치고 본이 되기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적인 면을 지켜가고 또한 추구한다는 것은 연애하는 두 남녀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남녀가 주님께 각자 나아감에 있어서 서로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커플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두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연애는 덕이 되지 못하고 또한 본이 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중심된 이성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중심된 이성관계란 두 남녀가 개인적으로 또한 함께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관계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평적인 이성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실을 깨달는 커플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뒷전에 밀어놓고 수평적인 남녀 관계에 헌신(?)하면 그 관계는 주님 중심된 이성관계라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님 중심된 이성

관계를 신실하게 추구함에 있어서 형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가 주님과 관계
를 우선순위를 두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매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lead)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좀 등한히 하고 주님보다 이성을 느끼는 자매에게 더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형제는 결코 자
매를 주님께 인도하는 징검다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매 또한
형제의 지도를 받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이성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며 형제를 쫓을 때에 그
이성 관계는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자매는 사
귀고 있는 형제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형제를 사랑으로
책임하면서 자기들의 이성관계의 초점을 주님께 두자고 권면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할 때
두 남녀는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자기들만 생각하고 소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배려하지 못할 때에
는 이기적인 말과 행동이 결국은 공동체의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하여 공동체 지체들은 그 연애하는 두 커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저런 말을 하여 두 사람이 연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
님의 은혜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한 두 커플을 품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공동체 지체들의 책임입니다. 즉, 공동체 지체들은 두 남녀가 연애함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스럽게 연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 공동체 지체들은 연애하고 있는 두 남녀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 커플이 공개적으로 사
귀고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 공동체 지체들은 말로도 앞서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 커플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왠지 말이란 내 의도대로 무조건 전달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웬만하면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만일 커플이 공개적으로 사귀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공동체 지
체들은 그 관계를 존중하여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연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께 그 커플을 기도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인도해 주시길 기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커플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공동체 지체들이 도
와줄 때 그 커플은 교회 안에서 연애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커플이
나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
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중심된 연애를 하는 커플은 공동체의 덕을 끼치고 본이 되고자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언행을 삼갈 때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문”(rumor)입니다. 소문이 잘 나면 모르겠지만 연애하는 커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문이라 상처까지 주는 소문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된 본성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등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커플을 향하여 뜬소문이나 비방 같은 것을 조용히(?) 소문내는 지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소문을 연애하는 커플이 듣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변명이나 변호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 그 헛소문을 잠재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즉,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성 관계를 추구한다면 이런 저런 교회 안에서의 소문에 그리 민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참고하는 것은 지혜롭다고는 생각하지만 안 좋은 소문 같은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서 연애하는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병어리가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안 좋은 소문 같은 것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연애하면 됩니다. 또한 입을 열어 변호하고 이런 저런 말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입을 열어 연애하는 커플이 자기들의 한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데 시간을 투자(헌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 중심된 건강한 이성 관계를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있다면 이런 저런 공동체 안에서의 들리는 말에 그리 민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들릴 수야 없을지 모르겠지만 들어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커플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멋지게 연애하는 커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할 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갈 때에 그 커플의 마음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좋은 추억들도 충분히 만들어 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추억들조차도 좋은 추억들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커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마음의 희망으로 가득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한 커플의 교회 안에서의 연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갈등

남녀가 사귀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그 만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귀면서 충분히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상처까지 입고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면서 기도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갈등 대처 기술(skills) 혹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에 관하여 주시는 깨달음을 3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생각)

첫째로, 서로 두 다른 인격체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것을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확대하여 '저 사람이 이제 나 사랑 안 해' 등등으로 말하면서 내 기대에 어긋났기에 실망 속에서 분노하며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은 남녀 연애 관계에 결코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요 반응입니다. 갈등은 어느 관계에서나 있습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갈등을 공공연히 다뤄줘야 합니다.

갈등은 결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요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 해결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갈등이 있으면 한 사람은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은 주로 속으로 삼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갈등 자체를 공공연히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폭발할 때는 이미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녀 관계에서 갈등을 공공연히 다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갈등을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애를 오래했어도 서로를 잘 모릅니다. 남녀의 다른 점은 평생 알아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통하여 서로의 다른 점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알아 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좋은 기회가 바로 갈등입니다. 그 이유는 갈등은 남녀의 서로 다른 점을 들춰내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남녀는 갈등을 서로를 더욱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줄 압니다.

상처

가끔 한국 드라마 속에서 이성감정 또한 이성 관계 가운데서 상처 입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한 상처 입은 남자들은 술을 퍼마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 아내는 저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한두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둘만의 이성 관계에서 연애할 때 그 짧은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한번 만나게 되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연애를 정신없이 하면서 마찰과 갈등 속에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겨를도 없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상처를 얘기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측면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름대로 "나의 연애관" 속에서 '상처'라는 주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 주위에 상처 입는 지체들이 있기에 한번 냉정하게 또한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성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눈물을 수 없이 흘리는 것도 상처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고 있는(지식으로든 전에 이성 관계 경험에서든) 사람들은 이성감정을 잘 조절 혹은 절제하여 함부로(?) 이성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선불리 이성감정이 드는 자매나 혹은 형제에게 다가갔다가 (또) 상처 입기기 두려워 (혹은 싫어) 아예 이성 관계를 시작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상처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기에 '조심성' 스타일 사람들은 선불리 이성감정에 이끌려 이성 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1년 동안 짝사랑하던 후배 자매가 있었습니다. 왜 그 자매를 속으로 혼자 좋아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때 1년 동안 이성감정에 시달려 그 감정을 꼭 누르느라(suppress) 곁눈었습니다[비교적으로 지금 젊어졌다는 농담도 함]. 오죽했으면 대학 5학년 때 1학년 자매 한 서너 명이 저에게 "할아버지"(Yearbook에 한글로 썼는데 다 틀리게 썼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자매들이었기에 한글을 잘 못 썼습니다)라고 불렀습니다. 자꾸만 보면 드는 이성감정... 무조건 피할 수도 없었고 한 크리스천 동아리에서 자주 볼 수밖에 없었고 볼 때마다 저는 태연한 척(?) 또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

는 '자매'로 대하려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년 동안 혼자 짹사랑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끝냈습니다. 진짜 저 혼자 '원맨 쇼' 한 것입니다. ㅎㅎ (지금에서야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지 그때는 ... ㅋㅋ) 이렇게 저처럼 '짹사랑' 스타일 지체들은 참 마음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한 교회 다니고, 한 부서에 있고, 그런데다 한 소그룹에까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단기 선교는 무슨 행사에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진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를 서로 주고 또한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성 관계에서 남자가 용기를 내어 시도도 안 해보고 칼을 다시 칼집에 넣는다고 뭐라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교회란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선 조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니 분명히 이 글을 읽는 지체들 중에는 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용기를 내어 기도 후에 용기를 내서 적어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해보고 거절당하든 말든 부딪쳐 보자는 스타일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짹 사랑만 하다 보니 (수없이 한 것은 아님. 연애를 해보지 못하다 보니 짹사랑을 수없이 많이 한 것처럼 느낌 ㅎㅎㅎ) 대학 졸업 후 대학교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후배 자매에게 다가가 이성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 자매는 대학 졸업 후에도 나를 친오빠는 아닐지라도 참(?)오빠로 잘 따랐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자매에게 부탁하면 꽤히 승낙하여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때 어떤 초등부 학생인가는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ㅎㅎ 아무래도 이렇게 자주 보고 교회도 함께 섬기고 하다 보니 이성감정이 자꾸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며칠 후에 그 후배 자매 집 근처에 주차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말한 후 저의 이성감정을 고백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혼자서 또 원맨 쇼를 했습니다. ㅎㅎㅎ (웃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돌아보면 이렇게 적으면서 좀 웃긴다). 결국 용기 아닌 용기를 내어 집 앞에 있으니 좀 나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집 앞에 있다고 하니까 그 자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이성감정을 그 자매에게 나눈 후 만일 "No"라고 하면 주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관계를 추구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No"했고 저는 miserable한 모습으로 차타고 집으로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 자매에게 전화해서 'No해서 고맙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때 저는 제 이성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확신도 없이 그 자매에게 제 이성감정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때 그 자매가 "No"하니까 저의 마음은 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뒤돌아 볼 때에 또한 지금 제 주위 몇몇 지체들을 바라 볼 때 이성관계의 시도나 관계에 있어서 주로 제가 상처를 상대방에게 먼저 "주고" 그러면서 제가 상처를 받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상처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에 더 공감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상처 입은 상태에서는 우리를 어쩌면 극심할 정도로 피해의식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상처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여 자포자기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극심한 분노로 변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원망과 분노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까지도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성 관계에서의 상처는 우리에게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성 관계에서의 상처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저는 심각하게 말씀에 조명하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저는 제 마음에는 생각들을 적어 내려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물론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물론 이성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에는 예수님의 상처가 전혀 생각이 안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입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성 관계에서의 상처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하여" 혹은 "대신하여"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성 관계에서 그러한 상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원가 차원 높은 이성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상처 수용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또는 성숙한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성 관계는 상대방을 위한 또는 대신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상처를 입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상처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처 수

용력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상처 수용력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입은 상처가 싸매어 지고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47편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서 먼저는 내적으로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런 후 우리의 외적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특히 그 내적인 부서진 마음(broken-hearted)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는 이성 관계에서의 로맨틱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이 우리의 이성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더 큰 바닷물이 시냇물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간의 상처까지도 다 덮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애하는 과정에서 헤어짐으로 말미암은 깊고 넓은 상처들, 모든 것이 싫어지고 사랑도 싫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싫어지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인 우리를 더욱더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자 찾으시며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내 자신을 마치 요나처럼 던질 때에, 십자가에 벌리신 예수님의 팔에 안길 때에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 상처들을 믿음으로 만지게 될 때에 우리 상처들은 온데간데없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순결

"순결"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나누려고 할 때에 저는 엘리자벳 엘리엇(Elizabeth Elliot)의 "The Passion and Purity"(열정과 순결)이란 책이 생각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요즘 이렇게 연애하는 커플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순결을 지키려고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커플이 요즘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 결혼 전 성관계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총각, 처녀들이 결혼 전에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전 성관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비성경적 죄악 된 흐름에 역류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천 싱글(솔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주로 연애에 대한 세미나 글 내용들을 보면 연애할 때 육체적 접촉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런 저런 대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왕성한 젊은 혈기가 있는 싱글 남녀가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할 때에 참으로 조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밤늦게 남녀가 방이나 차 안에 오래 같이 있는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관계를 맺고 싶은 유혹이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매들은 형제들이 밤늦게 방이나 차 안에 늦게까지 같이 있고 제안할 때에 자신의 순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제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그렇다고 형제를 좇아 밤늦게까지 방이나 차 안에서 시간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녀가 서로 노력해야 할 일이기에 자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람인데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면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로 강간 사건을 보면 남자 친구에게 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잘 알고 친한 남자 친구니까 안심하고 만나다가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젊은 싱글 형제, 자매들은 더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순결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 양쪽 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 전

에 성관계를 갖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약혼녀라면 (또한 약혼할 남자라면) 결혼할 때까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배우 톰 크루스가 TV에 자주 나오면서 결혼할 부인이 임신을 하여서 아기까지 낳았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는 미션 임파서블 III (Mission Impossible III)라는 영화가 나오는 바람에 홍보차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결혼식을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톰 크루스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가르쳐 주는 결혼관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갖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왠지 이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결혼, 이혼, 재혼, 이혼 사이클과 더불어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들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러한 할리우드 영이 지금 전 세상에 결혼관, 특히 순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나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꼭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7).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 싱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순결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시는 그 형제 혹은 그 자매에게만 자기의 순결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귀한 사랑을 추구하는 싱글 형제, 자매들은 이젠 인기도 없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순결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만일 결혼 전에 다른 남녀 이성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사죄의 확신 있다면 결혼 전에 상대방 형제, 혹은 자매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물론 두려워서 숨기고 결혼하고 싶겠지만 고백해서 상대방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결혼할 상대방 형제, 자매에게 고백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순결"이란 단어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교회 안에서도 이성 관계 가운데 "순결"이라는 단어가 남녀 대화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깐 해도 된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우리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순결을 잘 지켜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22절).

남녀의 다른 점

남녀의 다른 점 (1)

"여자는 남편을 만날 때까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남자는 아내를 얻기 전까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의미가 많이 부여된 말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만날 때까지 미래에 대해서 왜 걱정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 지향적(man-oriented)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는 남편 지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돕고 지지하며 남편을 향한 원함(desire)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기에 여자는 자기를 다스려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아무리 여걸이라고 하고 잘난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자는 남편을 만날 때까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과 달리 일 지향적(task-oriented) 이었다면 여자는 남편을 만날 때까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얻기 전까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남자가 일 지향적(task-oriented)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남자는 일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여 그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혼자서 스스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남자의 관

점에서는 여자를 "만나다"는 개념보다 "얻는다"는 개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선을 보고 만나고 하지만 남자의 본능은 여자를 얻는 것, 즉 여자를 만나는 것조차도 "일 지향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남자는 여자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해결 지향적으로 나아가기에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자를 얻고 난 후에는 목표를 달성했기에 여자와 함께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 달성 후 남자는 여자를 얻었다는 성취감 속에서 그 다음 여자와 함께 사는 방법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남자는 이제 여자랑 함께 살면서 여자랑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높은 목표가 없으면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 지향적인 여자와 일 지향적인 남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또한 결혼까지 해서 함께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영어로 *opposite sex*라는 말처럼 진짜 *opposite*(대조적)인데 과연 이러한 다른 점을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를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를 알아가는 것이지만 저는 남녀의 다른 점을 책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배우지 않으면 무식하게 무대포로 나갈 줄 밖에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자를 배워가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적용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고 있기에 저에게 아내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고 조금씩 이해가 점점 더 되면서 아내가 여자가 되도록 공간을 주며 참으며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 아내는 독립성이 강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있음) 그러나 그녀는 남편인 저를 의존합니다. 그러한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아내를 다스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기 원하는 아내에게 제가 좀 더 진실 되게 저의 솔직한 감정을 대화로 표현하면 아내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사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면 아내는 제 말을 들으므로 남편인 저를 더 알게 되어 기뻐합니다. 남편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대화로 다 얘기하면 아내는 가끔 그 때서야 제 사정을 알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알아줍니다. 역시 아내는 남편 지향적입니다.

남녀의 다른 점 (2)

“여자는 모든 남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단 한명의 남자만 제대로 알면 된다. 반면 남자는 설사 모든 여자를 안다고 해도 단 한명의 여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

남자는 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고 몇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빨리 포기해 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ㅎㅎ 물론 책을 쓰는 것은 포기했을지라도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여자인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자는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 예를 "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란 책에서 흥미로워서 여기게 옮겨 봅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민감하기를 바라지만 반면에 너무 민감한 것은 싫다고 말한다." 이 미묘한 구분을 눈치 챌 수 있는 남자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자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자의 논리적 생각으로는 왜 여자가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도무지 여자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남자들의 논리적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감정적으로 다가갈 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저는 '성육신' 방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말한다면, 아내가 감정적으로 남자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할 때에 남자는 그의 본능인 논리적으로 그녀의 말을 듣기보다 우선은 감정의 단계로 내려가(?) 그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조금씩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솔직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감정적으로 들으면 여자가 왜 이런 저런 느낌이 드는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자는 남자가 자기의 느낌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마음에 안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가 나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여자에게 들 때 그 때 남자는 여자를 감정의 단계에서 이성의 단계로 인도(lead)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단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남자는 여자를 이성의 단계로 조심히 또한 지혜롭게 천천히 인도하여서 성경적 원리로 여자의 감정을 조망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한 남자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는 한 남자 아담만을 알아가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결혼 할 남자 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사귀어 보면서 남자를 알아갈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한 남자의 부인이 될 것이 여러 남자의 부인이 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성경적 원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은 복종(submissive)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밑에서 듣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자를 알기 위해서는 겸손히 남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길 원하고 있는데 성경은 거꾸로(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하여) 잘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녀는 뱀(사탄)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 중에 하나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남편의 지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 지도하기를 거부하는 것도 죄지만 아내가 자기 남편의 지도를 거부하여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남자의 말을 겸손히 잘 들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자는 남자의 말을 논리적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이야기를 감정적으로만 듣는다면 기분이 당연히 나빠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여자를 지도(인도)하기를 거부했으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속히 하기보다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둘 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

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를 지도(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지도(인도)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성육신' 방법으로 여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감정 단계에서 그녀의 말을 듣는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 후 그는 그녀를 성경 말씀의 논리적 단계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 여자는 남자의 말을 겸손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될 것입니다.

남녀의 다른 점 (3)

"여자는 남자를 처벌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그러나 남자는 침묵을 사랑한다"["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

남녀의 의사소통의 다른 점을 배우면 배울수록 실제로 삶에 적용해 볼 때 참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해결 지향적이기에 남녀 대화 속에서 여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두뇌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하여 끝까지 여자의 말을 듣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익숙한 반면에 여자는 해결책을 필요로 하여 말하기보다 주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므로 서로의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의식을 강화하는데 말을 하기에 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해결책을 자꾸 제시하는 것은 남자 자신은 옳고 그녀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가 자신의 말을 자꾸 끊으면서 끝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스러워 합니다. 이러한 남녀 의사소통의 다른 점들 중 "침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여자들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겠지만) 남자들은 침묵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바라 피즈와 알렌 피즈는 그들의 책 "말을 듣지 않는 남자 &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옛날에 여자들은 동굴 안에 있었고 남자들은 사냥하러 나가면 목표물인 동물에 다가 가면서 동물이 도망갈까 봐 침묵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좀 웃기는 이유지만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 외에도 여자의 두뇌가 하루 6천에서 8천 단어를 수월하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남자는 하루에 2천에서 4천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말없이 침묵하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피즈). 남자들은 그렇다고 치십시오. 그럼 여자들은 왜 침묵할까요? 그 이유는 징벌의 한 수단이라고 피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공유하는 뜻이 있지만 만일 여자가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벌하고 싶다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침묵"에 대한 남녀의 다른 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하고 각자 남녀의 다른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사용하며 받아들여야 하나요? 우리는 이 침묵에 대한 남녀의 다른 점을 좁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성 관계든 부부 관계든 좀 더 충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나눕니다:

첫째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침묵에 대한 남녀의 다른 점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 서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왜 여자가 침묵하는지 알아야 하며 여자는 왜 남자가 침묵을 좋아하는지 알아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치우쳐 반응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침묵을 지키기보다 여자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남자가 말을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가 먼저 마음을 열고 여자와 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자가 대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의 간접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은, 남자의 직접 대화법으로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시작하기보다 여자의 입장에서 간접 대화법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남자가 처음에 먼저 말을 꺼내 대화하기가 힘들면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면 적어도 좀 정성을 들여서 답변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로 감정적인 관점에서 간접적 대화법을 사용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서서 답변을 하다보면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므로 여자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마치 우물물을 길듯이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마음을 열고 대화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자는 오히려 잔소리를 쏟아 부으므로 열고자 했던 남자의 마음을 닫아 버립니다. 피즈의 말이 웃깁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에게 설 새 없이 말하면서 화제를 계속 바꾸는 것이다." 남자가 말 안한다고 떠발총 쏘듯이 이런 저런 얘기를 막 쏟아내면 분명히 그 남자는 화를 내거나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침묵에서 나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여자는 남자가 침묵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동굴 안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생각과 시간을 갖고 나면 때가 되면 다시 동굴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부족하여 불안해하는 여자는 이때에 남자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목표인 남자를 동굴에서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어 한 마디라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감정적이 되어 남자는 찾김에 의미 있는 소리를 지르고 여자는 덩달아 찾김에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결코 남자가 여자의 생각처럼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침묵에 대한 여자의 관점에서의 해석일 뿐입니다. 남자는 침묵할 때가 있고 또한 그 필요성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여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여자와 달리 남자는 혼자 침묵 속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혼자만의 침묵 시간을 깨뜨리는 여자는 결국 갈등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침묵에 관하여 남녀가 서로 인정하고 노력할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남녀 서로가 노력해야지 한쪽만 노력하기를 기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남녀의 다른 점 (4)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과장을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남자는 사실과 자료를 과장하고 여자는 감정과 느낌을 과장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남녀 둘 다 과장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는 위에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을 알게 되면 연애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참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자의 감정과 느낌의 과장에 대해 "거짓말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저자 엘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는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공감이 되어서 여기 옮깁니다: "... 친구들 앞에서 남자가 여자의 의견에 반대했다면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억누르고 절대 내 의견을 말 못하게 하지! 당신은 늘 나한테 이런 짓만 해!” 만일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혹은 "늘")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여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말하는 의미는 남자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여자의 의견을 무시한 횡수나 장소나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자기에게 자상하게 행동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의 과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남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과 자료를 과장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자의 이러한 감정과 느낌을 과장하는 단어들("언제나", "절대", "늘") 하나하나를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이러한 감정과 느낌을 과장하는 그 의도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우선은 내려 놔야 합니다. 그런 후 왜 저 여자가 저렇게 말을 하는지 감정의 단계(level of emotion)에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노력과 연습과 실패를 맛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남자도 감정과 느낌을 과장하는 여자의 말의 의도를 처음에 제대로 적중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남자가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는 자기 논리적 사고 방식대로 여자의 말을 듣고 자꾸만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의 자존심만 상하게 되고 결국은 화를 내면서 무익한 갈등만 빚을 것

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는 여자의 말을 사실과 자료에 입각하여 반박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과 자료를 과장하는 남자의 말을 과연 여자는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남자가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여자에게 말할 때에 자기 하는 일이나 수입액이나 낚시 가서 잡은 물고기의 길이나 데이트한 아름다운 여인의 숫자 등을 과장할 때에 과연 여자들은 이러한 남자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여자의 감정의 관점에서 들을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사실과 자료를 과장하는 남자의 말을 우선은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한 아름다운 여인의 숫자가 나를 만나기 전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하면서 한 5명이 있었다고 말을 했을 때에 만일 여자가 질투하며 상한 기분으로 '그게 뭘 자랑이라고 허풍떠나'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면 남자는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를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드는 이유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도 잘 전달 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가 과장을 할 때에 감정으로 듣고 기분 나빠하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과 자료를 과장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주면서 인정(?)해 주면 됩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과장하는 것을 뻔히 알아도 그냥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후 남자를 칭찬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저를 만나기 전에 데이트한 아름다운 여자가 숫자를 듣고 인정하며 칭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애인에게나 부인에게 과장하면서 말하는 남자는 자존심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기 일이나 남자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등등을 좀 과장해서 말할 때에 여자는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게 서로의 관계의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연애 관계이든 부부 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진실 되게 말하는 삶을 산다면 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대화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과장들, 우리는 남녀 둘 다 과장할 때가 있지만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연애 관계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녀의 다른 점 (5)

여자의 대화법은 "간접화법"이며 남자의 대화법은 "직접화법"이다["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

여자, 남자가 참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대화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남녀의 대화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강하게 느낀 것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을 읽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남녀의 대화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많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것을 읽으면서 저는 진정 이렇게 남녀의 대화법이 다른 것일까 한쪽으로는 의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 그 책 저자인 존 그레이 박사가 한 세미나 테이프를 아내랑 차 안에서 들으면서 우리 둘 다 웃었지만 나중에 결혼한 후에는 존 그레이 박사의 책이나 세미나에서 주장하는 남녀의 다른 대화법을 서로 느끼게 되었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내의 간접대화법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서로 대화하면서 다투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내가 저와 다른 대화법인 간접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식사하러 가려고 할 때 아내에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으면 아내가 분명하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말해주길 원하는데 아내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주기보다 '우리 순두부 먹을까?' (멈춤) "아니면 짜장면 먹을까?"... 라고 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하면 저의 반응은 아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를 몰라 좀 답답해하면서 다시 한 번 아내에게 그 중에 무엇을 먹을까 라는 식으로 질문하면 아내는 그 때에도 분명히 무엇을 먹고 싶은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서도 저를 배려해서 제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를 묻는 답변으로 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남녀의 다른 점을 책들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내는 제가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를 아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알아주길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여자는 남자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맞히길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의 입장을 배려한 대화법이 아닙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를 배려한다면 남자의 대화법인 직접화법을 배워가므로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게 남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남자의 직접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직접화법을 남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그는 여자의 간접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턱대고 우리 남자 식대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간접화법을 사용할 때에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여자를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감정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남자는 간접화법에서도 느껴야 하지만 특히 여자의 몸짓언어에서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는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가 간접화법으로 말을 할 때에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으면 남자는 주로 자기 식대로 여자를 생각하지 그 여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여자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여자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남자는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방식도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좀 확실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남자가 논리적이고 해결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무턱대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와 마음과 마음 대화하기를 위해서는 우선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와 감정 단계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만일 여자가 자기가 느끼는 것을 남자에게 말하려고 할 때 남자가 논리적으로 들으면 거의 분명히 '왜 저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라고 속으로 말할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느끼는 것을 말할 때 해결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으면 자꾸만 여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분명히 남자는 여자에게 해결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의 다른 대화법을 과연 연애하기 전에 미리 배워 가면서 실지로 연애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배워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간접화법을 배워야 하며 여자는 남자의 직접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대화법을 배우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성 관계에서 다름 속에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의 대화법을 감지하고 배우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대

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어간다면 남녀는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의 다른 점 (6)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조언을 해주면 남자는 모욕을 느낀다... 남자는 남에게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일방적인 조언, 특히 여자가 해주는 조언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

남자는 그의 여자가 문제를 나눌 때에 그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들으므로 말미암아 그녀로 하여금 상대방이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기보다 좀 급하게 조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해결책을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피즈). 분명히 그녀는 해결책을 원하기보다 자신을 좀 공감해 달라고 그에게 마음 문을 열고 나누는 것인데 남자는 자신의 해결 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 하기보다 문제 해결점을 급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녀는 답답해합니다. 자기 얘기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남자를 보면서 저렇게 무심하고 둔한지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므로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닫아 버리고 하던 얘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더 이상 공감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어떠한가요?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다릅니다. 남자가 마음 문

을 열고 그의 여자 친구나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고민하는 문제나 아픔을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녀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자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방적으로 조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 때 남자는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남자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 고민 하다가 사랑하는 여자 친구이던 아내에게 마음 문을 열고 나뉘는데 그녀는 그러한 남자의 경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언의 말을 던지게 되면 남자는 김빠져서 더 이상 그녀에게 마음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를 사랑하기에 조언해 주므로 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위하여 조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입장에서의 생각일 뿐입니다. 남자도 여자가 그의 얘기를 진지하게 그저 들어주길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저 마음 문을 열고 남자의 말을 듣기만하면 됩니다. 아무 조언도, 아무 해결책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목양실에 들어온 아내에게 마음 문을 열고 제 고민을 털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내는 끝까지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가운데 저를 위로하려고 하기보다 저에게 조언하는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일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진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속히 확 달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불안했나 봅니다. 결국 좀 시간이 흘러 저는 아내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기를 원하였던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때 아내는 제 말을 귀담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조언에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말이 들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언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든 여자가 남자에게 하든 참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조언을 지혜로운 자에게 하면 더욱더 지혜로워지지만 미련한 자에게 하면 조언한 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잠9:9).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이 조언을 원할 때하는 그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언을 함에 있어서 온유함과 지혜와 겸손히 필요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조언을 요구할 때 조언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란?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사사기 14장 4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해야 하나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결혼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일”이란 “삼손이 덩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 이제 그(녀)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한 것입니다(1-2절). 다시 말하면, 삼손의 부모가 알지 못했던 일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였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3절).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되(13:3) 그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5, 7절) 그들은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여쭙 사람들이었습니다(8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12절).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삼손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않게 하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였을 것이며 또한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4-5, 7, 14절).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 사랑하는 아들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삼손에게 “네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

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14:3)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4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인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케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 삼손을 이방 여인과 결혼케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와 결혼케 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선택인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삼손의 배우자를 그 여자를 선택에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삼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선택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God’s permissive will)입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God’s directive will)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습니다(4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기에(13:5) 그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 생각은 불신자하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하고 그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기로 선택하였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하시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부터 시작한 아담과 하와의 결혼과 요한계시록에서 마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결혼을 생각해 볼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녀의 결혼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결혼일진데 어떻게 신부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은(계19:9)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창세 전에 선택한(엡1:4)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롬4:2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5:27). 그런

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하며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귄 수 있습니까?(고후 6:14)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습니까?(15절)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혼하면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결혼하면 신랑이 다니던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신부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다닐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남녀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다니면 되겠지만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교회 선택하는 것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을 하기 싫으면 그냥 두 사람이 제3의 교회를 함께 결정해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니던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싶어 합니다.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예비 신랑이 자기와 함께 그녀가 다니던 교회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녔다면(특히 그녀가 그 교회에서 자라났으며 그녀의 부모님도 그 교회 직분자라면 더할 수밖에) 그 바람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녀는 신랑이 그녀가 다녔던 교회에 함께 다니자는 말을 먼저 하길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예비 신랑에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신부가 당연히 자기를 좇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닐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그 교회에서 오래 다녔고 또한 자기 부모님이 그 교회 직분자라면 그러한 생각은 더욱 강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교회 결정하는 문제로 충분히 다룰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충분히 의견충돌과 더불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대부분 믿음이 좀 있는 커플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 때 만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그들에게도 주신다면, 그래서 그 지혜로 마치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듯이(왕상3:24-25) 교회도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은 신랑 교회 그리고 남은 두 번은 신부 교회를 나가기로 ...? 어차피 두 주인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주님을 섬기지만 두 교회를 섬기는 것도 ...? 아마 그렇게 결정하는 남녀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구하는 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두 남녀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남녀가 결혼하면 어느 교회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찌니라.” 언젠가 어느 어르신이 저에게 첫 단추를 잘 맞춰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 생각엔 자신의 부부를 염두해 두고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밑에 모든 단추들이 다 제 자리를 이탈하여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듯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시작을 잘못하면 평생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신혼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과연 신혼 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로 하여금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으면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며 아무 직무도 그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남편으로 하여금 일 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현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부분 남자들이 결혼 전에 군대를 갔다 오지 결혼하자마자 가는 남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어느 남자가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보낼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새신부도 자기 남편이 그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둘 다 일해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한데 어느 남자가 신혼 초에 집에서 한가히 아내하고 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신혼부부에게 적용해 볼 때 적어도 “한가히”는 아닐지라도 지금 신혼초기에 있는 남편들이 너무나 바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직장의 일로 인하여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여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둘째 치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아내도 일하다 보니 두 부부가 함께 앉아 저녁 식사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혼 초인데 주말 부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 가정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이 직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혼동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 가정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5절에서 결혼 초에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즐겁게 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군대 직무를 1년 동안 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만큼 신혼부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결혼할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는 이 3가지 원리가 앞으로 결혼할 두 남녀가 결혼하면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나아갈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두 사람(부부)의 행복이 우선시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4장 5절에서 남자가 1년 동안이나 군대를 나가지 않고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은 부부 관계를 우선시하여 서로 행복하게 지내라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은 신명기 24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을 군대에 징집하거나 특별한 임무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가 자유롭게 일 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나아갈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의 기준은 부부의 행복이 우선시 되어 합니다. 이 말은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다녀야 할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가 부모님의 행복을 자신들의 행복보다 우선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 부모님이 우리 교회 직분자이신데 우리가 결혼하면 내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나가야지’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순종도 ‘주님 안에서’ 순종입니다(엡 6:1). 성경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31).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결혼했는데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님(특히 어머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영향을 너무나 받아서 심리적으로 컨디셔닝(conditioning)이 된 예비 신랑/신부도 많은 듯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혼해서 다녀야 할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해서 다녀야 할 교회를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비 신랑과 신부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해서 다녀야 할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시해야 할 결정의 기준은 바로 두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둘째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나아갈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신랑이 한 1년 동안 한가히 보낼 수 있는 교회인가 입니다.

물론 성경 신명기 2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결혼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거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교회를 다닐 때에(그 교회가 형제가 다니던 교회이던 신부가 다니던 교회이던) 그 교회에서 이미 예비 신랑이 봉사하던 일이 있었으면(그것도 그 봉사직을 매우 중요시 여겨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겼다면) 분명히 그는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새신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신랑의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귀한 봉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새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만일 자기 남편이 결혼 전 싱글이었을 때에 봉사하던 교회 일을 결혼해서도 계속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새 교회에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새신랑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입장과 교회 사람들의 입장(심지어 목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녀가 자신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또한 신혼가정부나 젊은이 교구에 함께 참석하여 함께 믿음의 진보를 도모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하던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녀의 신앙생활과 새 교회 적응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남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새신부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원해도 그냥 참고 사랑하는 남편이 하자는 데로 순종(?)하여 남편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기는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참고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새 신부는 그냥 자기 남편과 함께 봉사하는데 꺼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부부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내가 내가 교회에서 전에 봉사하던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 교회생활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진보보다 퇴보할 위험까지 있다면 그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봉사하는 새신랑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와 함께 봉사하길 원하겠지만 그것은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 교회에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봉사도 해서 익숙하지만 내 아내는 새로운 교회이기에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시간을 두

고 자기 아내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함)에 적응하도록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가 자기 교회에 적응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도와줄 것입니다. 그 돕는 방법 중에 시작은 우선 내 입장에서 “내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 입장에서 “새 교회”를 생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생각을 내려 놓고 내 아내의 생각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가기 위해선 그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내 아내의 말을 가볍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결혼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나아갈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가야지 자신들이 좀 “한가히”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한 1년 동안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성경공부도 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소그룹에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봉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믿음의 진보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총각/처녀 때 봉사하던 교회 일은 1년 후에 다시 봉사해도 늦지 않습니다(물론 담당 교역자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은 결혼 초부터 부부 관계를 우선시 하여 주님 안에서 부부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나아갈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새신부가 한 1년 동안 남편으로 인하여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교회인가 입니다.

성경 신명기 24장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부 행복의 비결은 새신랑으로 하여금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므로 1년 동안은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신랑이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한다는 말씀은 그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잠5:18(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하면 새신랑이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새신랑이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며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는 비결은 그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 그녀가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새신랑은 자기의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가 밝혀낸 것은 결혼에서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이해받는 것, 존경받는 것). 새신랑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귀히 여기고 계신데 남편이 누구 이길래 주님이 귀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딸을 경히(없신) 여길 수 있습니까?

(2) 새신랑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과 3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28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하고"(33절 상반절). 마치 그가 자기 몸의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는 자기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엡5:26a)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해서(엡5:27a)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에베소서 5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새신랑은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그 말씀을 순종케하므로 세상과 분리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아내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 주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아내로 양육해야 합니다.

(3) 새신랑은 자기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되 그 목

표는 오직 아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아내로부터 상을 받을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되 그는 작은 일에서부터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하고, 쓰레기도 가끔 버리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척하는 등 아주 작은 관심을 아내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큰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신랑은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즐겁게 또한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신랑이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과연 새신랑이 자기 아내보다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성기는 교회일까요? 과연 그러한 교회를 함께 다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한 교회를 함께 다니면 새신랑이 자기 아내의 영적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녀의 믿음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가 아내를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교회를 다니면 그녀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며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녀가 자기 남편과 함께 그 교회를 다니면 두 부부가 진리의 말씀을 배워 순종하여 자신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벧전1:22)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나가야 할 교회는 새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녀로 하여금 ‘나는 내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있어. 내 남편은 나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서 내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참으로 내 남편은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는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혼부부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을 군대에 징집하거나 특별한 임무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가 자유롭게 일 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신24:5,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함께 다닐 교회를 지혜롭게 잘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감을 점진적으로 충분히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비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면 함께 나갈 교회를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중심으로 3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결혼

결혼의 기초

결혼의 기초 (1): "주님 안에서 성숙이란 결혼 안에서 성숙의 필수 조건입니다."

"결혼이라 주제에 대하여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본질(Nature)과 신격(Character)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에게로부터 결혼의 기초와 목적에 그의 은혜스러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총각, 처녀들에겐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결혼이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관심만큼 결혼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준비는 바로 결혼의 기초입니다.

너무나 많은 총각, 처녀들이 결혼에 기초 보다는 집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에 대한 고민보다 집에 대한 꿈이 크기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뒤로 미루는 듯 뜨거운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집을 짓기 바쁜 것 같습니다. 결국, 빈약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다 보니 결혼식 후 가정을 이룬 후 그 때서야 천천히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결혼 전 꿈꾸던 이상적 가정의 집에 지붕부터 해서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결혼에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기초에 세워진 결혼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폭풍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결혼이 됩니다. 결혼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 혹은 다스림(control)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의 권위(authority)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 종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22:37, 39). 그러기에 결혼할 때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은 부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헌신과 또한 제일 가까운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겠다는 헌신입니다. 그 계명 순종이 가정의 권위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presence)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 때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34편8절인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과 찬송가 492장(나의 영원하신 기쁨)을 통해서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그 순간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과 찬송이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감화, 감격이 오늘까지 우리 부부를 오게 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결혼의 기초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을 앞둔 총각, 처녀들은 결혼 준비를 위하여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삶 속에서 느끼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세우는데 헌신하지 않는 가정 건축가는 결코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집 모양을 사람들 보기에 멋있게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언젠가는 고통과 역경의 폭풍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지는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결혼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알아가며 인정하는데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드러내는 결혼을 꿈꾸길 원합니다.

결혼의 기초 (2): 결혼의 4 "P"를 명심해야 합니다.

4개의 P를 명심하십시오: (1) Purpose (목적): 하나님의 영광, (2) Principle(원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 (3) Pattern(패턴): 성자 예수님의 고난, (4) Power(파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결혼의 목적(Purpose): 기독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는 릭 워렌 목사의 "The Purpose-driven Life"(목적에 이끌리는 삶)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아닌가 걱정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긴 해야 하는데 또 하고 싶은데 결혼을 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지 뚜렷한 목적이 없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고백한 목적을 위하여 바른 방법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한번쯤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혼 자체나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짝지어주시고자 역사하신 그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올리는 결혼식은 기초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 예식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 이 확신(conviction) 없이 두 신혼부부가 팔짱을 끼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 나아간다는 것은 풋대 없이 풍랑 있는 바다에 돛단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의 원리(Principle): "하나님은 사랑(love)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혼은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야(manifest) 합니다.

결혼의 패턴(Pattern):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떠한 사랑들보다 귀한 아가페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는 결혼은 결국 사랑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겠다는 헌신이요 또한 부부가 서로 고난의

짐을 같이 지겠다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과연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에서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는 총각, 처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혼의 파워(Power):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결혼, 사랑의 원리로 살겠다는 서약하는 결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겠다고 다짐하는 결혼, 그러한 결혼은 파워(power)이 있습니다. 그 파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파워는 사랑의 파워입니다. 이러한 powerful한 결혼을 하고자 꿈꾸는 우리라면 한 번쯤 이 4 P's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의 기초 (3):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건강한 부부 관계 및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고 살고 있는 시대에는 건강한 부부 및 가정의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보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며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났다면 과연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질문을 하나 마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총각, 처녀들도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혼은 나이가 차서 하긴 해야겠지만 부모님의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를 보고 자라났기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는 가정에도 적용이 되어 결혼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범이 되어야 할 커플(a paradigmatic couple)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파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언약 신학 관점에서는 "옛 언약"(Old Covenant)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모델은 옛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은 더 이상 그들의 모델과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바라보고 좇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New Covenan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와의 부부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세기 죄를 범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의도하시던 아름다운 결혼에 대하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과 교회의 부부 관계의 모델을 바라보며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총각, 처녀들과 부부들이 아직도 옛 언약의 모델인 아담과 하와의 모델을 좇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본능 속에서 옛 모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좋고 완전한 예수님과 교회와의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에 꼭 잠겨서 옛 모델을 덮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 모델인 아담과 하와의 죄악 됨의 깊이는 싫어도 맛보는 것 같은데 마지막 모델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깊이는 잘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아니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 혹은 보화를 캐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결혼을 준비하며 또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는 시대, 가정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혼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모범이 될 만한 크리스천 부부가 부족한 이 시대에 모범된 부부와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부와 가정을 능력 있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결혼 목적

결혼 목적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결혼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요? 바로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루되 돕는 교우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돕는 교우관계의 필요(The need for helpful companionship)입니다(Douglas Wilson).

요즘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믿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젠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한 몸,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면 요즘은 계약 결혼 같은 것이 있어 살아보고 성격차이나 안 맞는 점들이 있으면 한 몸을 이루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여 헤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동거를 하다가 임신하여 결혼하는 경우도 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왜 내가 결혼해야 하며 무슨 이유 혹은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뚜렷하고 분명한 결혼 목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주위에서 사람들이 결혼하니깐 나이도 있으니 결혼해야겠다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관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로 가정을 이루고 싶어 결혼할 수도 있고 또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결혼할 수도 있을 것임

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목적과 주위 사람들의 목적 혹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민과 기도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목적에 이끌림을 받고 자 몸부림침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의 길을 계속 걷기가 가정, 특히 자녀를 가진 다음에는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창세기 2장 18-24절과 고린도전서 11장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려고 함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조 질서는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자와 여자들은 각각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반면에 여자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Douglas Wilson은 그의 책 "Reforming Marriage"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he is called to the work through ministering to him. He is oriented to the task, and she is oriented to him"(그녀는 남편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 지향적이고 그녀는 그 남자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자매들이 하나님의 결혼 목적인 '돕는 교우 관계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형제를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에 있는 자매나 이미 결혼한 자매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생각 속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든지 또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처녀 자매들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실 그 형제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실 그 형제는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그 형제"에게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자매들이 창조질서인 "그 남자 지향적"이 아니라 "일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매들이 자기 자신의 비전과 목적, 꿈 등등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것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실 "그 형제"의 비전에 부합하지 못하고 결혼해서도 각자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짝지어 주신 목적 혹은 신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형제들의 비전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자매를 바로 이끌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그 형제는 자매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데 서로의 다른 점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입니다. 결코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 자매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 도움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혼자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의 바른 목적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만 하며 행복하게 살기만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짝을 지어주십니다. 그 목적은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의 신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이루어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되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필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며 아내는 남편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 목적 (2): 경건한 자녀의 필요(the need for godly offspring)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경건한 후손 혹은 경건한 출산의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영이 유여 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 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경제적 이유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낳으면 다 기르게 되어있다고 말하시지만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녀를 하나나 둘만 낳아 기르다 보면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은 아들만 둘인데 아내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어 하는데 제 친구인 남편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ㅎㅎㅎ 이렇게 거꾸로 남편이 아이를 더 이상 낳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젊은 부부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아이를 하나 밖에 안 낳든지 아예 안 낳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가 편안하게 놀러 다니고 자녀 양육의 고생을 안 하고자 아기를 안 낳는 부부가 있다는 소식은 왠지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친구들이라 생각합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수많은 부부들은 과연 아기를

일부러 낳지 않는 부부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듣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이 이유들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입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인 경건한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한 2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셨으니 대책 없이 아이들을 줄줄이 낳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경제적 책임을 감당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 말씀인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를 낳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라면 묻는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예"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직장 과 학업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를 하나 밖에 낳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에 아이를 하나 이상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저희 부부도 아내가 대학원 다닐 때 딜런을 가졌고 제가 공부할 때에 예리, 예은이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부부들은 상당히 고민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공부하고 미래의 직업을 향해 가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미래의 직업을 생각해서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자 아이를 하나 밖에 안 낳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당한 고민과 기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이를 하나 이상 꼭 낳아야 한다는 명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땅에서 번성하라'는 창세기 말씀을 적용해서 아이는 하나 이상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한 아이든 10명이든 양(quantity)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경건한" 자녀입니다.

즉, 자녀를 낳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낳은 자녀를 경건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책임은 낳는 것보다 더욱더 힘들고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아가는 게 결혼 생활 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낳고나서는 이 아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양육한다는 책임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또한 아버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먼저 경건한 아빠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경건한 아이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더욱더 경건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감을 느끼면서 노력하게 되니 이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 있는 세 자녀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잠깐 우리 부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맡겨진 세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저희 부부에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생물학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을 그리스도 중심 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워 이 세상에 파송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셨고 또한 앞으로 그 은혜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이상하게(?) 보는 시대이지만 우리 부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말라기 2장 1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을 도전 받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test)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선 이 결혼의 두 번째 목적 구절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결혼에 임하며 또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 목적 (3): '성적 부도덕 행위의 회피'(The avoidance of sexual immorality)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세 번째 결혼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음행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심각한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음행의 문제라고 말하면 결혼 밖에서의 육체적 결합 및 결혼 이후의 자기 아내 혹은 남편 외에 사람과 육체적 결합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마음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체적 결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 결합으로 말미암은 음행 이전에 마음, 생각에서의 음행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음행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되 마음에서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마 5:28).

우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악한 시대는 소동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 만의 성적 만족을 벗어나 자기 소견대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성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결혼 이후에도 바람을 피우는 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기에 그러려니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요즘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조차 결혼 전 성관계나 결혼 후 바람피우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부인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제도 안에서 자기의 순결을 잘 지키고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는 배우자에게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결을 이미 결혼 전에 잃어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 총각, 처녀들 혹은 솔로(single) 형제와 자매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순간적 유혹과 쾌락에 눈이 멀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범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순결을 잘 지키며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에게 줘야 하건만 이제는 숫총각, 숫처녀라는 말이 웬지 사람들의 귀에 우습게 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도 이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의 외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고 마치 음탕한 고멜이 남편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듯이 다른 유부녀를 찾아 음행을 범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원조

교제 등 음행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지럽고 이러한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우리 목사들조차도 스캔들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혼 제도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크리스천 총각, 처녀들은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위하여 자신의 순결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은 우리 서로의 책임("의무")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성적 필요성(need)을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성적 만족을 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남자의 제일 큰 필요는 성 만족입니다. 아내에게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이 성적 만족은 아내가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성적 만족에 제일 큰 필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성에 관한 지식과 이해도 다르며 또한 서로에게 원하는 성적 만족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서로의 입장에서 성 책임을 다하지 못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 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아가기를 힘쓰되 특히 아내가 자기에게 원하는 그 필요들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성적 관계를 맺을 때에 결코 남자처럼 육체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이며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남편과 아내가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아내의 필요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남편이 자기의 육체적 성적 만족만을 추구하려 든다면 아내를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자기의 몸이 남편의 성적 만족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때에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의 성적 필요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만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의무입니다.

만일 부부가 지혜로운 성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왜 남편, 혹은 아내가 외도하면 음행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것이 만족할 만하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부도덕 행위가 날로 날로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인 이 성적 부도덕 행위의 회피를 위하여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은 서로의 의무를 서로에게 충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결혼을 하고자 준비하는 크리스천 싱글들은 자신의 순결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부부 성관계에 대한 책들을 미리 읽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글들은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토대로 YouVersion Korea에서 섬겼던 이윤선 간사님이 쓴 글들입니다.]

결혼의 준비

결혼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기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혼이란 그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그러한 큰 관심만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진정한 기초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현실적인 혼수준비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부분에만 몰입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본질적인 빈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결혼은 고난의 폭풍이 조금만 몰아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이 성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과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성자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부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헌신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 때에만 우리의 결혼도 비로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고전 10:4).

결혼과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4가지 P

Purpose (목적): 하나님의 영광

Principle(원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

Pattern(패턴): 성자 예수님의 고난

Power(파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결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두 남녀의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자 역사하신 그의 손길과 선하심, 신실하심,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올리는 결혼은 풍랑 있는 바다에 띄우는 뚝단배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합니다(요일 4:16).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여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원리란 부부가 서로 고난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겠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서약하는 결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겠다고 다짐하는 결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결혼만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결혼입니다.

존재의 중요성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존재를 가꾸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곁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아닌 그의 존재 (예: 사랑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꾸는 일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갈등이 별로 없는 결혼 전에는 서로의 존재가 많이 가려져 있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 속에 노출되어 서로의 가려진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됨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존재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존재로서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때에야 우리 존재는 비로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결핍된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포장된(?) 행함은 결혼의 기초를 흔드는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찾아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가 나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부부관계의 모델

우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건강한 부부 및 가정의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커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가정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은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모델을 바라보고 좇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New Covenant)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33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이 그들은 통하여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결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올바른 부부관계의 모델입니다.

균형 있는 관계

부부는 서로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배우자인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결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갈 정도로 서로를 지나치게 의지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유스러운 공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자유스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되 독립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삼각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부가 자유스러운 공간을 서로에게 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위 모서리를 하나님, 왼쪽 모서리를 남편, 오른쪽 모서리를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존중해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스러운 공간을 허락하고, 아내도 이와 같이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과도한 의지를 절제하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줄 때, 부부는 진정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은 후 결혼에 대하여 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고후 7: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데 그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유혹하여 간음(음행)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5절).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6:27-29). 우리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고전7:2).

2.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고후 7:3) "남편은 그 아내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가 여러 개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 4-5절을 볼 때에 바울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무"는 성적으로 서로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4-5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가 기도하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5절) 바울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의 몸을 주장하기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4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2절) 부부가 서로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하며 남편 또한 아내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부부가 각자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5, 9절).

3. 이미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을 했으면 그/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후 7:12-13) "...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서는 아니 됩니다(고후6:14).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했다면 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고전 7:1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16절).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을 하는 이유가 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만일 그 말씀을 어기고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헤어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전도하는 목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고후 7:38)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을 권면합니다(8, 40절). 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결혼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있고(28절) 세상일을 염려하며(33절)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34절). 어떻게 마음이 갈라집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합니다. 그러기에 결혼한 자는 온전히 주님께 온 맘을 다하여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합니다(32절). 또한 그/녀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34절).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깁니다(35절). 그러므로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7장 38절).

왜 결혼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꼭 결혼해야 하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말을 하는가 본데 그냥 혼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안 그래도 요즘 결혼 안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러면 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첫째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인 고린도전서 7장만 보면 우리가 왜 결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불같이 타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9절). 그 이유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5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하여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3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부간의 서로의 “의무”는 성적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 성적 의무를 각자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내는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몸을 주장하게 하고 남편 또한 그의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몸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4절). 다시 말하면, 부부가 성적관계를 맺을

때에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도록 하여 서로 성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남편이 원하는 성관계를 아내가 거절하고, 아내가 원하는 성관계를 남편이 거절하지 말라는 뜻도 내포돼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서로에게서 성적 만족을 누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5절). 만일 부부가 한 방을 쓰지 않고 각각 방을 따로 씀으로 서로의 성적 의무를 하지 않고 서로의 몸을 거절할 경우에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에 바울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을) 하되 다시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5절).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적 부도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또 다른 이유는 돕는 교우관계의 필요(창2:18-24, 고전11:9)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말2:15)임]. 특히 불 같이 타오르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는 이들은 속히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이들은 서로 부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않고 한 방, 한 침대에서 성적 관계를 통하여 성적 만족을 충분히 누리므로 성적 부도덕 행위를 회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혼하는 자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인 고린도전서 7장만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한 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8절), (결혼한 자들에게 한 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 … (11절), (처녀에 대하여 한 말)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26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40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인 처녀나 총각이나, 과부들이나, 이혼한 자들이나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나 총각이 결혼을 한다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28절) 바울은 여자가 남편에게서 갈라서서 재혼을 하고 싶다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1절).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16:18). 그러면 “남편도 아내

를 버리지 말라”(고전7:11)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기고 남편이 그의 아내를 버렸다면(이혼했다면) 질문은 이혼 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보면 바울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남편을 떠나지) 말고(10절)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이혼하지) 말라(11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가 그녀의 남편을 떠나는 것일까요? 왜 남편은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떠나고 이혼한 후 다시 다른 남자/여자와 재혼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비쳐볼 때 “간음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고전 7:11) 그러나 사별한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39절).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내는 재혼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재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이혼한 여자”(남자)와 재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면(눅16:18) 사별한 여자(남자)는 이혼한 남자(여자)와 재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별한 여자(남자)가 이혼당한 남자(여자)와 재혼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사별한 여자(남자)가 총각(처녀)하고 재혼하는 것 또한 “주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별한 사람들끼리 재혼하는 것도 “주 안에서만” 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나 갈등과 다툼과 고통 속에서 갈라서고 이혼한 남자(여자)가 다른 여자(남자)와 재혼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결혼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아내/남편과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갈등과 고통 속에서 갈라서고 이혼하고 있습니다. 재혼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지낼 수 있을까요? 다시 전 남편/전 아내와 화합을 시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시도하기 싫어서인가요? 왜 꼭 새 남자/새 여자를 찾아서 재혼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이혼과 재혼이 많아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흐름에 익숙해져 있어서 인가요? 과연 성격 차이나 돈 문제로 여자가 남편에게서 갈라서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혼의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우리 부부의 관계에 주님으로 더 이상 모시고 있지 않

기에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평화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보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안한대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편안하고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편하자고 결혼하고, 나 편하자고 이혼하고, 나 편하자고 재혼하는 이 세상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40절, 현대인의 성경).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to secure undistracted devotion to the Lord (NASB)]입니다(35절).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며(34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32절). 다시 말하면, “장가 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33절) “시집 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34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하며[“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지만”(현대인의 성경)](32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현대인의 성경)]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34절). 그러기에 성경은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38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마가복음 10장 2절).

결혼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결혼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결혼 예배 때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맺은 서약을 사단은 깨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약을 깨게 하는 사단의 방법 중에는 물론 성격 차이와 돈 문제로 결혼을 파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요즘 바람피우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했으면 처녀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한번쯤 바람피우는 것을 예견하겠습니까. 그 결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 법에 합법적으로 이혼했다 할지라도 과연 성경에서 그 합법적인 이혼을 옳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그 당시 이혼 문제에 대하여 두 학파인 헬렐파와 삼마이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헬렐파는 이혼 문제에 있어서 엄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견해란 간음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마이파는 거의 모든 이유로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어서 그 어느 편에든지 걸리도록 꾀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결과는 예수님께서 한 쪽을 선택할 시에 다른 쪽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MacArthur).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3절).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4절).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거기 말씀한 바는, 까닭 없이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가 “수치스러

운 일”을 하였을 때에 그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박윤선). 이렇게 모세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인 음행을 행하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녀와 이혼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허락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며 애타 정신이 결핍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완악함은 인하여”, 박윤선].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마19:8). 창조 시로부터[“본래” (마19:4)]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막10:6, 창1:27, 5:2) 그 둘을 짝지어 주시사(막10:9)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8절, 창 2:24)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정하셨지 그 결혼한 남녀의 이혼을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이혼하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의 부정함(marital unfaithfulness), 즉 “음행”을 미워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9절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호1:2)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한 여자가 (또는 남자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외도하고 음행하였을지라도 이혼하기보다 용서하고 화목하여(forgive and reconcile)(MacArthur) 결혼 서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엡5:32)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음행하는 우리 교회(그리스도인들)를 내어버리시고 계신지 말입니다. 음행한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와 수 없이 이혼하셨어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사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음행하는 우리 교회를 내어 버리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혼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혼하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엡4:3).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

균형 잃은 가정관

제 아버님 세대의 목사님들은 헌신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아마도 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37-38절에 순종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와 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목사님들은 헌신적으로 가정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열심히 순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이 두 세대 다 좀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있지만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와 육신의 가정과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가정은 영적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육신의 가정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부부 관계

부부관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인가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남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한 결혼을 한 후에도 부부관계의 뚜렷한 목적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환경과 감정과 같은 것에 치우쳐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부관계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관계를 세워 나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너무나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말과 생활이 다르므로 위선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소명의 꿈을 일찍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 부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제목으로 삼고 오늘까지 왔으며 또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두 번째 목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 부부가 배워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에 부부 싸움을 한 후 느끼는 것은 저는 제 힘으로 또한 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실지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력함을 상처와 아픔, 눈물 속에서 하나님과 아내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코 아내를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신적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능력 있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은바 되었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저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인지하면서 그 사랑을 영원히 대치할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에 점진적으로 온전히 충만하길 기도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베드로전서 1장22절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제 자신이 먼저 주님의 진리를 순종하므로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제 아내를 마음

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진리가 제 자신의 인간 사랑의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며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제 아내 앞에서 겸손히 인정케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추구케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제 아내를 사랑케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 부부 관계는 더욱더 주님 사랑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첫 번째 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의 삶 속에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쩔 때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눈물의 기도를 흐르게 합니다. 언젠가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일 주고 싶은 선물은 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이다.' 실제로 제가 아내에게 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줄 것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닮은 저의 모습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의 매우 귀중함을 아는 아내에게는 그 만큼 귀한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제목과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보다 저의 추한 모습입니다. 영적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직시하게 해 주실 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 안의 죄악 된 모습입니다. 제 마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만 연약한 제 육신은 죄악 된 모습,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갈등 속에 괴로워하지 않을 크리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 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보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닮은 부분이 있다면 입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느낄 때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므로 목적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죄악 된 모습을 직시하던 눈을 돌이켜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므로 말씀 인격화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도록 빛어 가시는 토기장이 주님, 그의 하나님의 되심은 어느 누구보다, 어느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의 선하시고 신실하심,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혼 서약을 지켜 나아가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부관계란 주님과 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을 떼어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부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부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 그 영광의 추구는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어제보다 좀 더 보이는 부부 관계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므로 가정 천국이루는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부부가 되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혼 초기

첫 단추를 잘 맞춰야 한다는 한 어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때 그 어른은 부부 관계를 염두해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의미는 부부 관계(생활)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밑에 모든 단추들이 다 제 자리를 이탈하여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듯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시작을 잘못하면 평생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혼 초기가 중대한 것입니다.

과연 신혼 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은 대학교 때 룸메이트 형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말씀입니다. 그 때 그 룸메이트 형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혼 초기에는 적어도 1년은 부부 둘이만 함께 살면서 주님 안에서 부부 관계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장은 신혼 초기에 적어도 1년은 양가 부모님도 모시지 않고 그냥 결혼한 남녀 둘이서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좀 의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처음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로 하여금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으면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며 아무 직무도 그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혼 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초기에 병무 임무를 하지 말고 일 년 동안 집에 한 가히 거하여 새로이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면 결혼 초기에는 나라보다 가정의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처럼 자원하여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병무 책임이 의무적일 경우에 만일 새로이 결혼한 청년들에게 일 년은 부부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일 년 병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 정부가 법 제도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의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드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엔 가정의 부부 관계가 견고히 세워져 갈 때 온 가정이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이며 온 가정이 견고히 세워져 나아갈 때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이며 또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갈 때에야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주례를 하기 전이나 또한 결혼하려는 형제, 자매들에게 결혼 하면 첫 일 년은 단 둘이서만 사는 것을 권면하곤 합니다. 물론 상황이 정 안돼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더 이상 강조는 하지 못하지만 될 수 있는 데로 적어도 일 년 동안은 둘이서만 살면서 주님 안에서 부부 관계를 세우는데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노력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부부 관계 외에 모든 다른 관계로 하여금 부부 관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차단해야 할 것은 권면하곤 합니다. 우선순위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 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이지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이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책임은 아내보다 남편입니다. 만일 남편이 부부 관계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이던 자식들과의 관계에 매여서 그 관계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부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해 놓는다면 그 부부 관계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남편 형제가 부인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지 못하면) 아내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며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부부 관계는 신혼 초기부터 모래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의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겁지만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결혼 초기에 될 수 있는 데로 집에 거하여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아내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도록 우리 남편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라 생각합니다.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남편들은 우리들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들의 아내는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신혼 초기의 위기: 첫째 아기의 죽음

결혼한 지 7개월 후인 1997년 11월, 미국으로는 감사 계절에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Los Angeles에 있는 Good Samaritan 병원에 갔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내를 검사하더니 좀 이상하다고 하여 초음파인가를 찍어 보자고 했습니다. 찍어본 결과는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이상하다고 저희 부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아기의 횡경막이란 것이 한쪽에 없어서 내장이란 다른 것들이 위로 올라와 왼쪽 폐가 없고 심장은 오른쪽으로 많이 밀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척추가 "S" 모양으로 돼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인 첫째 아기 주영 [저희 아버님 지어 주신 이름으로서 뜻은 "주님의 영광", 영어 이름은 제가 Charis(헬라어로 "은혜"라는 뜻)로 지어 주었음]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1998년 3월3일 순산케 하셨습니다. 아기를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은 그 아기를 아내에게 한 몇 초 앉아보게 하더니 곧장 준비해 놓은 incubator 같은 것에 아기를 놓고 데리고 나가서 응급차에 실어서 더 큰 Los Angeles Children 병원 중환자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주영이는 55일 동안 있었습니다.

아기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주영이에게 "Jesus Loves Me"(예수 사랑하심은)을 불러 주었습니다. 여기 저기 호수 같은 것이 꽃아 있었고 입에도 꽃아 있어서 저는 주영이가 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저기(머리까지도)에 바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주영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희 부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아기가 살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였습니다. 대수술을 두 번 정도 했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살려 주리려는가 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54일째 되던 주일(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 날), 여동생이 병원에 갔다가 교회로 돌아왔는데 주영이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몸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인지 시퍼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때 아내는 곧 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친구에게 들은 간증이 생각나서 마음은 주영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교회에 책임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기로 결심하고 다 마치고 나중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저에게 두 가지 options을 주었습니다: (1)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2) 빨리 죽게 할 것이냐. 그 때 저는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나중에 집에 와서 아내랑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더 이상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 때서야 아기를 빨리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63편 3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영이의 55일 인생보다 나으므로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라 믿고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의 결정을 통보한 후 저는 저희 부모님과 형 부부와 여동생에게 연락하여 다들 중환자실로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옆방으로 가 계시고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영이를 제 품에 앉고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때 그 순간 저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영이를 제 품에 앉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옆방으로 갔을 때 다들 울고 계셨지만 아버님은 저에게서 주영이를 달라고 하시더니 그 아기를 품에 앉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신 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오더니 주영이의 심장을 살펴보더니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더군요.

며칠 지난 후 저희 부부는 주영이를 화장한 후 그 아기의 뺨가루를 가지고 한 호숫가로 갔습니다. 작은 배를 빌려 타고 제가 배 뒷부분에서 배를 조종하고 아내는 앞부분에서 아기의 뺨가루가 들어 있는 작은 box를 들고 호숫가 구석 쪽 부분으로 가서 뿌렸습니다. 그런 후 다시 돌아오면서 배를 조종하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이더니 "Titanic"이라고 말(농담?)하더군요. 그 때 제 아내의 양쪽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미국 복음성가 "My Savior's Love"(혹은 "I Stand Amazed")를 힘차게 찬양케 하셨습니다 (<http://youtu.be/nkFOtaO8B9c>):

(1절)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예수의 임재 앞에 놀라움으로 서있네

이 부정한 죄인을 어찌 사랑 하시는지!)

(2절) For me it was in the garden He prayed: "Not My will, but Thine."

He had no tears for His own griefs, But sweat drops of blood for mine.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갯세마네 기도했네
자신을 위한 선택 없이 날 위해 그 피 흘렸네)

(3절) In pity angels beheld Him, And came from the world of light
To comfort Him in the sorrows He bore for my soul that night.
(천사들 연민 하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슬픔 말기 위해 그 밤에 날 감당했네)

(4절)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s,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suffered and died alone.
(나의 슬픔 나의 죄를 자기에게 감당했네
갈보리 고난당하고 홀로 십자가 지셨네)

(5절)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영화되어 승리하고, 그를 보게 될 그 날까지
기쁘게 부를 찬양제목 날 향한 주의 사랑)

(후렴)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내 노래 멈출 수 없네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날 향한 내 주의 사랑)

가정을 광야로 삼으라!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의 승리”(Growing Strong in Dry Times)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교회 뿐 아니라 특히 가정도 광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 삼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정 식구들의 모든 죄가 들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부부 관계에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정만큼 우리 부부의 모든 죄가 들춰지기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들춰질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에게 싶은 상처를 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광야로 삼는 부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를 볼 수 있기에 부부 관계에서 들춰지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부부는 가정에서 서로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들춰질 때 서로의 추한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직시하며 인정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나의 나 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갈 수 밖에 없기에 더욱더 광야와 같은 가정에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만큼 우리 부부의 모든 죄가 들춰지기 좋은 장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란 부부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만족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원함이 상대방에게 만족하게 되지 못할 때 우리 부부는 서로 불평, 원망하며 싸우고 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오면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만족되지 못하다고 생각하

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현상들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봅니다. 특히 우리 부부 관계에서 더욱더 잘 보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로 여기기보다 서로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곳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남편 또한 아내에게 계속 요구하는 곳이 만일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욕구 불만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부가 가정을 광야로 삼고 부부생활을 한다면 서로의 원함을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내의 필요들을 채워주고자 노력한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필요를 더욱더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므로 그의 말을 청종하며 순종할 때 남편은 그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부는 각자의 필요를 서로를 통하여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므로 만족함과 자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만큼 우리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의 승리”란 책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허물과 죄가 들춰지는 가정, 비록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고통의 통로를 통하여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 빚어지는 가운데 서로의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기를 거부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즐거움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정들을 세우시사 가정 증인 공동체로 사용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과 존경

사랑과 존경 (1)

Dr. Emerson Eggerichs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란 책을 모든 부부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책 제목처럼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의 무조건적인 존경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저의 결혼 10주년을 맞이하기 한 2주전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내와의 다툼 속에서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희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 다시금 재헌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함에 재헌신하게 되었고 아내 또한 저를 존경하는데 재헌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결혼 10주년 1주일이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회 때 에스더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존중을 받지 못한 남편 아하수에로 왕과 사랑을 받지 못한 와스디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나눕니다.

에스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무른 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2절) 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 모든 방백들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3절). 이 잔치는 180일이나 지속되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기간 동안 자치를 벌였던 이유는 모든 방백들과 신복들 앞에서 자기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4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었는지 아하수에로 왕은 또 다른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번에는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5절). 그리고 제 칠 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10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그녀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하길 원했지만(11절) 왕후는 왕의 초청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12절). 그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하여(12절) 전례대로 왕의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어 결국은 왕후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 왕후의 위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19절).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녀가 자기의 남편을 멸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뿐 아니라(17절) 오히려 남편을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20절). 그리고 그는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22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와스디 왕후는 그녀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말에 불순종하여 그를 분노케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존경인데 왜 와스디 왕후는 존경보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남편을 멸시하여 분노케 하였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Dr. Emerson Eggerichs의 말처럼 이 두 부부는 Crazy Cycle을 겪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거부하였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여왕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Dr. Emerson Eggerichs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아하수에로왕은 아내를 자기 삶 속에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두 번이나 열면서 자기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으면서도(4절) 아내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디. 그래서 에스더 1장9절을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스디 왕후와 부녀들은 그들의 남편들에게 무시(neglect)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두 번째 잔치인 7일 동안의 "인민"을 위한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술 취해서 자기 아내인 와스디 왕후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의 초청은 아내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아니듯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디: ‘과연 술집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하고 술 먹다가 술 취해서 예쁜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로 아내에게 그 술집으로 오라고 하면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겠는가? 과연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는가?’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남편을 무조건 존경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스디 왕후는 그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부부 관계는 결국 현대 말로 하면 이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부의 관계를Dr. Emerson Eggerichs의 “사랑과 존경”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까지 묵상케 하셨습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아하수에로 왕과 달리 신부인 교회를 무조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므로 존경 또는 경외하는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와스디 왕후처럼 그에게 불순종하므로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일 귀중하게 여기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가정인 우리 각각 기독교인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부부가 사랑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입술로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을 존경하며 그의 말씀의 순종하는 사랑받는 신부인 교회로 더욱더 세움 받길 기원합니다.

사랑과 존경 (2)

언젠가 새벽기도회에 읽을 에스더 2-4장 말씀을 읽다가 에스더 2장 17-18절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 1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를 “사랑”했다는 말씀도 없고 그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에스더 2장에 와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는 말씀(17절, cf. 5:2)과 그녀를 위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더 1장과 너무나 대조적인 면을 보면서 놀람과 더불어 ‘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와스디 왕후와 에스더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두 여인의 다른 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와스디 왕후는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she was lovely to look at (NIV)]고 에스더 1장11절에 기록돼 있고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Esther, was lovely in form and features(NIV)]라고 에스더 2장7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여인의 다른 점입니다.

다.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는 말씨는 와스디 왕후는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용모가 좋았던 여자로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는 그들이 쓴 책 “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에서 여자들의 외모는 남자들을 매혹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90퍼센트는 만난 지 4분 이내에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육체적 매력은 10초 이내에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두뇌보다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잘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04, 309면)[참고: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가장 매혹시키는 요소”, 310면]. 아하수어로 왕이 보기에 와스디 왕후는 용모가 좋아 (예뻐?) 왕은 그녀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길 원했습니다(1:11). 그러나 에스더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에스더가 사람들 “보기에”(to look at) 좋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에2:7). 여기서 ‘곱다’는 말은 ‘환하다’는 뜻이고, ‘아름답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즉,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육체의 미만이 아니고 덕스러운 미를 갖추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이것이 바로 와스디 왕후와 에스더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자매의 외모”란 글을 보면 그는 “외모는 은사이며 사명이다. 사명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결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외모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나에게 이러한 외모를 주신 이유를 알고, 나의 외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외모, 재능, 성품....)를 하나님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치 않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 강점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고 만다. 스스로의 외모를 자랑거리와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강점을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견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와스디 왕후는 자기에게 주어진 미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미모로 남편인 아하수어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기보다 그를 멸시(contempt) (에1:17)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 남편인 아하수어로 왕을 멸시하는데 자기의 용모를 사용했습니까? 바로 남편의 초청을 거부하므로(에1:12 - “싫어하니”)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어로 왕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하는(에1:17)

하나의 나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쁜 본보기는 우리 가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불순종하는 엄마를 보는 자녀들, 과연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한 나라의 왕후가 왕의 초청을 거부했을 때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한 공적인 인물의 가정불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와스디 왕후는 왠지 사람들 보기에 용모가 좋은 미모가 있었지만 결코 에스더처럼 덕스러운 미를 갖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와스디 왕후와 다른 용모를 지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대로 에스더는 단순한 육체의 미만이 아니고 덕스러운 미를 갖추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덕스러운 미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에스더는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헤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The girl pleased him ...). 여기서 헤개란 인물은 아하수어로 왕이 거하는 수산 궁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자로서 에스더는 그의 수하에 속하였었는데(절) 그는 에스더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헤개를 기쁘게 하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더는 분명히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에스더가 ‘곱다’, 즉 ‘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2:7). 남을 기쁘게 해주는 여인의 마음은 환하고 또한 얼굴도 환합니다. 에스더는 다른 이를 환하게 해주는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착한 여인이입니까?[(2:7) “아리따운” a ‘착하다’란 뜻]. 그녀는 나중에 왕후가 된 후 자기의 남편인 아하수어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와스디 왕후와 대조적입니까?(1:9)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다른 이에게도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 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여도 꼭 상대방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알아 가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쁘게 해줘야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되는 것은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 합니다.

둘째로,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은총을 얻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 자 (And Esther won the favor of everyone who saw her)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는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해개 (2:9) 외에도 자기를 보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였으면 모두 다 에스더를 좋아하고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겠습니까? 모든 보는 자들에게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나 또한 그들에게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풀 줄 아는 자가 배품을 또한 받을 줄 압니다. 은총을 베푸는 여인이 은총을 또한 겸손히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에스더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개의 명에 신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죽은 후에 삼촌이 모르드개가 자기를 딸같이 양육하였기에(2:7) 모르드개의 명이라면 신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모르드개의 명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10, 20).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좇”았습니다 (2:20). 이 얼마나 착하고 신실한 여인이십니까? 순종하는 여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남편의 말의 불순종하여 그를 존경하기보다 멸시하는 여인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용모가 매력이 있을지라도 결코 덕스러운 여인이 아닙니다. 덕스러운 여인은 남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녀는 겸손히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말을 순종함에 있어서 전이나 지금이나 신실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에스더는 민족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구절은 “죽으면 죽으리이다”(4:16)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멸살당할 위험에 놓였

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금식한 후 아하수어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기에 희생할 각오를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와스디 왕후가 대조적입니까? 와스디 왕후는 자기 민족을 에스더처럼 사랑한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남편 아하수어로 왕에게 불순종하므로 모든 부녀들로 하여금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하게 만드는 계기를 준 왕후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멸시하였던 와스디 왕후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민족까지 사랑하였던 에스더는 아하수어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라고 청하였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민족을 하나로 연관해서 생각한 에스더는 참으로 덕스러운 여인이여 “심히 사랑스러”운 여인(5:2)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에스더 2장을 묵상하면서 와스디 왕후와 대조적으로 에스더는 참으로 그저 용모가 사람들 보기에 좋았던 여인이 아니라 덕스러운 미를 갖춘 여인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하수어로 왕이 보기에 “심히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5:2). 과연 어느 남편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아내,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는 아내,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는 와스디 황후처럼 남편 보기에 (또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용모만 보기 좋은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에스더처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녀는 환하고 착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덕스러운 미를 갖춘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31장 10절과 29-3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령 충만한 남편

(에베소서 5장 25-33절)

성령 충만한 남편 (1)

어떤 한 부부가 한밤중에 일어나 언쟁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부인이 깨우면서 이 언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왜 그래?”

여자: “당신이 침대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남자: “미안하게 됐어”

여자: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남자: “뭐라고?”

여자: “당신은 언제나 나를 괴롭힌다 말예요”

남자: “이봐, 내가 자고 있었잖아. 자다가 그렇게 된 것을 어쩌란 말이야?”

여자: “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인터넷).

여러분은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다른 시각점을 보십니까? 남자는 침대를 너무 차지한다는 부인의 말 그 자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부인은 그 말에 담긴 속뜻, 즉 남편의 잠버릇 하나만 보아도 그동안 얼마나 남편이 지배적인 입장을 독점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부부는 다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인 존재들이 지구 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자가 완전했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교만해진 이들은 신들에게 반기를 들었고, 화가 난 제우스 신은 그들을 모조리 반으로 쪼개 지상에 흩어 놓았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그 이후로 각각의 반쪽은 나머지 반쪽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완전하다고 스스로 여긴다는 것은 교만한 가운데 서로를 필

요로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후 여인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창3:18). 서로를 필요로 하는 아담과 하와,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거기에는 “내재적인 완전함”이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이해되고 용납되는 가운데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신비스러운 부부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는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이지 결코 경쟁 상대(competition)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점들을 채워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성경적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그 부부는 주님 중심된 부부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 25-33절 말씀 중심으로 남편의 성경적인 책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남편”이란 제목아래 성령 충만한 남편은 무슨 책임을 감당하는지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 우리 부부 관계에 적용하여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로 세움을 받는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골로새서 3장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5:25),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골1:19a).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책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종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첫 번째 책임은 '다스림'(rule over them)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종하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그녀를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 4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가 밝혀낸 것은 결혼에서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이해받는 것, 존경받는 것).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 남편들이 누구이기에 주님이 귀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딸을 경히(업신) 여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남편들이 주님을 귀하여 여기므로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송가 102장)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보이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2)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우리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과 3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28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하고“(33절 상반절). 마치 우리 남편들이 우리 몸의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사랑하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은 우리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to make her holy)(엡5:26a)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하여(to present her to the Lord as a radiant wife)(27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에베소서 5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you have purified yourselves by obeying the truth...).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므로 세상과 분리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 주님의 광채가 들어나는 아내로 양육해야 합니다(엡5:27).

(3)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은 우리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되 그 목표는 오직 아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아내로부터 상을 받을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하고, 쓰레기도 가끔 버리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척하는 등 아주 작은 관심을 아내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큰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4) 우리 남편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적극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남편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아내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우리는 무조건 우리 아내들에게만 다 맡기고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부는 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떠나 우리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25절).

기독교 가정 사역 연구소에서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한 10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행복 비타민을 먹이십시오:

가장 좋은 비타민은 "비타민 H" 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은 보약과 같습니다.

(2)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를 연구하십시오. 아내와 사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아내를 알지 못하고 아내와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을 쌓아 가십시오.

(3) 최소의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잔소리와 꾸지람 대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이겨낸 잔소리는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루를 여는 열쇠며 하루를 닫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4) 가장 깊은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서두루지 마십시오.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제트기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5) 베개 밑 대화를 나누십시오:

가장 깊은 대화는 침실에서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코고는 소리가 아닙니다. 침실에서 돌아눕지 마십시오. 마주보고 누우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돌아눕는 순간 부부거리는 10만 리가 되고 맙니다. 지구를 한바퀴(40,350Km) 돌아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돈을 말기십시오. 돈은 애정의 척도가 됩니다: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가계부 좀 보자는 소리입니다. 보여주기 전에는 훑쳐볼 생각을 마십시오. 정 보고 싶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자라지 않아? 힘들지?"

(7)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십시오:

아내는 소유의 개념이지만 연약한 여성은 보호의 개념입니다. 내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임을 기억하고 보살피 주십시오. 아내를 관리하려 들지 말라. 아내는 재산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8) 가족들을 위해 보험을 드십시오. 가장 큰 보험은 시간보험입니다:

저축한 것 이상을 찾아 쓸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잠시라도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가정은 시간으로 쌓아 올려지는 성과 같습니다.

(9)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내와 싸워 이기려는 것입니다. 꼭 이기고 싶거든 자신을 이기십시오. 승리자 곁에는 언제나 패배자만 남지만 사랑하는 이 곁에는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10) 아내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아내와 생의 목표를 같이 나누십시오. 아내를 식모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내도 자라가야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을 하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아내에게 품위 유지비도 지불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녀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이 우리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내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아내를 그리스도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 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부로 세움을 받길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2)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에 헌신한 남편은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내를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엡 5:25). 사랑하되 성령 충만한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벧전3:7) 목적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엡 5:25). 그 목적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며(엡5:26)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는 것입니다(27절).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마28:20). 곧, 성령 충만한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제자 삼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들어내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남편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엡6:4). 이렇게 성령 충만한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부부는 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5:31).

둘째로,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 괴롭게 하지 말라"(Husbands, ... do not be harsh with them). 언제 아내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데보라 테넨은 그녀의 책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에서 한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1) 나의 고통에 남편이 반응하지 않을 때
- (2) 뭔가 고통을 호소했을 때 남편이 해결책부터 제시할 때 또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위로할 때 (아내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단정함),
- (3) 남편이 자기하고 상의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혼자 결정을 내릴 때
- (4)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면서 나에게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남편의 침묵)
- (5) 남편이 내가 친구(들)에게 둘 사이에 시시콜콜 이야기까지 다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
- (6) 남편이 나에게 강의 할 때

- (7) 남편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일 할 때, 그리고
- (8) 남편이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남편의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될 때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인터넷):

- (1) 시집부모님의 일은 최우선으로 하면서 친정 부모님의 일에는 무관심할 때
- (2) 중요한 일을 한마디의 상의 없이 결정할 때
- (3) 집에서는 잠만 잘 때
- (4) 아플 때 약이나 사먹지 왜 그러고 있으라고 말할 때
- (5) 아이들에게 무관심일 때
- (6) 아내의 변화에 무반응 일 때
- (7) 공휴일에 혼자 놀러 나갈 때
- (8)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 (9) 나 지금 너무 피곤해라고 말하고 등 돌리고 잘 때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존 고트만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어떤 결혼이 향상되며 어떤 결혼이 악화되는가를 연구해 왔는데 부부 갈등에 있어서 서로를 괴롭게 하는 위험한 것들 순서대로 4개를 제안하였습니다(레스 패로트 3세 & 레슬리 패로트 “결혼”):

(1) 비판:

남편이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결국은 아내를 비판하는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 아내에게 탓을 돌리는 것과 비난하는 일, 이런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2) 멸시:

고트만 박사에 의하면, 비판과 멸시가 다른 것은, 멸시에는 “배우자를 모욕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멸시는 인격의 핵심을 건드려서 관계를 밑에서부터 흔들어 놓고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멸시할 때 가장 흔한 형태로는 인격모독, 적개심이 담긴 농담, 비웃음(조롱) 등이 있습니다.

(3) 방어적 태도: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때에 아내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서 아내에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므로 아내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적 태도는 잘못된 피해의식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의 책임을 부인하므로 아내를 더욱더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4) 돌담 쌓기:

남편은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아내에게 돌담을 쌓음으로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감정에 압도되므로 ‘돌담’ 반응을 함으로써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므로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 얼굴 표정을 굳게 하고,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목을 곧게 하고 등등 말로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돌담 쌓는 것 자체가 아내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글러스 월슨은 그의 책 “개혁혼인”(Reformed Marriage)에서 남편들의 성경적인 의무들 여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의무는 남편은 주님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림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진실 되게 말해야 합니다. 남자가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실 되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 두 번째 의무는 남편은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엡5:29).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를 특별히 또한 부드럽게 돌보지 않으면서 그녀가 열매 맺으며 또한 사랑스럽기를 기대한다면 진정한 남편이 절대 아닙니다.

(3) 세 번째 의무는 남편은 질투해야 하며 또한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출 34:14b).

남편에게는 경건한 질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자의 질투는 죄와 섞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네 번째 의무는 남편은 아내에게 그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출 21:10-11).

남편은 아내가 장보는데 필요한 돈을 공급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기 아내의 이러한 필요성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딤후 5:8). 남편은 아내의 성적 필요성을 채워줘야 합니다(고전 7:3-4).

(5) 다섯 번째 의무는 남편은 그의 아내를 만족히 여겨야 합니다(잠 5:15-19).

남편은 모든 점에서 자기의 아내를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6) 여섯 번째 의무는 남편의 지속적인 책임은 아내가 만든 헌신들을 재검토하고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민 30:13-15).

성령 충만한 남편은 성경적인 의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아내를 복되게 하십시오!

[잠언 5장 15-23절]

여러분도 “복덩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네이버 사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복덩이는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오 늘 본문 잠언 5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Let our fountain be blessed)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샘”이란 아내를 비유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아내를 복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물론 솔로몬 왕은 아무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잠언을 보다 보면 그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1:9, 19; 25:24).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는 “아내”는 그런 다투는 여인이나 성내는 여인이라기보다 “어진 여인”(an excellent wife)(12:4), “슬기로운 아내”(prudent wife)(19:14) 또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A wife of noble character)(31:10)입니다. 잠언 12장 4절을 보십시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31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성경은 이러한 어질고 슬기로우며 현숙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아내를 배우자

로 둔 남편은 복 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아내는 그에게 복덩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복덩이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주 덩어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잠언 5장 18절에 나오는 “복되게 하라”는 원어 히브리어 의미에는 “복”(bless, be blessed)이라 뜻도 있지만 “저주”(curse)라는 뜻도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Vine).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복덩이로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말2:14) (박윤선). 그러므로 우리 남자는 우리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복덩이요”(You are my blessed one)라고 마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말로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된 아내를 우리의 복덩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죄요 또한 교만의 죄입니다. 아마 우리 남자들 중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숙한 여인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투며 성내(성깔있)는 여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아내를 복덩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럴싸한 변명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한 말을 제가 듣는다면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여인을 선택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을 거부하고 우리가 보기에 예쁘고 매력을 느끼는 그러나 나중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는데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우리 남자들이 자기가 선택하여 결혼한 아내에게 참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행동으로도 아내로 하여금 자기가 저주 덩어리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많은 아내들이 자기들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의 인생입니까? 우리는 우리 아내(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덩이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아내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 아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을 보십시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어떻게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바 돼야 한다(*we must be captivated by her love*)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아내의 미모보다 그녀의 미덕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는 말씀 비유의 의미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물”과 우리의 “샘”(15절)인 우리의 아내의 사랑만을 즐기며 결코 그녀를 버리고[“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하지 말라는 말의 뜻(박윤선)] 음녀의 집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20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아내로 말미암아 성적으로나 애정적으로나(*sexually and affectionately*) 만족할 만한 원기 회복(*satisfying refreshment*)을 얻을 때에(MacArthur) 우리는 결코 음녀의 품을 그리워하며 음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을 것입니다(20절).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5장 16-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못하며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고(19절) 오히려 음녀를 연모하며 다른 여인의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20절).

부부 카운슬러 M. 게리 뉴먼은 200명의 남자들 (바람을 피우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을 대상으로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지에 대해 조사 연구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고 합니다(인터넷): 48%의 남성들은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감정적/정신적인 사랑을 상대방(아내/애인)으로 부터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가장 큰 이유가 아내들로부터 육체적인 친근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약 8%의 남자들만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신체적/육체적 친근감보다, 그들의 아내로부터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라는 감정적/정신적 친밀감을 원한다고 합니다. 단,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자와는 다르게, 남자들은 이런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77%의 남자들은 주위에 바람을 핀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0%의 남자들은 바람피우는 대상을 직장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같은 직장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직장 내 동료 여인들 또

는 후배 여인들로 부터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자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는 여인한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최악 된 선택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잠 5:7-14). 그 결과란 “존영 상실”(9절), “시간 상실”(9절), “재물 상실”(10절), “건강 상실”(11절), “양심상 고통을 당함”(12-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의 결과를 알고 음녀를 연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동기를 21-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한 3가지입니다(Walvoord):

(1)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5장 21절을 보십시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악인의 모든 행위를 감찰(평탄케 하신다는 말의 개역)하신다는 말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히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고 다른 여인의 사랑을 연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2) 죄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미에 걸리듯 걸려들게 하며(1:17-18)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줄에 매이게 하기에 우리는 음녀를 연모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비록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만들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3) 우리의 도덕적 생활이 규율이 안 잡혀 자기 멋대로 행할 때에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음녀를 연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언 5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은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결코 미련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음녀에게 빼앗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아내 또는 배우자를 복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신의 배우자를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아내를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 신부된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 맘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

여자가 원하는 것 (1)

여자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친밀감”(Closeness)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cleave)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하여”란 단어는 ‘결합하기’라는 히브리어 개념으로, “밀착하거나 붙잡거나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에머슨 에거리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부부가 결합한다는 말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특히 결혼 후 첫 해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가 주님 안에서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을 때 첫 한 해는 부부의 친밀감을 도모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적 요소도 무시 못 합니다. 즉, 부부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든지 또는 부부가 늦게까지 일한다면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친밀감을 도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신명기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혼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갓 결혼한 남자는 군대든 무슨 직무든지 맡지 말고 일 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신혼부부는 결혼 첫 일 년 동안은 부부만의 시간을 될 수 있는 데로 많이 보내면서 부부의 친밀감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첫해가 토대(fundamental)가 되는 해입니다(에거리치).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첫 해를 저희 부부 둘이서만 보내면서 거의 일 주일에 한 번씩 산타모니카(Santa Monica) 해변 근처에서 저희 둘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일 년에 한번 영화를 볼까 말까 했었는데 저 같은 영화광하고 결혼한 후

첫해는 거의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물론 부부가 첫해에 양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질적으로 잘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결혼 후 일 년 동안 아내랑 양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많이 보낸 만큼 저희 부부에게는 질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기에 결혼한 후 첫해 아내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싸매어주시고 계셨기에 저희 부부는 질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 교회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아내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하여 귀담아 적극적으로 듣고자 노력을 하였고 아내 또한 저의 그러한 마음과 자세에 종종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과 마음의 대화(Heart to heart conversation)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볼 때 만일 저희 부부가 아무 상처도 없이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없지 않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남녀가 결혼하기 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될 수 있는 데로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배우자를 위하여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그 당시 아내의 상처로 인하여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결합(connect)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으신 하나님이십니다(롬 8:28).

현대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느 면으로 저희 부부와 같이 결혼 후 첫 해를 보낸다는 것은 사치(luxury)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리 양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은 많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지라도 질적인 시간을 보낼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적은 시간 속에서도 부부가, 특히 남자가 아내와의 친밀감을 추구하는데 헌신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각자 부부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신실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 아내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등한히 하든지 게을리 한다면 그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보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데 더욱더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는 아내를 잘 양육하여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부가 친밀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 대화’를 꾸준히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open heart)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추구하되 서로에게 상처 입을 확률이 있을지라도 부부는 서로에게 마음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물론 진정한 친밀감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므로 남녀 부부 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distance)도 유지해야겠지만 그러한 남녀의 경계선(boundary) 안에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부부가 정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히 남자에게는 여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그러한 대화를 원하고 좋아하지만 남자에게는 그러한 대화가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식사 전이나 후에 앉아서 이러한 대화를 하고자 시도했을 때 남편이 침묵하든지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든지 다른 곳에 주목을 하고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남자는 그러한 대화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친밀한 대화를 시도하려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도 노력해야 할 것은 남자의 그러한 면을 알아가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왜 남자가 그녀처럼 친밀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친밀감을 원하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원하는 결합과 우리의 ‘몰두’(involvement)(에거리치)를 우리는 그녀에게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부부가 친밀감을 추구하기 위해선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필요를 알아가므로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남편의 필요보다는 아내의 필요를 남편이 채워주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한국 서현교회에서 새 가정부를 섬길 때에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부에게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서 서로의 필요를 다섯 가지씩 대화해 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집에 가서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

에게 원하는 저의 다섯 가지 필요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다섯 가지 필요를 서로에게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아내가 저에게 첫째로 원하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변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칭찬함에 있어서 인색하였던 점을 깨닫게 해주는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필요를 알아가면서 그 필요를 채워 주는데 헌신하여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내가 원하는 친밀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내가 원하는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을 다 알고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알아야 할 것은 그의 아내 또한 다 알고 다 잘하는 완전한 남편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친밀감을 알아가면서 그 친밀감을 아내에게 주고자 노력하는 남편의 헌신적 모습 자체가 그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그러한 헌신적 모습을 통하여 그녀는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 (2)

여자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솔직함”(Openness)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랑하는 한 선배 목사님 집에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때 총각이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을 수가 있을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배 목사님 부부가 한 번 크게 다투어서 사모님의 턱 뼈가 주저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선배 목사님의 부부가 다툰 일로 인하여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은 아내와 솔직하게 상의하여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선배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나름대로 사랑하셔서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으려고 혼자 고민 끝에 쓰던 차(used car)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모님께서 좀 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다투었다는 사실이 아니라(저희 부부는 수 없이 다투었으며 앞으로도 또 다툴 것이기에) 여자는 사랑하는 남편이 혼자 마음에 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한 혼자 결정하기보다 그녀와 진솔하게 대화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은 이러한 여자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에거리치).

에거리치 박사는 그의 책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에서 남녀의 다른 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표현적-반응적’(expressive-responsive) 그리고 남자는 ‘구획으로 나뉘었다’(compartmentalized). 이 남녀의 다른 점을 에거리치 박사는 전기 회로의 두 가지 타입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마치 한 회로처럼 3,000개의 전구가 있는데, 만약 하나의 전구가 부서지면 모든 전구가 다 꺼지도록 만들어진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통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달리 남자는 또 다른 회로처럼 3,000개의 전구 중 만약 2,000개가 부서져도 1,000개의 전구가 여전히 작동되도록 만들어진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거리치 박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친밀감에 단계에서, 아내는 첫 번째 회로와 같다. 만약 결혼생활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그녀의 존재 전부에 영향을 끼친다. 그녀의 전구들 모두는 꺼지게 될 것이고, 그녀는 완전히 지쳐 버린다. 이것은 그녀가 통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정신과 몸과 영혼을 결합되어 있고, 그녀의 전체 체계는 상처받은 느낌들에 반응하게 된다. 남편이 그녀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한 가지 작고 불친절한 표시를 한다면, 그녀는 그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참으로 흥미로운 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는 3,000개의 전구 중 2,000가 부서져도 1,000개가 아직 작동되는 것처럼 어떠한 부부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구획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깊은 상처를 입었어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구분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3,000개의 전구 중 하나라도 부서지면 모든 전구가 꺼지는 것처럼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한 문제 때문이라도 그 문제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남자는 이러한 여자의 다른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의 이론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여자의 통합적인 성격과 표현적-반응적 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아내의 그러한 면을 알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남녀의 다른 점을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웃은 이유는 제가 아내에게 남자는 '구획으로 나뉘었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곤 했을 때 아내는 표현적이고 반응적이기에 나름대로 자기의 답답함이나 분노나 미움 등을 표출하였지만 저는 많은 때에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무표정하게 아내를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지만 마음 속 한 구석에 그 상처를 구분해 놓고 작동되는 나머지 1,000개의 전구로 아내를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 제 아내는 그러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희한하게 바라본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내는 3,000개의 전구가 다 꺼져버리는 현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녀의 전체 체계가 상처 받는 느낌들에 반응하고 있었는데 남편인 저는 자기와 너무나 다르게 반응(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있으니)을 하고 있었으니 아내의 입장에선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은 에거리치 박사의 책을 통하여 남녀의 다른 점을 서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한 점들을 저희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보았을 때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하. 저희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우리 부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또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전처럼 이런 저런 부부 관계에 대한 책들을 읽고 나서 아내하고 남녀의 다른 점들을 웃으며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들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에 그 다른 점들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다가감에 있어서 서로가 함께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는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주로 직장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는 점들을 집에 들어와 저에게 나눌 때에 (물론 전에는 일하는 남편이 될 수 있는 대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을 집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처럼 표현하고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의 목회 사역에 관해서는 말을 잘하지 않는 편인데 요즘은 종종 사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 마음의 고민과 걱정 등을 나눌 때 과거와는 달리 아내는 이전 잘

들어줍니다(전에는 아내가 남자처럼 해결을 제시할 때가 있었음 하하). 전에는 제가 혹여나 제 아내가 저의 고민과 걱정, 문제로 인하여 힘들까봐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중 하나는 아내에게 제 마음 문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저는 제 마음 문을 열고 아내에게 제 마음 속에 구분해 놓은 생각들 등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희 부부는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주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대화하며 잠들기 전에는 좀 더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좀 더 지혜롭게 마음과 마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솔하게 대화를 하되 지혜롭게 대화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진솔한 것은 좋지만 서로의 감정과 고민 등 이런 저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나누다 보면 그 진솔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보지 못하면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대화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솔직한 대화는 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도 절제할 말은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인 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아내와의 진솔한 대화에서 남편이 잘 이끌어서 우리의 솔직한 대화가 선(boundary)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대화가 진실 되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화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 (3)

여자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이해심”(Understanding)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이해 받기를 원합니다. 결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주려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편이 끝까지 들어주길 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주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녀의 입장에 서서 들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는 남편이 자

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이해심이 지킬 것 해 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아내가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고민과 걱정, 근심을 진솔하게 나눌 때 아내가 자신에게 해결을 원한다고 듣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러는 이유는 그는 해결 지향적(solution-oriented)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나마 표출하고자 자기에게 말할 때 남자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해결 지향적인 마인드(mind)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이해를 받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도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만 아내에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녀의 입장에서 들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 결과 저는 아내의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주님이신데 저는 아내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감정을 체휼하지 못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체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남자들은 먼저 우리 자신의 이론적인 생각과 해결 지향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내하고의 대화에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노력을 할 때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는 아내가 말을 할 때 이론적으로 또한 해결 지향적으로 생각하려는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백지의 마인드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또 하나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이 우리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이론 단계(logical level)에서 듣기보다 감정 단계(emotional level)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우리 남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감정을 좀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어느 누구의 말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울며 회개할 때 제 자신의 마음도 더욱더 녹아지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좀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내의 이야기를 아내의 입장에서 듣기란 힘듭니다. 물론 여자의 이야기가 항상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말을 함으로 표출하고자 할 때 그 말을 그녀의 입장에서 듣

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므로 명확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며 남편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에거리치).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내의 말을 그녀의 입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아내에게 이해를 바라고 기대하기보다 제 자신이 아내를 이해하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내가 저를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러한 기대를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이해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 (4)

여자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네 번째는 바로 “평화”(Peacemaking)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을 그녀에게도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주로 자기 잘못을 자기 아내 앞에서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문제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미안하오”(I am sorry)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갈등 속에 있을 때 주로 여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Initiate)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부 경우 아내가 부부 관계에서 평화를 위하여 먼저 남편에게 다가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남편의 반응은 주로 아내로부터 또는 문제로부터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아닌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종종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아내로부터 뒤로 물러나 그 문제 해결을 보류하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역사적”(historical)으로 되기 때문임

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서로 다툼 때 아내는 종종 과거 이야기를 다 들춰내면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남자는 그 듣고 싶지 않은 역사 이야기로 인하여 종종 부부 다툼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뒤로 물러납니다. 주로 남자는 여자가 ‘히스테리’(hysteria), 즉 신경질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내의 “역사적”인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가 과거에서부터 마음에 모아 둔 자기에 대한 이런 저런 좋지 않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결코 역사를 재연하는 것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그런다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과거에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역사적이 될 때마다 아내가 자기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솔직하길 원하며, 당신과의 사이에 평화와 이해를 복돋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고 사랑 받는다고 느끼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에거리치).

성경은 남녀 모두에게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길 명하고 있습니다(고후5:18).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마5:9).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먼저 부부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부는 서로(남녀)의 다른 점을 배우며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꺼내놓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서로 감정을 나누고 사과를 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에거리치 박사 말대로 여자들끼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지만 여자는 이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자신의 남편에게도 사용하고 있기에 남편은 그녀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남자는 토론과 감정을 나누며 사과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면 결코 부부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더욱더 역사적인 여자로 만들 뿐입니다.

(2)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아내를 이끌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비록 자기가 잘못을 범하지 안 했을지라도 남자는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과 헌신을 아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사과를 할 것입니다. 만일 남자가 잘못했다면 더욱더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 자신의 잘못을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 자존심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존심이 강한 남자에게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부부의 화평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부의 평화를 지키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3)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징검다리’(stepping stone)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부부는 서로에게 ‘장애물’(stumbling block)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는 바로 분노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정 절제 부족입니다. 부부 갈등에 있어서 서로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생각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아내를 품어야 합니다. 특히 아내의 부족함 점들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아내는 그녀의 마음 문을 열고 남편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부부를 충돌질 하는 것입니다 (행21:27). 사탄은 자꾸만 부부 마음에 거짓말을 하여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을 멀게 하여 미움을 싹트게 합니다. 서로 오해하게도 만들고 또한 괜한 상상력을 하게 만들어 사실보다 추측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탄은 부부의 평화를 깨고 서로의 경계선(boundary)을 넘어서게 만들므로 인하여 그 부부를 갈등의 늪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등조차도 사용하셔서 부부의 관계를 성장케 하시며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갈등을 기도하는 기회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기회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로 등등 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갈등 속에서도 받아 누리게 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들은 여자가 원하는 것이 “평화”인 줄을 알고 부부 관계에서 또한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 (5)

여자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다섯 번째는 바로 “충성”(loyalty)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에게 헌신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만 싶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재확인하길 원하기에 남자에게 “당신은 날 사랑해요?”(Do you love me?)라고 종종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 질문을 받는 남편은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아내가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재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좀 더 안전하게 해주기보다 아내로 하여금 불확신하게 만들므로 결국 아내는 더욱더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헌신하는지 그의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할 때 남자는 그의 아내로 하여금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의 입장에서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는 그의 책 “그 여자가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신의 결혼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함을 알 때, 그녀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기 남편의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확신할 때, 그녀는 활기를 얻게 되고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만드신 방식이며, 결혼 언약이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의 충성을 근거로 하는 까닭이다.”

남편이 자기의 아내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에게 충성하므로 그를

삶아갈 때 아내는 안전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 때에 아내는 활기를 얻게 되며 또한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남편은 먼저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합니다. 그리할 때 그의 아내에게도 충성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충성스러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결코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는 다른 여인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면서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헌신합니다. 그는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며 또한 아내에게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아내와 더불어 가정에도 계속해서 헌신하므로 가정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할 때 아내의 마음은 그녀의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전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녀 또한 자기의 남편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 (6)

과연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할 때에 우리는 그녀가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의 권면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의 말처럼 여자에게 “존경은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211면). 다시 말하면, 여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사랑’을 원한다고 말할 때에는 그녀의 남편에게 ‘존경’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여자는 남편에게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로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 남편들의 기도생활이 나아질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그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엡5:29).

그러나 문제는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한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듯하지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사43:4)은 잘 모르는 듯합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그 “사랑”안에 내포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고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며 그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212면). 그러나 일 지향적인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내에게 심어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 외에도 남편들은 자기가 취미로 갖고 있는 영화보거나 골프 치는 것 등등이 아내보다 더 소중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남편에게 물어보면 일이던 취미든 간에 아내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일과 취미 등을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헌신이 남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웬지 아내들은 마음에 저울(scale)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일이나 취미나 같은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여러 방법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아내에게 “You are the best wife”(당신은 나의 최고 아내야)라고 마음으로 자주 말해줍니다. 그 때 제 아내는 제 사랑의 고백을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는 저를 존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종종 ‘만일 아내가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의 귀중함을 상기시키곤 합니다. 아내가 있기에 제가 있고, 아내가 있기에 제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내에게 아내의 존재의 귀중함에 대해서 말해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일하면서 자녀 양육할 때에 아내로써 또한 엄마로써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아내에게 저의 아내로써 또한 딸, 예리, 예은이의 엄마로써 잘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곤 합니다. 얼마 전 5월5일 어린이날에도 아내가 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 후 예리가 그 편지를 읽을 때에 아내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책감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씩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때 우리 예리는 제 아내에게 “You are the best mom in the whole world”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귀중함을 확인 시킬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하.

실제로 저는 제 아내와 앉아서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란 책에 나와 있는 “아내는 이럴 때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다”라는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지 몇 가지 목록을 나눈다면 … 입니다.

-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격려할 때
- 제가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아내를 격려하거나 칭찬할 때
- 제가 공적인 장소에서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 제가 아내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때
- 제가 ‘남자의 일’이 아닌 가족들과 외출하는 것을 선택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노력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제가 아내와 새로운 것을 잘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잘 시도할 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모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먹은 것만 또 먹고 해 본 것만 또 하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잘 시도하지 못하고 제 아내는 모험심이 있어서인지 새로운 것을 종종 시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부부는 ‘여행 문제’로 종종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할 줄도 잘 모르고 아내는 아주 가끔 가족여행을 하기 원하는데도 제가 아내의 필요를 잘 채워주지 못하므로 아내는 저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아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여행을 오히려 제가 가자고 제안하여 준비해서 가면 좋으려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지길 원하여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일 년에 두 번은 꼭 여행하고 여행 계획은 아내가 세우고 준비는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내는 저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꽤히 승낙하였습니다.

왓지 요즘 암 같은 병으로나 차사고 등 이런 저런 일로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리할 때 저는 아내의 귀중함을 좀 더 피부 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루하루 아내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지 않고 아내와의 하루하루 삶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내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계시기에 저 또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창3:23)인 사랑하는 아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재헌신합니다.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남자의 행동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남자의 행동 (1)

왜 남자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언을 할까? [앨런 피즈 • 바바라 피즈, "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

남자는 해결 지향적입니다. 남자는 옛날에 사냥꾼으로써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면 서부터 남자의 두뇌는 '시각-공간' 영역이라는 목표물을 때리는 두뇌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뇌영역 덕분에 남자는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자신의 결과, 성취,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자신의 성공의 측정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문제해결 능력과 업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규정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다른 남자에게 조언을 요청받으면 좋아하고 명예로까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조언을 해주면 남자는 모욕을 느낍니다: '저 여자가 나를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남자로 보는구나.' 남자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기의 문제를 잘 털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여자는 남자가 왜 자기 문제를 자기와 함께 나누지 않는지 답답해하며 화를 내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자와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벽을 보고 대화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느낌을 남자에게 나눔으로 인하여 그의 공감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해결책을 원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기에 남자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해결책을 자꾸만 제시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자는 답답해하고 미치는 것입니다. 이 남

녀의 다른 점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남편의 책임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할 때에 해결지향적인 본능을 좀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는 자신의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느낌이란 것은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가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해결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다만 남편이 자기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때 남편은 아내에게 입을 열어 해결을 제시하는 말을 하기보다 우선은 아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표현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내를 포옹하는 것). 그런 후 아내에게 조언이 필요한 것 같을 때 남편은 그녀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남자의 이끌림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조언을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남자의 행동 (2)

"왜 남자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획획 돌릴까?" [앨런 피즈 • 바바라 피즈, "거짓말을 하는 남자 & 눈물을 흘리는 여자"]

여자에게 있어서 리모컨이란 텔레비전 채널을 이 채널에서 저 채널로 바꾸는 장치라고 말한다면 남자에게 있어서 리모컨이란 2.5분마다 55개의 채널을 스캐닝 하는 도구입니다. 하하. 그만큼 남자들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그저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텔레

비전을 시청하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이 텔레비전 채널을 확확 바꾸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손에 리모컨을 쥐어준 채 물어줘야지”(피즈). 왜 남자들은 이렇게 텔레비전 채널을 확확 바꾸는 것입니까?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에 의하면 남자들은 두 가지의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텔레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첫째, 남자는 해결 지향적이고 문제 지향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본론을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채널을 확확 돌려서 분석함으로써 필요한 해결책을 재빨리 찾아내려 한다”와 “둘째, 남자는 남의 문제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린다. 이 때문에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여섯 배나 많이 저녁 뉴스를 시청한다”(피즈).

여자들은 남자들이 텔레비전 채널을 확확 바꾸면서 광고를 보지 않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텔레비전 쇼, 특히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긴장을 풀기에 광고를 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의 두뇌는 배우들의 대사와 몸짓 언어를 잘 읽어내며 또한 인간관계의 결과를 예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른 채널에서 무엇이 방영되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에거리치). 정보를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텔레비전을 볼 때에 여자들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를 원하지만 남자들은 텔레비전을 볼 때에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건성으로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결코 여자를 무시해서 건성으로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건성으로 대하는 남자에게 되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자는 시무룩해 지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화까지 냅니다. 특히 남편이 아무 대꾸 없이 그저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말을 거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시간을 홀로 갖고 싶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홀로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을 한 손에 들고 이 채널 저 채널을 수시로 확확 돌리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채널을 확확 돌리니까 머리가 어지러우며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말해보았자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모컨 하나 때문에 부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여 여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텔레비전을 두 대를 집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볼 때 아내 또한 다른 텔레비전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웬지 이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앨런 피즈 • 바바라 피즈의 제안 중 하나는 아내로 하여금 자기만의 텔레비전을 한 대 더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리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리모컨을 감추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는데 그 또한 오히려 남편의 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을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제 개인적 제안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해야 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자기도 볼만한 프로그램 하나를 정하여 남편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볼 때에 남편이 리모컨을 들고 순간순간 광고 시간에 남편이 텔레비전 채널을 확확 바꿀 때에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아내는 그저 남편이 다른 채널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남편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앨런 피즈 • 바바라 피즈의 말처럼 텔레비전을 보면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확확 돌립니다. 오죽 했으면 이젠 저희 집 막내 예은이도 한번은 저에게 ‘왜 채널을 바꾸만 바꿔요?’라고 말하더군요. ㅎㅎ 그러한 가운데서 가끔 아내가 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에 왜 광고를 보지 않고 채널을 확확 돌리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끔 그냥 아이들과 또 다른 텔레비전을 켜서 함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월요일 오후 9시가 되면 아이 셋을 다 각자의 방으로 보낸 후 아내와 함께 저희 부부가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24시” (24 Hours)라는 드라마인데 아내 또한 이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ㅋㅋ 그래서 함께 앉아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광고가 나올 때 저는 채널 13번에서 하는 IBF 격투기를 종종 봅니다. 그 때는 아내도 제게 왜 채널을 바꾸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이 좋아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잠시 “24시” 광고 시간에 보는 것을 아내는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함께 보면서 아내 또한 제가 광고 시간에 채널을 확확 돌리는 것을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내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 준비를 해야 하고 아이들 숙제도 점검해야 하고 등등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남편인 제가 텔레비전 앞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고 있던 텔레비전도 과감히 끄고 (ㅋㅋ) 부엌에 들어가 아내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언젠가 신학교 선배 목사님께서 집 거실 구조를 보면 가구들이 (주로 소파나 소파 앞에 놓인 탁상)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놓여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부부가 서로 다룰 수 있는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계속 이 채널 저 채널로 수없이 돌릴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는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리모컨 하나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양보하여 함께 온 가족 식구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부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선택하여 즐기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남편이 리모컨을 들고 함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라고 채널을 확확 돌린다면 아내를 그렇게 하는 남편을 보고 짜증내며 잔소리하기보다 남편의 정보 수집 욕구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처럼 잠잠히 있든지 아니면 짬을 내서 그 때 볼 일을 잠깐 보든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리모컨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란 방법을 쓰는 것은 그 때 그 순간을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을 추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고기를 구울 때 좀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고(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아내가 저녁 식사 준비할 때 TV를 끄고 부엌으로 가서 도와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아니면 묵묵히 저녁 식사를 분주하게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미안해서라도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에게로 가서 도와주곤 합니다. 물론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저녁 식사 때는 TV를 끄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준비하고 함께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 노력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3)

당신이 여자이고 지금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 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하여 남편이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웬지 당신이 보기에는 당신의 남편이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여보, 괜찮아?’, ‘지금 우리 맞게 가는 거지?’라고 물어봅니다. 그 때 당신의 남편은 ‘응. 괜찮아...’ 그런데 당신은 남편은 지금 길을 맞게 가는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씩 넘어갑니다. 그래도 당신은 설마 하면서 내 남편이 알아서 목적지로 가겠지 하고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한 5-10분 지났는데도 남편은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당신은 ‘여보, 길을 잃었어? 그러면 저기 앞에 주유소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잠깐 들려서 물어보고 가

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그 때 당신의 남편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ㅎㅎ

남자는 길을 잃어버려도 주유소 같은데 들러서 길을 물어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 안되면 주유소에 가서 가솔린(gasoline)을 넣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ㅎㅎ 왜 그럴까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지금에서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태 우리가 지나친 주유소가 몇 개나 되는데 … 여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자를 미치게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것은 남자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시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인 방향 감각이 형편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부인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피즈).

그런데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입니다. 저는 지도를 잘 보지 못합니다. 저는 방향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지도도 잘 보고 방향감각이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운전하고 어딜 가다가 길을 잘 찾지 못하면 저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ㅎㅎ 저는 먼저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도 모르면 그 때서야 근처 주유소나 가게에 들러 방향을 물어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운전은 항상 아빠가 하는데 가다가 아빠가 종종 엄마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남자가 걸음(운전)을 멈추고 방향을 물어보지 않는지 좀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명히 길을 알고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아내가 가끔 이 길로 가면 더 빠르지 않냐 는 식으로 조언(제안?)을 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가 지도를 더 잘보고 길을 더 잘 찾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편인 제가 그래도 길을 분명히 알고 가고 있는데 아내가 길에 대해 말 한마디만 해도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아내가 저를 믿어주고 따라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록 남편이 길을 잃어 좀 헤매고 있을지라도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아내가 저에게 신뢰의 신호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남편이 길치라서 당신이 너무 답답하면 당신은 남편의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내비게이션을 사 주면 어떨겠습니까? ㅎㅎ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4)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서 우리의 고문(adviser)으로 수고하시던 결혼한 전도사님이 나중에 결혼하면 변기 시트 때문에도 부부가 싸울 수 있다는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설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설마 결혼하면 그런 것 가지고 부부가 다투겠는가’ 생각했었습니다. 역시 결혼은 해 봐야 하는가 봅니다. ㅎㅎㅎ

부부 갈등을 보면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은 치약 때문에 사모님하고 다투셨다고 하는데 아마 목사님은 치약을 밑에서 부터 꼭 꼭 짜서 사용하셨던 반면에 사모님은 치약을 여기 저기 편하신 대로 눌러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치약을 두 개 사서 부부가 따로 사용하셨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ㅎㅎㅎ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특히 당신이 결혼 전이거나 신혼 초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부 갈등은 참 사소한 일로 시작되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소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변기 시트입니다. 엘러 & 바바라 피즈는 남자가 변기 시트를 올려놓는 것이 여자를 미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남편이 변기를 사용한 후 변기 시트를 당신을 배려해서 내려놓지 않아서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지 않고 불일을 보다가 차가움을 느낄 때 당신의 기분을 어떡할 것 같습니까? 편히 잠을 자고 있는 당신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분명히 변기시트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그가 말을 듣지 않고 변기 시트를 계속 올려놓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치원 화장실처럼 한 화장실에 변기를 두개 만들어 놓겠습니까? ㅎㅎㅎ

요즘 화장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화장실이 남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어느 식당들을 가보면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요즘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남녀 공용 화장실에는 남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벽에 설치한 입식 소변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화장실은 좌식 변기만 설치해 놓

는 곳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엘런, 바바라 피즈는 비용절감과 공간 극대화를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피즈). 이런 추세라면 땅이 좁고 재정적으로 힘든 나라들은 점점 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남녀들은 변기 시트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남자들도 점점 더 앉아서 볼일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변기 시트를 올리지 않은 채 남자들이 소변을 보다가 조준을 잘 못하여 변기를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자들은 화가 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배려해서 변기 시트는 내려놓았지만 문제는 남편이 볼일 보다가 조준을 잘못해서 변기 시트에 소변을 흘려 놓고 닦지 않은 것을 모르고 당신이 새벽에 잠 깨어 변기 시트에 앉아 볼일을 보려다가 엉덩이가 축축해지면 당신의 기분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ㅎㅎ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솔직히 변기 시트로 인하여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이 변기 시트를 올리지 않고 종종 소변을 보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자다가 일어난 딜런이 변기 시트를 올리지 않고 소변을 보고 또한 물을 내리지(flush)도 않고 자기 방으로 가서 누워 자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ㅎㅎㅎ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5)

남자와 여자가 함께 쇼핑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쇼핑 지력(shopping mentality)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쇼핑을 할 때 여기 저기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보면서(살 것도 아니면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이러한 여자의 행동이 그녀의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는 ‘크리스마스 쇼핑할 때 남자의 스트레스 강도는 폭도를 진압해야 하는 경찰관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피즈). 왜 남자는 그의 아내와 쇼핑을 하는데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남자가 여자와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남자는 “터널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익숙합니다(피즈).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할 때 여러 가게들을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면서 쇼핑하는 것이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넓은 각도의 시야를 가진 여자들은 혼잡한 쇼핑센터를 요리조리 훑고 지나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남자들은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기에 자꾸만 각도를 바꾸어 지그재그 형식으로 움직이면 의식적으로 더 많은 결단을 내려야 하기에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피즈). 이것을 알고 여자는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함께 쇼핑을 무사히 마치길 원한다면 될 수 있는 한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지 말고 직선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에게 남편하고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을 함께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각형 형태로 움직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지점까지 쪽 걸다가 B지점에서 C라는 지점까지, 그리고 C 지점에서 D라는 지점까지 걸으면서 쇼핑하게 되면 적어도 지그재그 형태로 걷는 것보다 각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데 뒤돌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뒤돌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이미 교회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저에게 전화해서 다시 교회에 가서 자기가 잊어버리고 온 물건을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위해서는 이미 지나온 가게를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돌아갈 때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쇼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남자가 보기에 그의 아내는 쇼핑을 하면서 뚜렷한 목적, 목표, 시간제한 없이 그저 비효율적으로 쇼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성향은 쇼핑을 가기 전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 무엇을 살 것인지 분명한 목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 무엇을 살 것인지를 이미 생각하고 쇼핑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쇼핑센터를 혼자 가면 자기가 미리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사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무엇 무엇을 살 것인지 적어서 쇼핑을 나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쇼핑센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녀의 넓은 시야로 사려고 했던 목표물 외에 많은 것들이 보이기에 눈-쇼핑(eye-shopping)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남편으로 하여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그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녀가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 물건, 저 물건 들었다 놔다 하는지 남편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결과지향적인 남편일수록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아무 물건도 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결국에는 빈손으로 집으로 가게 되면 남편

이 보기에는 이것은 비효율적이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은 남자는 옛날에 사냥을 나갈 때 목표물을 정하고 활과 창을 가지고 나가 그 목표물을 잡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집 뜰에서 이것저것을 심으면서 하는 습관이 있어서 쇼핑센터에 가서도 이 가게 저 가게 가서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ㅎㅎ 이 해석에 근거해서 볼 때 여자가 쇼핑센터에 가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좀 이해가 됩니다. 남자는 사야 할 물건을 분명히 정하고 쇼핑을 하지만 여자는 살 수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물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남녀의 다른 점을 생각할 때 함께 쇼핑을 즐기기 위해선, 아니면 적어도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쇼핑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점을 좀 이해하여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쇼핑을 왜 싫어하는지를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관점에서 생각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쇼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남자 또한 그의 아내와 함께 쇼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끔 지그재그로 쇼핑도 해보아야 합니다. 아주 조금씩 말입니다. ㅎㅎ 그래서 각도를 바꾸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꼭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만지작거리면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보고도 그는 아내를 믿고 그냥 좀 내버려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외에 많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노력한다면 함께 쇼핑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혼자 Target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어린이 날 세 자녀들에게 선물한 물건을 사러 혼자 간 것입니다(아내는 일하고 있었음). 약 \$10 정도의 선물을 사러 가기 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무슨 선물을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딜런과 예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 반면에 막내 예은이는 Barbie 인형을 원한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Target에 가서 아이들 선물을 사면서 1, 2층 아이들 물건들이 있을 만한 데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그재그 형태로도 많이 걸었습니다. 전 같으면 이미 지나갔던 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 그 날은 지나갔던 데를 또 가서 물건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때 저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딜런은 puzzle에 관한 선물을 샀고, 예리는 Tom & Jerry DVD 두 개를 각각 \$5씩 주고 샀으며 막내 예은이는 고르다 고르다 못해 결국 다시 Barbie 인형 section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인형 set를 샀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끔 혼자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혼자 쇼핑을 하면 효율적으로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쇼핑가서 아내의 옷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은 제가 아내 선물을 사러

Target에 갔다가 걸려 있는 옷 하나가 눈에 들어와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 옷을 마음에 들어 하는 줄 알고 사 왔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 옷이 옷장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야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아내 선물로 옷은 한 번도 사지 않았습니다. ㅎㅎ

만일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의 남편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포기하고 혼자 쇼핑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성향을 알아 가다보면 쇼핑도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쇼핑 센터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남편이 사고 싶은 것을 파악하여 함께 사러 가자고 말한 후 함께 가서 남편이 사고 싶은 것과 더불어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목록을 한 두, 서너 개도 함께 쥘보면 어떨까요? 목표물이 분명하면 남편은 잘 사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도 당신이 살 것을 사면서 천천히 남편을 쇼핑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너무 오래 쇼핑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앨런 & 바바라 피즈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쇼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남편과의 쇼핑은 30분이니 1시간 이상 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산 물건들을 보고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당신이 볼 때 너무 비싸고 쓸모없어 보인다고 해서 남편이 산 물건에 대해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나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면 당신의 남편은 자존심 상해 당신과 함께 다시는 쇼핑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쇼핑 지력에 맞춰서 쇼핑을 하면서 천천히 당신의 쇼핑 지력에 수준에 맞춰 가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당신의 쇼핑 지력에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남편이 당신과 함께 동대문 시장을 새벽 3시까지 함께 쇼핑할 날이 올지도 ... ㅎㅎ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6)

“여자들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의 버릇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코 후비기, 트림하기, 몸에서 냄새피우기, 오래된 내의 입고 다니기, 사타구니 긁기 등입니다. 하지만

가장 혐오스러운 버릇은 방귀뀌기입니다”(피즈). 여자들 치고 자라나면서 방귀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방귀 소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방귀뀌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들 중에 지금도 당신의 남편의 방귀뀌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방귀 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자가 생각하는 혐오스러운 습관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귀 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아빠가 **fart machine**(방귀 끼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저는 종종 식사하다가도 트림을 합니다. 콜라를 마셔서 그런지 트림을 잘 참지 못하고 식사 도중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종종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으 ~” 그러다가 이젠 포기했는지 제가 트림을 해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아빠니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 집 막내 예은이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ㅎㅎ 코 후비기… 당신의 기분이 좀 거시기 하겠지만 언젠가 한번 한국어 예배 설교 시간 때 저는 제 새끼손가락 손톱이 왜 긴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물론 귀지도 팔수 있지만 코 후비기 위해서 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앉아 계시던 여집사님들 중에 좀 기분 상하신 분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말을 잘 갈아 신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양말이나 옷을 하루나 이틀 입고 빨래 통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옷을 더 입을 수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옷과 양말을 빨래 통에 넣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빠인 제가 이상한 것이죠. ㅎㅎ 우리 교인들도 이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양말을 며칠을 신는다는 사실ைய요… ㅎㅎ 물론 저는 공적인 자리에게 방귀를 소리 내서는 끼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깎니다.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방귀 제일 오래 낀 기록은 정확히 시간을 재지는 않았지만 거의 40초에서 1분을 낀 것 같습니다. ㅎㅎㅎ [1956년 런던에 거주했던 버나드 클레멘스라는 남자는 2분 42초 동안 연속하여 방귀를 낀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피즈, 165)]. 저는 애리조나 투선(Tucson) 공항에서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ㅎㅎ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방귀를 낄 수 있다는 사실ைய요 … ㅎㅎ 저는 대학교 3학년까지 여자가 방귀를 끼는 줄 몰랐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함께 섬겼던 한 후배 자매가 여자들도 방귀를 낀다고 말해주어서 알았습니다. ㅎㅎ 제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 자녀들에게 그만큼 아빠인 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제 앞에서 방귀를 끼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소리를 얼마 전 들었습니다. 피즈 말로는 남자는 96.3 퍼센트가 방귀를 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여자는 2.1 퍼센트만이 인정한다고 합니다(피즈). 그만큼 여자들에게 있어 방귀를 낀다는 사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이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람

들 앞에서 방귀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방귀뀌는 것을 스스로 금기사항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방귀뀌는 것을 그저 남성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가끔 참지 못하고 방귀를 뀌니다. 그러면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는 첫째 딸은 욕(yuck) 하면서 싫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방귀를 뀌면 종종 ‘당신 소화가 되는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귀뀌는 남편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제 아내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 방귀는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ㅎㅎㅎ 더 웃긴 것은 막내딸이 자기 언니에게 아빠는 지도자니까 방귀도 뀌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의 행동 (7)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학교 때 후배에게 배운 농담 하나를 계속 써먹었습니다. ‘당신은 짧은 농담(short joke)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긴 농담(long joke)을 듣고 싶으십니까?’라고 물은 후 상대방이 ‘짧은 농담’이라고 말하면 나는 “쪽”(jok)라고 대답하고 만일 상대방이 ‘긴 농담’이라고 말하면 나는 “조~~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참 유치한 농담입니다. 제가 농담을 할 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주위엔(특히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농담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듣지 못하지만 전에 이들이 농담할 때 보면 다들 킁킁거리며 웃곤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특히 여기 미국 사람들은(주로 남자들) 농담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머(humor)를 잘해야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은가 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유머로 쓰~음 넘어가든지 또는 분위기를 좀 밝게 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는 이러한 유머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은 모르지만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성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므로 그녀들을 힘들게 하며 모욕감까지 느끼게 하는 농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농담들 중 앨런 피즈 • 바바라 피즈에 의하면 “남성 성기와

관련된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여성의 유머는 주로 사람, 인간관계, 남성을 대상으로 함)(피즈). 이것을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상대의 뜻에 반한 성적언동을 행하여 직장 내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것을 되풀이함으로써 취업 환경 등을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야후 인터넷 사전). 왜 남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그들은 이러한 성적 농담을 즐기는 것일까요?

앨런 피즈 • 바바라 피즈에 의하면 농담은 남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정서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자와 달리(여자는 재앙이나 비극을 당하면 남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함)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자신의 나약함의 표시로 간주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자) 농담을 함으로써 자신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발언을 합니다(피즈). 이러한 남자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여자들은 왜 남자들이 자꾸만 농담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처럼 남들도 힘들 때 마음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라면 그녀의 남편이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에서도 농담으로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을 읽고 함께 웃어줄 수 것입니다(물론 미련한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속으로든 겉으로든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웃음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앨런 피즈 • 바바라 피즈에 의하면 “웃음과 눈물은 두뇌를 자극하여 혈액 속에 엔도르핀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이 엔도르핀은 “모르핀과 헤로인 비슷한 성분을 가진 화학 물질”로서 “신체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피즈).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종종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 나올 정도로 크게 웃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눈물은 엔케팔린의 분비를 동반하는데, 이것은 신체의 아픔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피즈).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셋째 삼촌이시고 김창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찾아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엔도르핀”(왔네)라고 말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대장암이 다 퍼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후 그 다음 날 찾아가 뵈었을 때도 목사님과 웃으면서 농담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대화 속에서는 진지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은 입관식, 장례식, 하관식 예배에 대해서 저에게 다 말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분은 저에게 입관 예배 인도를 부탁하시면서 설교 본문과 더불어 입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하고 유머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은 유머를 하므로 상대방에게

웃음을 선사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목사님은 신년 초하루 온 가족,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농담할 것을 준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분은 우리 가족 식구들의 “엔도르핀”이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농담할 줄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님과 마지막 떠나시는 그 때까지도 가볍게 농담하며 웃으면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농담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며 모욕감을 주는 농담들은 피해야 하며 또한 중단해야 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은혜스럽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애쓰는 가운데 농담도 유익한 농담을 하므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엔도르핀을 분비케 하는 농담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아내보다 남편이 그러한 농담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은 농담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유머 센스를 길러야 합니다. 물론 저 같이 농담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이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한다면 충분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엔도르핀을 돌게 하는 유머를 배우고 싶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크게) 웃게 하므로 말미암아 엔도르핀을 분비케 하므로 고통 중에서도 아픔을 완화시키는 유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유머의 감각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롬12:15). 함께 아내와 크게 웃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 원합니다.

가정 이야기: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점심.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며 더 사랑하고 싶은 아내, 오늘 그녀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12시 30분에 점심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내가 front desk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장 동료들은 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지 다른 방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고 하여 아내의 office에 들어가서 좀 기다렸습니다. 12시 30분이 되니까 한 사람씩 아내의 직장 동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중 한 사람과 인사했으면 하길래 그 사람의 office에 들어가서 인사를 했더니 제가 언젠가 직장에 꽃다발을 들고 와서 아내에게 선물한 것을 말하더군요. 하하. 그래서 제가 말 안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내가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온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내 아내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농담하였습니다. 하하

아내의 직장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cafeteria에 갔습니다. 여러 식당이 함께 모여 있는 그 cafeteria에서 저는 아내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Quinn Sub 이 어떠냐고 저에게 물으면서 다른 식당도 있으니 제가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더군요. ㅎㅎ 그래서 저는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이 Quinn Sub 이구나 생각하고 처음으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Subway하고 비슷하더군요. 음식을 시켜서 함께 식사하기 전에 저는 아내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식사기도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전히 제 대화의 시작은 교회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아내의 점심시간은 30분이었기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식사 후 아내는 그 식당 근처 다른 건물에 들렀다가 다시 직장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식당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refill해준 Pepsi 컵을 들고 좀 약간 멀리 세운 차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아내의 직장 건물 앞길로 운전하고 가다가 혹시나 아내를 길가에서 만날까 하다가 어느 한 골목 corner에 있는 아내의 직장관 건물을 보았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구나 생각하고 그 건물을 지

나쳐 교회로 향하려고 한 block 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아내가 반대편에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 쪽으로 신호등 길에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차를 좀 급히 몰아 빨간 신호등 앞으로 가면서 “뽕 뽕”하고 자동차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많이 놀랐나 봅니다. ㅎㅎ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ㅋㅋ 저는 차 문을 unlock하고 아내를 태우고 우회전하여 아내가 또 다른 건물에 가야 한다고 하여 그 근처에 데려다 주면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당신을 한 번 더 보고 갔으면 했는데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아내에게 뽕뽕을 하였습니다. 차 안에 타서 얼마 안돼서 한번, 그리고 아내가 차에서 내릴 때 한번… ㅎㅎ 그리고 차가 어차피 빨간 신호등에 걸려 있었기에 저는 아내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내 직장 건물을 돌아서 이렇게 교회 목양실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목양실에서 일하는 도중에 아내의 직장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 점심을 함께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귀하게(precious) 여기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정작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 때 아내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 그러면서 제 마음엔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셔서 그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인데 실제로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기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데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사모님을 노예로 부렸다는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을지라도 언행으로는 아내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지는 않았나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지금 제 자신이 교회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신데 …

비록 오늘 이렇게 아내와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내,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데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한 영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다가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가정 이야기: Target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여자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저녁.

타깃(Target)은 세계적인 소매점인 월마트(Wal-Mart)와 다른 품질과 보다 나은 서비스로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체인입니다. 한국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있다면 미국에는 타깃이란 마트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내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제가 있는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한 번도 못 본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못 보던 옷인데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약간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이 옷 Target에서 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게 ‘당신은Target에서 산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라고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 나는 아내에게 ‘당신 핸드폰 어딴어?’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핸드폰으로Target 옷을 입은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찍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찍어서 내 Facebook에 올리고 싶다.’ ㅎㅎ 물론 저는 아내가 허락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매우 private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좀 속스러웠나 봅니다. ㅎㅎ 남편의 칭찬을 듣고 속스러워하는 여자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ㅋㅋ

말 나온 김에 제 아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소개받은 후 짧게나마 연애했 때 있었던 해프닝(?)이 있습니다.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Los Angeles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San Francisco 근방에 살고 있었을 때(차로 한 5-6시간 거리임) 저는 아내에게 예쁜 red dress를 입고 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내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 case를 맡아서 법정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매우 바쁘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시간을 내어서 red 옷을 입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한번 아내를 만나려고 운전하고 San Francisco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만났는데 그 때 아내는 터틀넥(turtle neck)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때 그 옷을 입은 아내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터틀넥 옷 목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ㅋㅋㅋ 아니 만난 지 얼마 안돼서 처음으로(제 기억엔)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사는 도시에 장거리 운전하고 갔는데 그래도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왔을 텐데 어떻게 아내가 구멍 난 옷을 입고 나왔을까 저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ㅎㅎ 제가 웃었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변호사’라는 이미지와 구멍 난 옷을 입고 나타난 ‘오 변호사’(제 아내의 한국 성이 “오”씨임)를 볼 때 잘 match가 안되어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ㅎㅎ 그런데 저는 그 때 그 아내의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웬지 저는 ‘검소한 변호사’인 것 같아 그 모습이 더 좋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옷”하면 생각나는 아내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이야기입니다(아내도 알고 있음). 그 안 좋았던 이야기는 제가 아내의 생일 선물로 한번 Target에 가서 아내 옷을 사서 아내에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옷도 별로 사 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더욱더 옷을 사 본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모님이 이젠 제 속옷까지 사주시기 때문입니다. ㅋㅋ 그런데 제가 Target에 가서 아내 생일 선물로 옷을 사려고 했다는 것은 ... ㅎㅎ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옷 저 옷을 둘러보면서 이 옷이 아내에게 어울리겠다 생각하고 하나를 골라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뵘싸 하루는 아내가 직장에 가서 집에 없을 때 제가 벽장(closet) 문을 열어 보았는데 제가 아내에게 선물한 옷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선물한 옷인데 어떻게 그 옷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별의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ㅋㅋ 그리고 저는 참다못하여 그 날 저녁에 직장에서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좀 따(?)졌습니다(지금 생각하면 그냥 옷을 걸어놓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 그랬더니 아내는 저에게 미안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아내에게 옷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ㅋㅋ 그 이유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라 아니라 제가 아내의 선물로 옷을 사려고 시도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ㅎㅎ) 일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ㅋㅋㅋㅋ

참고로 그 때 제가 아내에게 사 준 옷이 Target 옷이었는데 이렇게 아내가 자기가 직접 Target에서 산 옷을 입고 목양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ㅋㅋ 아마 아내는 그 옷을 직장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 처음으로 입고 간 것 같습니다(아마 한 70여명 판사, 변호사, 검사, 인턴들 등 앞에서 도서관 대표로서 한 10-15분 speech를 했어야 했던 것 같음). 그래서 저는 그 Target 옷이 아내에게 너무나 잘 어울려서 솔직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래도 아내는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ㅋㅋ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글을 제 페이스 북에 올렸습니다: “Target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여자,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1)

지금 여러분 부부 관계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한국 최고 부부갈등 전문가라는 김병후 박사가 “10년 만에 정리한 부부 클리닉”이란 글에서 “이혼 위기를 체크하는 12가지 질문”들이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인터넷):

- (1) 결혼생활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 (2)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
- (3) 말하거나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 (4) 이해받거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
- (5) 나의 성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괴롭다,
- (6) 자기식대로만 끌고 가는 것을 참기 어렵다,
- (7) 우리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마음속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 (8) 배우자는 자기 문제를 모르거나, 안다 해도 고치지 않거나 결국은 고칠 수 없을 것이다,
- (9) 나처럼 억울한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 (10)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산다,
- (11) 성관계를 할 때 존경받거나 사랑받는 느낌이 없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가치에 비해 나와 관련된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은 이 12가지 질문들이 여러분 부부 관계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부부사이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책 “새 가정 행전”에서 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결혼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보다 더 높은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결혼의 신적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부부가 성경적인 서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3) 부부의 대화가 원만해야 합니다.
- (4) 돈에 대한 올바른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 (5)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부부 사이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5가지 요소들을 중 두 번째 요소인 부부의 성경적 책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임들 중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아내의 두 가지 책임 중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아내의 성경적 책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상반절과 5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엡5:22),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골3:18),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벧전3:1a, 5). 요즘 많은 여인들은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 바가지 긁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한 예화가 있어 나눕니다: "대낮에 탈옥했다가 그날 밤에 자수하고 돌아온 탈옥수에게 텔레비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돌아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탈옥수는 말하기를 "아내를 보려고 방문을 살그머니 여는 순간 아내는 다짜고짜로 '당신이 탈옥한 것은 여덟 시간 전인데 도대체 그 동안 어디 있었어요?'하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간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 싶어 다시 왔죠"라고 했습니다"(인터넷). 물론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바가지를 긁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을 때 자신의 말 실제 속뜻은 잘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뜻대로 하세요"(속 뜻: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는 알겠지"), "맘대로 해!!"(속 뜻: "각오하고 살아라"), "우리 말 좀 해"(속 뜻: "나 불만이 있어"),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속 뜻: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나 화 안났어"(속 뜻: "보면 모르냐. 나 화난 거."), "부엌이 너무 불편해"(속 뜻: "새 집이 필요해"), "자기 나 사랑해?"(속 뜻: "나 아주 비싼 게 갖고 싶어") (인터넷). 그러나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바가지 긁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글라스 윌슨은 그의 책 “결혼을 개혁하라”에서 이렇게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아무 남자들에게나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여인은 자기의 순종 대상의 선을 거 놓습니다'(윌슨). 맞습니다. 한 여인이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인 이브를 만드셨을 때에 한 특별한 남자인 아담에게 순종하므로 그 남자의 필요를 채우며 돕도록 하신 것이지 아무 남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 혹은 지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 혹은 지위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남편의 위치(지위)를 명백하게 하므로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위치 혹은 지위를 알고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므로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란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 “새 가정 행전”을 보면 한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다섯 가지 중 그 첫 번째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남편의 위치인 가정의 가장이요 지도자임을 인정하므로 그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필요인 자아 존중감을 세워줍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함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is fitting)."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4:33).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에는 어지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있는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각자가 자기의 성경적인 책임을 신실하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가정에서 아내의 책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세우

신 가정 제도에 아내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적합한 것(it is fitting)입니다.

(3) 세 번째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많은 믿는 아내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생활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교회 안에서는 본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서는 본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아내는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특히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그녀는 주님께 하듯 불신자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불신 남편이 그 아내의 신덕을 보고서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게 되어 회심할 수 있다. 그것은 실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다. 우리의 복음 증거가 우리의 선한 생활과 병행하지 않으면 무력하다." 지혜로운 아내는 복음 증거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녀는 불신자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하여 그녀의 불신자 남편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아내가 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한 2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하반절과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주께 하듯하라"(22절하),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24절상).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하듯 해야 할까요? 그 이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23절). 우리가 "남편"이란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바알" 또는 "주인"이란 뜻이요 헬라어로는 "주"(lord) 또는 "위에 남자"(man above)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남편'은 이러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남편은 가정에서 잘 돌보며 또한 부드러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란 말은 베드로전서 2장18절에 나와 있는 “종이 상전에게 순종함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입니다(벧전 3:6, 창 18:12).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주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녀는 그의 말을 청취하고 잘 들어줍니다. 본래 “복종”(submission)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결합입니다. “~아래서”(under) 라는 뜻의 전치사와 “잘 듣는다”(to listen to well)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보다 남편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의미요, 남편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동원).

(2)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빌2:3) “자기를 비”우시고(빌2:7)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빌2:8)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경외하므로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무엇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좋은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로써 좋은 남편을 만족시키고 나쁜 아내는 남편을 침묵시킵니다. 결코 완전한 아내는 완전한 남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합니다(인터넷). 남편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2)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가정의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가정입니다(참고: 왕하18:3-7).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입니다(참고: 창 39,45장).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을 세우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성경적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책임들 중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아내의 성경적 책임 두 가지 중 하나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아내의 두 번째 책임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아내의 성경적 책임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and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성신여대 심리학 교수가 20년간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리한 주요 내용 중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남편은 "아내가 존중해 주고 자존심을 북돋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과 비교하는 단골 메뉴는 월급봉투, 선물, 휴가, 처가에 잘하는 것, 집안 일 도와주는 것 등인데 비교해서 남편의 행동을 수정하려 시도하지 말고, 남편의 현 행동에 초점을 두어 잘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원하는 행동을 요청해야 한다고 채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언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드는 것일까요? "남자도 이런 때 울고 싶다: 남편 기 짝 죽이는 아내의 말 36가지" 중 몇 가지를 나눕니다(인터넷):

(1) "어딜 쏘다니다 이제 와?"

“남자들이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만에 동창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친구들과 한 잔 할 수도 있고 상사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아내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가 하숙집이야? 나가! 나가라고.’ 큰소리를 내며 길길이 뛰는 아내가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2)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신세 망친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듣다보면 거짓말도 정말처럼 느끼게 된다. 아내는 나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푸념을 한다. 처녀시절 자기를 따라다녔던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호강하고 살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너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신세 망친다.’ 나에게서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지만 한창 예민한 아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때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다.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를 동정하면서 나를 무능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다.”

(3) “우리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내는 누가 오면 친정 자랑에 침이 마른다. ‘우리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거리에 나앉았을 거야.’ 하지만 아내는 친정에 가서 반찬거리를 얻어올 뿐이다. 반찬 없다고 흥리스가 된다는 학설은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다.”

(4) “그래, 너 잘났다 잘 났어 정말.”

“아내가 잘못하면 잘해보자는 뜻에서 충고를 하는데 고맙게 받아들이지는커녕 적개심을 가지고 노려본다. ‘왜 사람 신경을 돋우는 거야. 많이 배웠다고 유세하는 거야? 그래 잘 났어 정말.’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은 언제나 옳고 남편의 말은 말로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5)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아내는 내가 어쩌다 아침식사라도 독촉하면 “당신 밥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라며 타박을 한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그 비참한 심경을 잘 모를 것이다.”

(6) “어휴, 유유상종이지.”

“남편이 미우면 그 친구들도 미워하는 아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된다는데 당신 친구 중에 쓸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

(7) “취미가 밥 먹여 줘?”

“주말에 어쩌다 한 번 친구들과 등산이나 낚시를 간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낚시 장비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번엔 등산 장비를 없애버리더니 이번에는 낚시 장비까지 버린 모양이다. 한참을 찾는 나를 보며 아내는 한심한 듯 이렇게 말한다. ‘취미가 밥 먹여줘?’”

(8) 사람들 앞에서 남편 홍보는 아내.

“단둘이 있을 때 아내는 멀쩡하다. 그러나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이 사람요? 이 사람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요. 회사에 붙어 있는 게 기적이지.’”

(9) 친정집에 고자질하는 아내.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싸운다. 처가 집은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싸우고 나면 친정으로 쫓르르 달려가 일방적으로 고자질한다. 그러면 곧바로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앤데 만날 싸움질인가?’ ‘애 엄마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사내가 여자하고 같이 싸워? 그럴 때는 자네가 피하면 될 거 아닌가?’”

더글라스 월슨은 그의 책 “결혼을 개혁하라”에서 아내의 책임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사랑과 존중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사랑”이란 단어와 “존중”이란 단어를 바꿔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아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성

경에 가까운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러한 똑같은 사랑을 남편에게 원하므로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아내가 더 성경에 가까운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똑같은 사랑을 남편에게 기대하다보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남편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가 “사랑”이란 단어와 “존중”이란 단어를 바꿔서 남편을 사랑한다면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에게 “I love you”(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기보다 “I respect you”(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해달라고 부탁 또는 요구합니다.

더글라스 윌슨은 “아내들의 성경 적인 의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꼭 존중해야 합니다(엡 5:22, 33).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란 “존경”과 “순종”을 수반합니다.

(2) 아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녀를 해산해야 합니다(딤후 2:15).

또한 아내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매우 부드러움으로 돌봐야 합니다(살전 2:7). 아내는 그녀의 다산에 대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그녀의 다산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3) 아내들은 집안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딤후 2:3-5).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집에 있어서 생산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인이 유능하면 때가 되면 그녀의 공업이 그녀로 하여금 집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잠 31:10-31). 그러나 집이 그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집을 음식과 옷으로 잘 공급해야 합니다(잠 31:14, 21).

(4) 아내는 남편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고전 7:2-5).

그러므로 성적 타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5) 아내는 바가지 굵는 것과 다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잠 19:13b; 27:15-16).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허의 능력을 잘 사용하여 그들의 남편들을 도와야 합니다.

(6) 아내는 남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를 교육하며 가르쳐야 합니다(고전 14:34-35).

(7) 크리스천 아내는 자선 사업에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딤후 5:9-10).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는 지혜로운 아내로서 성경적인 의무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

남자가 원하는 것 (1)

남자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정복”(Conquest)입니다: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루려는 그의 욕구를 고맙게 여기라”(에머슨 에거리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남자들은 일(work)을 하고 성취(achieve)를 이루려는 욕구가 있습니다(에거리치). 그러기에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직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의 이러한 욕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와 남자의 지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남자는 일-지향적(work-oriented)라고 말한다면 여자는 남편-지향적(her husband oriented)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루려는 욕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 지향적인 아내가 어떻게 남편의 일-지향적인 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 중 하나는 남편을 향한 여자의 욕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일-지향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돕기보다 남편-지향적인 그녀의 욕구를 요구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에 남편의 일-지향적인 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웬지 남편이 자기보다 일을 더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 때에 여자는 그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에게는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루려는 욕구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남자의 욕구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에 그를 격려합니다.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 매일 직장에 가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어요. 전 당신이 정말로 존경스러워요”(에거리치). 이러한 사랑하는 아내의 칭찬과 격려는 남편의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아

내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 준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남자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 식구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말로는 남편을 존경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일을 좋아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일-지향적인 남편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의 열심과 노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 남편을 불신합니다. 이러한 여자는 아내로 둔 남자는 정복하고 싶은 자신의 열정에 그의 아내가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신뢰를 받지 못하므로 직장에 나아가서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의 신뢰는 큰 힘이 됩니다.

일을 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는 남자의 욕구를 이해하므로 그 욕구를 채워주는 지혜로운 여자는 일에 대한 남편의 노력이 그녀에게 귀중하다는 사실을 그녀의 남편에게 표현하며 또한 남편이 마음껏 열심히 일을 하도록 믿음을 표현하고 격려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가능성 (potential)을 보고 세워줍니다. 그녀는 남편이 꿈을 꾸도록 격려하며 또한 이미 꿈을 꾸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향하는 나아가는 남편에 옆에 서서 그를 돕고 또한 지지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통하여 남편의 마음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힘이 되어 줍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 (2)

남자가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계급”(Hierarchy)입니다: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그의 욕구를 고맙게 여기라”(에머슨 에거리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어쩌면 많은 여자들은 남자가 원하는 것이 “계급”이라고 말한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급”이란 단 그 말은 듣는 여자들로 하여금 어쩌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그것은 남자들의 세계이다,”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와 같은 남성우월주의 사고를 떠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은 남자가 원하는 이 “계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자가 원하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남성우월주의 사고를 계급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적으로 계급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진정한 ‘성경적 계급’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편이 원하는 계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계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24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복종’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아래 계급, 아래 지위를 의미하는 복합 단어입니다(에거리치). 그리고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오해하여 자기가 자기 아내보다 계급이 높다는 뜻으로 착각하여 아내를 중 부리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인 남자에게 주신 신적 권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은 분명히 권위주의적인 남편이요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시사 신적 권위를 주신 것은 그 만큼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까? 그 책임이란 바로 남편이 자기 아내와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되(25절)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공급하되 남편은 아내와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희생을 하면서까지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존경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녀가 헌신적으로 자기와 가족 식구들을 보호하고 공급하는 자기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수입이 적다고 비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남편이 헌신적으로 자기와 가족 식구들을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녀는 자기 남

편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으로서 남편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더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공급할 것입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 (3)

남자가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은 “권위”(Authority)입니다: 봉사하고 이끌려는 그의 욕구를 고맙게 여기라”(에머슨 에거리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요즘은 남편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도 그들의 어머니를 본받아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인 남자에게 신적 권위(divine authority)를 주셨는데 그 권위에 그의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엡 5:22) 남자의 권위가 가정에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33절)라고 명하고 있는데 남편을 존경하기를 거부하는 그의 아내로 인하여 남자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게 되면 그는 권위주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주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에거리치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남편에 대한 그녀의 복종보다 우선한다. 그녀는 자기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맞서는 죄를 짓지않는다”[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행5:1-11)]. 권위주의 남편은 결코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권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성령 충만한 남편에게 복종하며 존경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해야 합니다(엡5:24).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하듯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며 존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또한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엡5:24, 33).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지도력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와는 그녀의 남편인 아담의 지도를 거부하였지만 (물론 아담도 그의 아내인 하와를 지도하기를 거부했지만) 아내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밟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신뢰하므로 그의 지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를 고맙게 여깁니다. 또한 그녀는 잠잠하고 온유한 영혼으로 남편의 마음을 녹입니다(벧전3:1-2).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자가기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에거리치). 남편이 원하는 복종과 존중을 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며 칭찬할 수 있는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남편이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지라도 여전히 상냥하게 대하면서 비공식적으로만 남편에게 동의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도 그의 권위를 귀중히 여기는 여자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이유들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결코 남편의 이끄는 권리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여자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남편을 세워주는 여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 (4)

남자가 네 번째로 원하는 것은 “통찰”(Insight)입니다: 분석하고 조언하려는 그의 욕구를 고맙게 여기라”(에머슨 에거리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남자의 마인드(mind)는 분석적입니다. 그의 분석적인 마인드(his analytical mind)는 그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남자의 문제 해결 방법(his problem-solving approach)을 여자는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을 제시할 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해 주기보다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하겠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한다면 그의 입장에서 듣는 법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자는 그녀의 직관적인 마인드를 좀 내려놓고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자의 직관이 잘못 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자의 직관은 맞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남자의 분석적인 마인드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통찰력과 아내의 직관력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남자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여자는 그녀의 직관적인 마인드를 좀 내려놓고 그녀의 남편의 분석적인 마인드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힘쓸 때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지도자임을 인정하면서 그의 분석적인 마인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존중하면 칭찬해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조언할 때 고마워하며 또한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의 직관적인 마인드를 내려놓지 않고 남자의 분석적인 마인드를 무시할 경우 원만한 부부관계를 세워 나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가 그녀의 남편의 분석적인 마인드를 무시할 경우 함께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브는 뱀이 유혹을 했을 때 현혹되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통찰력이 있었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관적인 마인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말한 것처럼 지혜를 줄 것 같아 따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과 남편을 위한 최선의 것인지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결론을 내”므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따르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에거리치). 그녀는 아담의 지도(lead)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그의 아내를 지도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통찰력으로 그의 아내의 잘못된 영향을 뿌리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자신의 직관적인 마인드를 의지하며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한 남편까지도 함께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의 통찰력을 발휘하여 아내 이브에게 바른 조언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 이브가 순종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결국 아담이나 이브 둘 다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통찰력을 발휘하여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브는 그 아담의 조언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두 부부는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고 또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롬 5:12).

여자는 남자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통찰력을 가지고 지도해주는 것에 감사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편의 통찰력의 필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자신의 직관과 남편의 통찰력을 잘 조화하여 함께 부부 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부부의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 (5)

남자가 다섯 번째로 원하는 것은 “유대”(Relationship)입니다: “어깨를 맞대는 우정에 대한 그의 욕구를 고맙게 여기라”(에머슨 에거리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남자와 여자의 유대관계 세우는 방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주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험들을 공유하며 유대 관계를 세우지만 남자들은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 관계를 세웁니다(에거리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이기에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유대 관계를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서로 이야기함으로, 남자는 함께 활동함으로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유대 관계 방법만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대관계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자들에게 있어 남자의 유대 관계 방법인 함께 활동하는 것, 즉 어깨를 맞대는 유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축구 경기를 TV를 통해서 시청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옆에만 앉아줘 있기를 원하는데 주로 아내는 남편 옆에 앉아 그 옆만있기보다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남편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때부터 남편은 아내와 “함께” 축구 경기 시청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내는 왜 그녀의 남편이 자기를 거북하게 여기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나는 남편하고 축구를 함께 보면서 유대 관계를 세우고자 대화를 한 것뿐인데...’ 그녀는 남자가 원하는 것, 즉, 자기가 그저 남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남편이 대화를 시도하는 자기를 왜 거북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축구 경기를 함께 보면서 즐길 수 있을 것인지 여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녀의 남편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TV를 시청하는 남편 옆에 그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말을 건네지 않는 이상, 그녀는 그저 남편 옆에 앉아 함께 TV를 시청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침묵하며 그저 자기들 옆에 어깨를 맞대고 앉아 함께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얼굴을 맞댄 대화 대신에 어깨를 맞댄 대화를 선호 합니다’(에거리치). 남자는 그의 아내에게 “내 곁에 앉아 있기만 해 줘”하고 요구할 때 아내는 그녀의 대화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대화 방법을 존중하여 그의 옆에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친밀한 대화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이 남편이 원하는 대화 방법을 알고 배워서 그렇게 시도를 자꾸만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유대 관계 방법을 배워 그의 입장에 서서 부부 관계를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 (6)

남자가 여섯 번째로 원하는 것은 “성욕”(Sexuality)입니다: “성적인 친밀감에 대한 그의 욕구를 고맙게 여기라”(에머슨 에거리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성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성욕과 여자의 성욕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필요 우선순위에는 성욕 만족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의 필요 우선순위에는 성욕 만족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중요한 것은 여자와 남자의 성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육체적인 성적 만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은 육체적인 성적 만족보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성적 만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길 원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성관계를 통하여 친밀감을 표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육체적인 성적 만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침대에서 육체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성관계를 요구할 때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데(준비가 안돼있는데) 그녀의 남편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육체적 성적 만족을 위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녀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관계가 없이도 친밀감과 애정을 남편에게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녀의 남편은 성관계만 요구하는 것 같아 그녀는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거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에거리치 박사는 성욕에 대하여 남녀의 다른 점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성관계와 그녀를 위한 애정은 쌍방향 길이다. 그가 그녀의 몸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녀의 영혼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그의 영혼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몸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한다”(에거리치). 여자들은 남자의 성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그녀의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다면 비록 자기가 성관계를 원치 않아도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그의 성욕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만일 성관계가 없이 남편에게서 애정을 느끼길 원하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여 남편이 원하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므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지혜로

운 아내라면 결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이기적인 아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남편의 성욕을 만족시켜주므로 남편에게서 애정을 느낄 것입니다. 여자는 그녀가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인 표출을 할 필요가 있듯이 그녀의 남편은 성적인 친밀감을 통해 육체적인 표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에거리치).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마치 그가 자신의 몸만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녀는 자신의 성적인 접촉 없이 친밀감과 애정을 원하는 욕구로 그녀의 남편의 성욕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자기와 다른 남편의 성욕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적인 접촉 없이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고 싶은 자신의 강한 욕구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마치 자신의 몸만을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정서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편은 성적인 표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에거리치).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편의 성적인 표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틈을 타 사탄은 남편을 미혹하여 외도하여 하나님과 그녀에게도 죄를 범케 할 수도 있습니다(고전7:5). 그러므로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성욕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살인-전 증후군(Pre-Murder syndrome)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란 책을 보면 “월경전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을 “살인-전 증후군(Pre-Murder syndrome)으로 빙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에거리치). 인터넷 야후 사전을 보면 월경전증후군이란 “월경 7~10일 전에 초조·불면·우울·무기력·복부 종창·몸무게 증가 등의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는 증후군”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의 월경전증후군은 에거리치 박사의 말처럼 “살인-전 증후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월경전증후군 때 남편의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되어 남편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비난을 할 때 자신의 남편들이 그 비난을 자신을 남자로서 경멸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에거리치). 남편들은 아내의 비난을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만 듣는 것입니다(에거리치). 결국 월경전증후군 때 부부간의 다툼은 여자의 비난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자는 더욱 침묵합니다.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말미암아 더욱 더 비난이 소리는 커지면서 어느 때는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독기어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 남자는 아내의 비난을 들으면서 침묵 속에서 마음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속으로 삼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자는 더욱더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면서 아내와의 더 이상의 충돌을 원치 않아 그냥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 여자는 월경전증후군 때 남편에게 쏟아내는 비난은 결국은 자신의 남편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아내는 자신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남자도 분노 가운데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놀려서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지만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모두 혀를 절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혹은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잠 12:18),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4),

부부는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자는 “월경전증후군”이라는 생리적 현상을 이유로 함부로 남편에게 비난 같은 것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결코 월경전증후군 때에라도 함부로 남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과 입을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월경전증후군 때에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의 기억을 만들어 갑니다.

살인-전 증후군(Pre-Murder syndrome)이 아닌 기억-전 증후군 (Pre-Memory syndrome)을 사모합니다.

가정 이야기: “잘났어”

2014년 8월 24일, 주일 저녁.

지난 주 목요일(21절) 저녁에 있었던 일을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이나 어제 토요일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주일 저녁에 쓰려고 하니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날 저녁에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열고 양치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장로교회에서 어르신들 목회를 하게 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화장실 문 밖에서 웃으면서 “잘났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에게 달려들면서 허그(hug)한 것이다. ㅎㅎ 그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 ㅎㅎ

나는 아내가 “잘났어”라고 한 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과거에 부부 싸움할 때에 아내가 나에게 ‘잘났어’라는 식으로 말한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그 때 아내가 나에게 ‘잘났어’라는 식으로 말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내 앞에서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그 때 나는 아내를 이해하기보다 아내가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곤 했던 것 같다. 그것을 지금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아내 앞에서 ‘잘난 척’을 한 것 같다. 나는 아내에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인상을 준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는 아내에게 지혜롭게 말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점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틀림 점들을 보아도 그 틀림 점들을 하나씩 고쳐감에 있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방법으로 말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세워주는 방법보다 무너뜨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 같다(가 아니라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엔 아내가 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내는 충분히 화가 나는 가운데서 나에게 ‘그래 당신은 잘났어’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여태껏 “잘났어”라는 말은 우리 부부가 다툰 때에 아내가 화가 나서 나에게 말을 했었는데 지난 주 목요일 밤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밝고 환한 웃음으로 농담 삼아 나에게 ‘자알났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달려들어 껴안았다. ㅎㅎ 그 때 그 순간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이 가정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나는 웃음이 난다. ㅎㅎ 잘 나지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잘났어”라고 말하면서 나를 껴안아 준 아내가 생각나는 밤이다(지금 아내는 나와 떨어져 있기에).

부부의 다른 점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와 함께 무거운 짐은 나누길 원한다.

그 이유는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에 함께 고통에 동참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나누길 원치 않는다.

그 이유는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에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녀에게도 지우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자와 이러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러한 다른 점 때문에 사랑싸움을 하기도 한다. 누가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서는 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동시에 웬지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남편은 여자의 사랑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즉, 그는 자기의 무거운 짐은 아내와 함께 나누므로 함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다.

아내는 남자의 사랑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즉, 그녀는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홀로 지고자 하는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그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불안한 부부 관계

불안한 부부 관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부부 관계,

언제 어디서부터 부부 관계의 문제가 시작된 것인지 ...

문제가 쌓이고 쌓여 가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 ...

끓고 끓은 상처들,

그 상처들로 인하여 멀어지는 부부 관계,

그러다 보니 딴 여자/남자에게 한 눈 팔게 되는 듯 ...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무식하게 밀고 나오니 ...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

주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부부가 되어야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는 부부가 되어야 ...

그러므로 본이 되어 모델을 제시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 불륜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왜 불륜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1)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하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잠언 5장 8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 예비 학교 시간에 어느 한 자매가 앞으로 자기가 결혼하면 남편이 한번은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매의 입에서 자기 미래의 남편이 불륜의 관계를 맺을 것은 예상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매는 요즘 만연한 불륜의 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일이 자기 부부 관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으로는 그 자매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 자매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왜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본문 잠언 5장 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하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이유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녀)인 “음녀”[“방탕한 여인”(현대인의 성경)]입니다(3절). 왜 잠언 기자는 음녀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를 가까이하면 “나중에 쓰라림과 고통만을 남겨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쓰라림과 고통을 생각하며 불륜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나중에 쓰라림과 고통만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알면서도(머리로만 알겠지만) 불륜관계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쓰라림과 고통

통을 맛보아야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녀를 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여자를 가까이하면 “네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네 재물로 배를 채우고 네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9-10절). 실제로 불륜의 관계로 인하여 영예와 재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남자는(6:29) 그 여자의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면 그 남편은 복수할 것이며 결코 자기 아내와 통간한 남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34절). “아무리 많은 위자료나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가 받지 않을 것”입니다(35절). 질투함으로 분노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와 통간한 남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여자를 가까이하면 “결국 네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5:11, 현대인의 성경):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고 어쩌서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내가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12-14절,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훈계하고 책망을 하면 들습니까? 잠언 6장 27-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밝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마치 불을 품에 품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은 그 불이 남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불이 자신의 부부 관계와 가정에 상처와 모욕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므로 망치지 않습니까?(참고: 32-3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미련한 남자는 멀리해야 할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합니다(참고: 7:7-8). 그는 자꾸만 그녀의 집 쪽으로 갑니다(8절). 그것도 깊은 밤 흑암 중에 말입니다(9절).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의 집 쪽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멀리합니다.

저는 미련한 남자가 남의 아내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 이유를 잠언 5장 15-1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그가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녀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있다면(19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결코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고 남의 아내 가슴을 안지 않으며 자식을 낳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16, 20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지혜로운 남자(여자)가 되어 합니다. 우리는 자기 아내(남편)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남편)을 행복하게 하며 또한 그녀(그)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그)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녀(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불륜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왜 불륜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2)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전도서 7장 7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어느 한 분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 나라의 한 99% 간호사들은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99%의 간호사들 중 결혼한 약 98% 정도 간호사들은 외국으로 나가면 외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대 불륜 관계가 많다고 하여도 저는 그 정도 인 줄은 몰랐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륜관계를 맺는 일이 많은 것일까요? 저는 지난 번 잠언 5장 8절 말씀 중심으로 왜 불륜관계를 맺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하며 가까이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할 자기 아내를 가까이하지 않고 멀리해야 할 다른 여자를 가까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만을 성실히 사랑하지 않고(15절) 또한 그녀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륜관계를 맺는 것입니다(18절). 또한 그는 자기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있지 않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19절)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고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 자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16, 20절).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서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인지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란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모세의 10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이 적혀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왜 우리는 탐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잠5:19). 그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그녀에게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아무리 많은 여자를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릅니다(전1:8).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으로 꺾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벧후2:18). 죄를 짓게 하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여인을 탐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사56:11). 그러므로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잠5:19) 우리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만듭니다(출29:17).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시119:36).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골3: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눅12:15).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골3:5).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5절).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갈5:24). 바라기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출20:17) 오히려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잠5:19).

왜 불륜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왜 내 남편이 딴 여자에게 한 눈을 파는 것입니까? 왜 내 아내가 딴 남자에게 정을 주는 것입니까?

요즘 같이 불륜관계를 묘사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한 여자가 다가와서 그 부부의 남편을 유혹하고 또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 부부의 아내를 유혹하는 드라마(한국 드라마 “유혹”)를 보면서 꼭 이런 스토리를 써야 인기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으로 드는 생각은 어찌면 이러한 드라마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미 “왜 불륜관계를 맺는 것일까요?”란 제목 아래 두 말씀 묵상의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은 잠언 5장 8절에 근거해서 불륜관계를 맺는 이유(원인)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남편이 자기의 한 아내를 가까이 하고 한 아내는 자기의 한 남편을 가까이 해야지 한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내(유부녀)나 다른 여자(처녀)를 가까이 하고 한 아내가 다른 여자의 남편(유부남)이나 다른 남자(총각)을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한 아내만을 사랑하되 성실히 사랑하며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하며 또한 그녀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녀의 품을 항상 만족히 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맺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은 전도서 7장 7절에 근거해서 불륜관계를 맺는 이유(원인)는 바로 탐욕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잠5:19)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귀는 그녀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으로 꺾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벧후2:18). 죄를 짓게 하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여인을 탐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욕은 족한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사56:11). 결국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여(잠5:19)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만듭니다(출29:17).

오늘 저는 “왜 불륜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3)”란 제목을 걸고 세 번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3절과 폴 트립 박사님(Paul David Tripp)이 쓰신 “What did you Expect?”란 책 중심으로 불륜관계를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부부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은 주님께서 부부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부부도 피차 용서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에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피차 용서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주님께서 그 부부를 용서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피차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 불만이 있고 또한 그 불만이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부부는 서로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지 않는 부부는 진심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 부부는 서로 용서하기를 이미 마음으로 거부(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부부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될 것일까요? 저는 그 과정을 폴 트립 박사님이 말한 수많은 부부들이 걸어가고 있는 7가지 길들(paths) 근거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길은, 미성숙함과 실패(Immaturity and Failure)입니다.

결혼이란 이 죄악 된 세상에서 한 죄인 남자가 한 죄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결혼이란 한 미성숙한 남자와 한 미성숙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기에 수많은 실수(mistakes)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실패(failures)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 미성숙한 부부가 결혼 초에 많은 실수를 범하며 또한 실패를 합니다. 그 실수와 실패 뒤에는 결혼에 대한 순진해 빠진(naive) 생각 속에서 결혼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에 그 결과로 부부 초기에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순진해 빠진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평생 안 싸울 것 같고 갈등도 없을 것 같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겠지만 그 꿈을 결혼 초에 깨질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과 꿈은 깨지고 실망과 상처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 때서야 그 부부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과 기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것조차 없이 비참하게 깨진 꿈의 현실 속에서 허덕이며 헤매는 부부는 점점 더 높으로 빠집니다. 그 부부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길은, 편안한 패턴에 빠지는 것(Falling into Comfortable Patterns)입니다.

이 말은 부부가 자신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때에 그 실패를 통하여 배워서 부부 관계를 세우고 더욱더 두텁게 하며 부부의 성숙함을 추구하는데 유익하게 하는 힘든 길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그 실패로 하여금 부부 관계를 더욱더 악화하게 만들도록 그저 내버려두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최악 된 본능은 힘든 길을 선택하기보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선택하는 편안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삼아 다투고 싸우므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편안한 길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서로에게 입은 상처를 기억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움을 우리 마음에 차근차근 쌓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차근차근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악 된 본능대로 하는 것이요 참으로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부부 관계에서는 우리가 미성숙함으로 맛보는 실패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자 하는 헌신과 노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거듭되는 동일한 실패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실패들을 경험하는 부부의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쌓이고 고이게 되므로 부부 관계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길은, 방어를 수립하는 것(Establishing Defenses)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피차 용서하되 서로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며 또한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무나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최악 된 본능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기보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 사이에 벽을 쌓는 것입니다. 벽을 쌓되 우리는 자꾸만 그 마음의 벽을 더 높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잘못과 죄를 서로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서로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서로를 정죄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의(self-righteousness)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비난할 때 미성숙하고 자기 의에 가득찬 부부는 서로의 비난에서 자기가 상처 입는 것을 보호하자

고 자신에게 보호막을 칩니다. 그 보호막이란 바로 자기와 자기의 배우자 사이에 방어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을 받는 미성숙한 배우자는 방어를 수립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상처 입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 뿐 아니라 그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성숙한 배우자에게 오히려 공격(offense)을 합니다. 그러면 공격을 받는 상대방 배우자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상대방 배우자가 미성숙하면 그 또한 공격을 하므로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 방어하고 서로 공격하는 '부부 전쟁'의 순환(marital war cycle)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지고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길은, 반감을 키우는 것(Nurturing Dislike)입니다.

부부가 미성숙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갈등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 부부는 갈등 속에서 부부관계를 지키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방어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므로 부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느 정도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점점 더 서로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면서 서로에게 비판적인 됩니다. 그 결과 그 부부는 서로를 향한 반감만을 키우게 되므로 부부 관계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길은, 압도되는 것(Becoming Overwhelmed)입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관계가 서로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오되 그 큰 부담이 너무나 그들 각자에게 혼자서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옵니다. 그 때 만일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저주고 또한 주님께 모든 짐을 겸손히 믿음으로 맡기면 되지만 부부관계가 매우 나빠진 부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상실하였기에 서로의 짐을 저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부부가 서로 따로 지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결국 그 부부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부부 관계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길은, 다른 부부를 질투하는 것(Envy of Other Couples)입니다.

점점 더 관계가 나빠지는 부부는 서로에게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주위에 다른 부부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들이 부부 관계가 좋아 보이는 부부들을 볼 때에 그들은 자기들과 그 다른 부부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슬이 좋아 보이는 그 부부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되 그들은 자신들의 부부관계가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자괴감 속에서도 지금 배우자와 헤어져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아예 자포자기 하는 것보다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맺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일곱째 길은, 벗어나는 공상을 하는 것(Fantasies of Escape)입니다.

부부관계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면서 다른 부부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다른 부부들을 질투하는 관계가 매우 나빠진 부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 아래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상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될 때 그들은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될 위험이 참 많습니다. 특히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받고 그녀에게 존경을 받을 때 그는 그녀와 불륜관계를 맺을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아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인 아내에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사랑해 줄 때 그녀는 그와 불륜의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들은 관계가 나쁜 자기의 배우자와 헤어지고자 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불륜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되 오랫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부가 불륜관계를 맺을 확률이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쌓인 많은 불만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므로 부부 관계가 많이 악화된 부부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미성숙하여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부부들, 서로의 문제와 갈등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힘든 노력보다 문제와 갈등이 굶도록 그냥 넘어가든지 내버려 두는 편안한 길을 선택한 부부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부부의 한 몸 됨을 지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방어막을 쳐서 자기는 옳고 내 배우자는 틀렸다고 비난하므로 계속해서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부부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부부들,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된 부부들, 그러므로 다른 부부와 비교하면서 그 다른 부부를 질투하는 부부들,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공상

을 하다가 자기 배우자와에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부부들은 주님 안에서 성숙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의 성숙함이 부부 관계에서의 성숙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성숙해져 가는 부부는 서로의 관계에서도 점진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부부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점진적으로 온전해져 가므로 말미암아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들의 부부 관계에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관계를 추구하는 성숙해 가는 지혜로운 부부는 주님이 세우시는 부부 관계에 헌신하므로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그 힘든 길이란 예를 들어 자기희생입니다. 이 힘든 길을 선택하는 성숙한 부부에게는 서로를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세우고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데 헌신하여 실천에 옮기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의 패턴으로 인하여 부부 관계는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며 온전해져 갑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며 온전해져 가는 부부는 서로를 공격하고 또한 서로 방어하면서 부부 전쟁 순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에게 반감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에게 정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짐을 집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짐을 가볍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부부는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기에 다른 부부들과 비교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부 관계에 만족하므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중심된 증인 공동체로서 불륜과 이혼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델을 제시하는 부부로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한 주님 중심된 부부로 세움 받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6장 20-35절]

여러분 “칠거지악”이란 말 아십니까? 언젠가 잠언 6장 16-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칠악”이란 묵상 내용을 제 개인 Facebook에 올렸더니 어느 목사님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조선시대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생각”난다고 적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여 인터넷을 탐색해 보았더니 칠거지악이란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잘못이라고 말하더군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이 없음(無子), 음탕함(不貞), 질투함(嫉妬), 나쁜 병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口說), 도둑질을 함(竊盜)(인터넷). 저는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즉 이혼할 수 있는 이 일곱 가지 잘못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세 번째인 “음탕함”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혼에 대하여 말씀할 때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 이혼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 5:32).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최고로 “색욕”죄가 많은 나라에 뽑혔다고 하여 그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7대 중죄별로 본 BBC 세계국가별 성악(性惡)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죄가 많은 나라는 바로 호주(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7대 중죄”란 전통적인 대죄 7가지로 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그리고 색욕입니다. 호주는 색욕, 탐욕 그리고 자만 등 세 가지 대죄 부문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세계에서 가장 죄가 많은 나라로 뽑혔다고 합니다. 미국은 식탐부문 죄 많은 나라 1위로 선정됐고, 아이슬란드는 자만과 나태 죄 부문에서 죄 많은 나라 1위, 멕시코는 탐욕 부문에서 1위, 그런데 한국은 색욕 대죄 부문의 세계최고 나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25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Do not lust in your heart after her beauty or let her captivate you with her eyes). 지금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

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녀의 음란한 눈짓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권면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음녀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모”(outward adornment)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음녀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녀의 외모는 아름답기에 남자들이 그녀에게서 매력(attraction)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녀는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기에 안목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는 남자들의 시선을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언젠가 인터넷 뉴스 판을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서쪽 국가 카메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기 딸들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불에 달군 쇠방망이나 돌로 딸의 가슴을 지쳐서 성장을 없애는데 카메룬 소녀 4명 중 1명이 ‘가슴 인두질’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 가슴 인두질을 당하는 소녀들은 평생 고통 속에 거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머니들이 하는지 생각해 볼 때 남자들의 본능이 여자들의 가슴을 보면 시선이 집중되고 성적 상상과 함께 자극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인터넷).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성형수술의 종류에서 많이 하는 빈도를 보면 “지방흡입술” 다음에 “가슴 확대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검수술이나 코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잠언 5장 20절에서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며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합니다(18-19절). 그런데 음녀는 자신의 외모로도 우리를 유혹하되 특히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유부남들을 미혹하여 음녀의 가슴을 안게 만들고 있습니다(20절). 이렇게 음녀는 자기의 외모는 남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 자기의 외모 외에 그녀의 혀는 기름처럼 매끄러워서(3절) 아침하여 남자들을 호리되(2:16, 6:24) 매우 유혹적입니다. 그녀의 혀는 남자들의 마음을 끌되 성적으로 유혹함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입니다. 특히 그녀의 혀는 지혜 없는 남자(7:7)나 자기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여기지 않고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않는(5:19) 유부남들을 미혹함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입니다. 이러한 음녀의 외모와 혀 외에도 음녀의 눈꺼풀(6:25)도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음녀의 눈꺼풀이 남자들의 마음을 유혹합니까? 바로 음녀의 눈은 남자들에게 추파

를 던지므로(firting eyes) 그들을 유혹합니다(Walvoord). 많은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는 음녀의 요염한 눈짓에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잠깐 동안이며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참고: 시37:20).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인의 아름다움은 “숨은 사람” 즉, 내적 사람이지 결코 겉 사람이 아닙니다. 겉 사람의 아름다움은 잠깐 동안이요 썩어질 것이지만 내적 사람의 아름다움은 썩지 아니합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에게 이 썩지 아니할 내적 아름다움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4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요 썩지 아니할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딸들은 그저 용모가 사람들 보기에 좋아서[예: 왕후 와스디(에1:11)]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므로 결국에는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많은 사람들 더불어 행음(음란)하는(겔16:15)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러한 자기의 외모의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자의 아름다움은 헛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잠31:30).

둘째로, 솔로몬 왕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6장 26절을 보십시오: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악하고(24절) 음탕한(26절)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그녀의 눈꺼풀에 흘려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파산하게 되며,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창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여 그녀와 사귀므로 재물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잠언 29장 3절

을 보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얼마 전 차가 망가져서 차를 견인할 때 그 견인차 기사와 대화한 기억이 납니다. 이혼한 후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은 주로 자기에게 이것저것 자꾸만 사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말하는 그런 여자들은 돈보고 자기를 사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사는 이혼을 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피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이런 여자, 저런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떨것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29-3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유부녀와 통간하는 죄악이 도적질한 죄보다 더 크다고 말하면서(박윤선) 도적질하다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라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통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함에 있어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적 불성실함은 값을 치름에 있어서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남녀들이(싱글이나 유부남/녀) 오늘 본문 잠언 6장 27-28절 말씀처럼 “불을 품에 품고”있으며 또한 “숯불을 밟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처럼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당연히 그 옷이 탈 수밖에 없으며 숯불을 밟으면 당연히 그 발이 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많은 남녀의 성관계가 결혼 밖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많은 남녀들이 간통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29절과 32-33절에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부녀와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우리가 간통의 죄를 범할 때에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통했을 때 그 여자의 남편이 질투하고 분노하여 자기 아내를 간통한 남자를 원수같이 여겨 용서하지 않고 아무 보상금도 받기를 거부하고 (그 보상금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남자에게 복수할 것입니다(34-35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6장 20-24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기 위해선 한 마디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참고: 3:1-3; 7:1-3).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God’s words will speak to us)(6:22).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며, 빛이기에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우리에게 “훈계의 책망”을 준다는 말입니다(2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항상 새겨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24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사람들 보기에 매력을 느낄만한 “고운 모양”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력을 느낄만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벧전 3:3-4)고 말하였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4절)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아름다움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시편 27편 4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편 기자처럼 제가 한 가지 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저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사야 35장 1-2절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삶입니다. 곧,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들어내며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부부간의 이행할 의무

(고린도전서 7장 1-7절)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취업포탈 잡 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3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결혼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미혼 직장인의 50.2%가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인터넷). 특히 이러한 대답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했다는 것을 보면 여자들이 직장을 갖고 다름대로 경제적으로 독립도 된 상태에서 구지 남자하고 결혼해서 구속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젊은 이들이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심리를 대략 4가지로 나눈 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인터넷):

- (1) “결혼 환상파”: 결혼 환상파는 헐리웃 영화나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미남미녀의 달콤한 로맨스와 같은 결혼을 꿈꾸는 어리숙한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 (2) “결혼 무시파”: 결혼 무시파 젊은이들은 결혼 환상파 젊은이들과 대조적으로 결혼에는 관심 없다는 듯 뒷전에 밀어놓고 자아성취, 커리어 추구에 더 초점을 맞추어 독신의 삶을 즐기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은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닌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 (3) “결혼 도피파”: 이파 젊은이들은 사랑이 결핍된 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아동기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결혼을 비판하고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 (4) “결혼 추월파”: 이 파의 젊은이들은 모든 파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아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로서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 자체를 부정하며 일시적인 욕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며 성관계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각각 모양은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개인의 경험과 세상에서 얻는 그릇된 편견에 근거하여 결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편견 중 하나는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이 무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맞습니다, 결혼은 무덤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죽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란 부부가 죽어야 할 점들은 죽고 살아야 할 점들은 더욱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John MacArthur 목사님은 우리가 결혼해야 할 이유를 5가지로 말했습니다(MacArthur):

- (1) “procreation”(출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8)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번식하길 원하십니다.
- (2) “pleasure”(즐거움): 결혼이란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잠언 5장 18-1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리고 아가서를 보면 부부가 서로 육체적으로 마음이 끌려서 부부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 (3) “partnership”(동반자): 결혼이란 부부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시다(창2:18). 그리고 좋은 결혼에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 (4) “picture”(그림): 즉, 결혼이란 교회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권위가 있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 대해 권위가 있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엡5:23-32).
- (5) “purity”(순결): 다시 말하면, 결혼이란 순결을 위한 것입니다. 즉, 결혼은 부부로 하여금 성적 부도덕(sexual immorality)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이란 성적 부도덕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순전히 음행이란 성적 부도덕한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젊은 싱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적 유혹들이 너무나 많고 그 유혹들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이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1절).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로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은 유대인의 완곡어법(Jewish euphemism)으로서 지금 바울은 그 싱글 지체들에게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The husband must fulfill his duty to his wife, and likewise also the wife to her husband).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부부간의 이행할 의무”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겸손히 받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부간의 이행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읽었던 결혼에 대한 책들 중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서 제일 잘 나열해 놓은 책은 더글라스 윌슨(Douglas Wilson)이란 목사님이 쓴 “결혼 개혁”(Reformed Marriage)이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는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각각 여섯, 일곱 가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먼저 남편의 의무 6가지입니다(윌슨):

- (1) 첫 번째 의무: 남편은 주님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림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두 번째 의무: 남편은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엡 5:29).

(3) 세 번째 의무: 남편은 질투해야 하며 또한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출34:14b).

(4) 네 번째 의무: 남편은 아내에게 그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출 21:10-11).

(5) 다섯 번째 의무: 남편은 그의 아내를 만족히 여겨야 합니다(잠 5:15-19). 남편은 모든 점에서 자기의 아내를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6) 여섯 번째 의무: 남편의 지속적인 책임은 아내가 만든 헌신들을 재검토하고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민 30:13-15).

이 여섯 가지 남편의 의무들 중 네 번째 의무인 “남편은 아내에게 그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에서 우리 남편들이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아내가 장보는데 필요한 돈을 공급해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남편의 책임은 사랑하는 아내의 성적 필요성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전 7:3-4). 이 책임에 대해 좀 우리 남자들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남자들이 자기들이 성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내도 성적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을 우리 남편들이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더글라스 월슨 목사님은 한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월슨):

(1) 첫 번째 의무: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꼭 존중해야 합니다(엡 5:22, 33).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란 “존경”과 “순종”을 수반합니다.

(2) 두 번째 의무: 아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녀를 해산해야 합니다(딤후 2:15). 그리고 아내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매우 부드러움으로 돌봐야 합니다(살전 2:7).

(3) 세 번째 의무: 아내들은 집안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딤후 2:3-5).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집에 있어서 생산적이 돼야 합니다. 만일 여인이 유능하면 때가 되면 그녀의 공업이 그녀로 하여금 집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잠언 31:10-31). 그러나 집이 그녀의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4) 네 번째 의무: 아내는 남편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고전 7:2-5).

(5) 다섯 번째 의무: 아내는 바가지 굵는 것과 다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잠 19:13b; 27:15-16).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혀의 능력을 잘 사용하여 그들의 남편들을 도와야 합니다.

(6) 여섯 번째 의무: 아내는 그녀의 남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를 교육하며 가르쳐야 합니다(고전 14:34-35).

(7) 일곱 번째 의무: 크리스천 아내는 자선 사업에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딤후 5:9-10).

여러분은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이 나열한 남편의 의무 6가지와 아내의 의무 7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윌슨 목사님이 말한 남편과 아내의 의무들 중 아내의 네 번째 의무의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서로를 향한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부간 이행할 의무가 바로 서로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단수형을 쓰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의무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구체적인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바로 서로의 성적 필요성을 채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의 특권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책임입니다(MacArthur). 그러기 위해선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란 바로 우리가 서로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몸은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부부의

각자의 몸은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육체적 순결을 추구함에 있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념이란 금욕주의적인 것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결혼한 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부부의 성관계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MacArthur).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도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기 몸을 자기 것인 냥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상대방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헌신과 노력 속에서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자기의 몸을 주장하게 양도하지(yielding)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지금 많은 부부들이 분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5절에서 성경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 부부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분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부부 상담 전문가의 글을 보니까 “우리 부부가 남편 방, 아내 방 따로는 쓰는 이유”를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인터넷):

- (1) 20대 부부가 각방 쓰는 이유는 “남편의 고약한 잠버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밤이 너무나 괴로워서 각방을 쓴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것은 20대 부부뿐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가 밤마다 코를 크게 골든지, 잠을 자면서 저처럼 옆치락뒤치락 하든지, 심지어 배우자를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까지 하는 고약한 잠버릇이 있으면 상대방 배우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괴로워서 각방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2) 30대 부부가 각방 쓰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자 아내는 아이 방, 남편은 안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출산 후 육아 초기 때 각방을 쓰는 것이나 아이들이 커서도 남편이 그 다음 날 일 나아가야 하기에 아내는 아이들하고 아이들 방에서 자고 남편은 안방에서 혼자 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아 초기 때 아기하고 다 함께 한 방에서 자게 되면 부부가 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 나가는 남편의 숙면을 위해서 각방 쓰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3) 40대 부부가 각방 쓰는 이유는 “수험생 뒷바라지에 남편은 뒷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30대 때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아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이렇게 여자가 남편 지향적이 아니라 아이들 지향적이 되어서 부부 관계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부부 관계가 우선인데 아내는 아이들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우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이유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50대 이후로 부터는 왜 각방을 쓰는지 그 이유는 그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부부들이 합방을 하지 않고 각방을 쓰는 이유가 다 비슷한 이유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각방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성경은 부부가 “얼마 동안” 각방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서로 합의 아래 각방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얼마 동안”이지 40일 금식기도 하겠다고 남편이 아내가 각방을 쓰자고 말하면 무조건 40일 동안 각방을 써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각방 쓰자고 할 때 아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본 것이 아니기에 남편은 따로 방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그럼 “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 그것도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각방 사용하는 기간을 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각방을 쓰는 것도 “얼마 동안”이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시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십시오: “...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각방을 쓰다가 속히 합방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절제하지 못하고 음란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합방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부부 관계 밖에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맺는 그 원인이 바람피운 남자나 바람피운 여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도란 외도한 남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 그 남자의 부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도한 남자의 문제는 자기가 직접 외도를 했으니 그의 문제는 분명하겠지만 그의 부인의 문제는 어쩌면 남편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종종 밤마

다 아내하고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의 아내가 자꾸만 피한다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성노리개도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서로를 향한 성적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외도란 결과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부간의 이행할 의무인 서로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부부로서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노인케어전문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 고령사회 교육원에 올라와 있는 글들 중 “노년기 부부 성 갈등 ‘심각’이란 기사를 보니까 노년기 부부들의 성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고 합니다(인터넷).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 인천, 충북 등 13개소 노인 성상담실에 접수된 성상담 사례 24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부 성 갈등’ 관련 문의가 473건으로 전체 상담의 19.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성 갈등의 요인을 보면 상대방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비롯해 과거부터 쌓였던 불만, 경제적인 문제, 남성의 가부장적인 태도 등 매우 다양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성 갈등 사례는 성별에 따라 매우 상반된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남성노인의 경우 성관계 요구에 대한 아내의 거부, 여성노인은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아내는 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부부들이, 노년기 부부들이든 청년 부부들이든 “섹스리스(sexless)라는 위기에 빠져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기서 “섹스리스”란 최근 2개월 동안 부부관계가 월 1회 미만이거나 한 달 동안 부부관계가 전혀 없을 때를 섹스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 20대 신혼부부에게까지 섹스리스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섹스리스로 인한 이혼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나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은 ‘이혼 위기의 70-80%는 섹스리스’라는 주장까지 편다고 합니다. 2010년 이혼 사유 1위인 성격 차이(5만 7801건)와 3위인 배우자 부정(1만 351건)의 근본적 원인이 섹스리스라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는 성적(性的) 차이’라는 해석입니다. 예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섹스리스로 불화를 겪다 외도와 별거를 거쳐 결국 이혼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부부생활을 해야 할지 다시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부부간의 우리가 이행할 의무를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기에(7절)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에게 이행할 성적 필요성을 충족해주는 의무를 신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5절).

불편한 은혜

(Uncomfortable Grace)

“No, what we are getting is something we desperately need, the uncomfortable grace of personal growth and change.”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의 불편한 은혜입니다) [Paul David Tripp, “What did you Expect?”]

이 최악 된 세상에서 한 죄인 남자가 한 죄인 여자와 결혼할진데 어떻게 그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결국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롬 5:20). 그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는 바로 부부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되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마 18:35).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서로 다른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막 10:8).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 등 모든 면으로 다른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불편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두 다른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함께 많이 부서지고 또한 많이 꺾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두 남녀가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 등등 여러모로 비슷하면 (똑 같을 수는 없으니) 결혼해서 함께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르면 함께 결혼해서 많이 부딪히고 싸울 것이기에 웬만하여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좋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모로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왜 그들은 이혼하면서 성격차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녀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자기와 자기 배우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또한 용납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부는 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남녀를 한 몸을 이루셨는지 그 뜻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헌신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 중의 하나는 두 남녀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고전12:25). 돌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 가운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한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요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또 다른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2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부는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하기보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채워주므로 서로를 돌봅니다.

둘째로,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로의 차이를 옳고 틀렸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옳고(right) 틀렸다(wrong)는 관점으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서로의 도덕적으로 옳고 틀림을 보는 것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옳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부 각자를 주권 속에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시되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부부가 주님이 앉아 계셔야 재판장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기 의(self-righteousness)를 서로에게 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부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창 1:27, 약 3:9)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다(현대인의 성경)](시139:14)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분의 주권 속에서 남녀를 다르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를 옳고 틀렸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봄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데 헌신하여 노력합니다.

셋째로,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로의 차이를 감사해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감사(appreciation)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다른 점들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한 경험하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다른 점들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complementary)케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의 과정에서 부부의 역할은 서로의 다른 점들을 통하여 서로 부딪히며 힘들게 하는 점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자신들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은 서로의 다른 점들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부부는 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자신들을 부부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들을 보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여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 한 몸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속하신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사 43:4).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므로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되 서로의 다른 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통하여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함께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잠27:17,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두 철들이 잘 부딪혀야 합니다. 그와 같이 부부가 서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주님 안에서 잘 싸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싸우는 부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 서로의 차이를 옳고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그저 다를 뿐이야’라는 자세로 그 차이들을 오히려 서로의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서로 보완하는 계기로 삼으므로 더욱더 부부가 함께 온전해져 갑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 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오히려 감사하며 존중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절실히 필요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의 불편한 은혜입니다.

부부 관계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마다 부부 관계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신실하게 부부를 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남편과 아내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시켜 주고 계시며 또한 성령님의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에 부부 관계는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80/20 원리

언젠가 '지도력'(Leadership)에 관한 책을 읽다가 Vilfredo Pareto's 원리 또는 "Pareto 원리에 관해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달리 말한다면 80/20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단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뜻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부부 생활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서로 부족함 점들이 많은데 서로에 부족함 점들을 채워주자는 의도아래 80/20원리를 적용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족한 20%를 아내가 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남편의 부족한 20%를 채워주며 살아가고 남편 또한 아내가 부족한 20% 점진적으로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이 부족한 점들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면서 불만을 표시하며 불평한다면 결국 그 부부는 다투며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기회로 삼고 헌신적으로 인내하며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부부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부부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80/20원리를 부부 생활에 또 달리 적용해 볼 때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이 80%로 할지라도 20% 되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세워주는데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20%의 장점으로 배우자의 80%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우자의 20%의 장점으로 하여금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80%의 장점을 보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부부가 서로의 부족한 20%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면서 그 부족한 20%조차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100%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부부생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지 20% 부족함도 이 세상에서의 부부 생활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부부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저희 부부의 10년 넘는 결혼 생활에 적용해 볼 때에 2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째로, 과연 우리 부부는 서로의 20%로 잠정을 보면서 그 20%의 장점으로 80%로 끌어 올리는데 얼마나 헌신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서로의 제일 좋은(the best) 점들을 서로에게서 끌어내어 가꾸고 개발하며 세워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둘째로, 과연 우리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 80%를 얼마나 20%의 장점으로 덮어 주면서 그 부족한 80%를 서로가 채워주고자 노력하며 살았는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로 그 80%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 이해하며 품고 덮어주며 채워주고자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부부 관계를 추구하는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서로의 부족함을 그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하며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Our fundamental problem is not ignorance of what is right. Our problem is selfishness of heart that causes us to care more about what we want than about what is right”(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 옳은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무엇이 옳은가를 주의하기보다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가를 주의하게 만듭니다.)[Paul David Tripp, “What did you Expect?”]

이 최악 된 세상에서 한 죄인 남자가 한 죄인 여자와 결혼할진데 어떻게 그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가 범하는 죄들의 쓴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즉, 그 두 교만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의 두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웃 사랑은 죄인 된 인간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쓴 뿌리는 바로 이기심(selfishness)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아직 이 최악 된 인간의 사랑의 쓴 뿌리인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롬 5:5)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고후 5:17)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만(눅 10:27) 우리의 옛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육의 일들을 도모하므로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은 무엇이 옳은가를 주의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의하게 만듦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데로 이웃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표면적으로 제일 잘 들어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속

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살게 하시는 목적은 두 다른 남녀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남녀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갈 5:22).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점진적으로 성화시키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우리의 옛 사람의 이기적인 본능을 점진적으로 내어 버리게 하고 계십니다. 내어 버리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부부 관계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표면적으로 들춰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는 것보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두 이기적인 나라들인 남편의 나라와 아내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므로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의 쓴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된 쓴 열매들을 통하셔서도 진흙과 같은 우리 부부들을 빚으시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부부들로 하여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고 계십니다(롬5:20). 하나님께서는 두 이기적인 죄인들을 짝지어 주시사 성화시켜 주시되 우리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 등도 사용하셔서 우리 부부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부부들에게 가르쳐 주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눅 10:27). 우리는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이 계명을 순종하므로 주님 중심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 중심된 우리 가정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자기중심

(Self-centeredness)

“Self-centeredness by its very character makes you blind to your own while being hypersensitive, offended, and angered by that of others”(자기중심이란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는 눈을 멀게 하지만 상대방으로 인하여 당신을 과민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듭니다.)[Timo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 말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한 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웃으면서 ‘결혼은 인생의 무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농담 삼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무덤을 깊이 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무덤에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부부는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와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부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에 있어서 방해와 장애가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부부 갈등입니다. 즉, 부부는 갈등을 통하여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므로 자기 자신이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깨달아 알아 그 무덤에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버려야 할 것들 중에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self-centeredness)입니다. 부부가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깊이 파는 무덤에 버리면 버릴수록 그 부부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인생의 무덤에 부부가 각자의 자기중심적인(이기적인)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부활”(?)하여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

로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저는 부부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이란 무엇입니까? 위에 인용한 Timothy Keller 목사님의 말을 저는 한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중심이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자마다 그 이튿날인가 다뤘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투게 된 이유는 저는 호텔 방 안에서 비디오를 빌려다가(호텔 1층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있었기에) “Speed”라는 액션영화를 보고 싶어 했고(영화 제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ㅎㅎ) 아내는 하와이까지 멀리 비행기 타고 왔는데 차를 빌려서 그 섬을 좀 돌아다니기길(예쁘게 말하면 ‘구경하길’? ㅎㅎ) 원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각자가 원하는 게 달라서 (틀려서가 아닌데) 부부 싸움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 때 저는 어떻게 부부 싸움을 잘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어쩌면 아예 몰라서란 말이 더 맞을지도) 그 자리(거실)를 피해 창문 베란다로 나가서 긴 의자에 누웠습니다. 그 때 아내는 저를 쫓아 나왔고 화가 나서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기억도 안남 ㅎㅎ) 그 때 저는 아내의 화난 얼굴을 피하고자 들고 있었던 책을 좀 높이 들어 제 얼굴을 가렸습니다. ㅎㅎ 그러니 아내는 더 열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때부터 다뤘습니다. 결과는 제가 저서(저줘서는 아닌 듯?) 저희 부부는 차를 빌려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 때 구경한 곳들 중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ㅎㅎ 그 곳은 아내가 그리도(?) 가고 싶어 했던 하와이 마우이 섬에 있는 black sand(검은 모래사장?)입니다. 그곳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아내가 그리도 그곳을 저에게 자랑(?)한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보기엔 진짜 그렇게 작은 모래사장은 처음 보았습니다. ㅎㅎㅎ 기대를 크게 하고 왔는데(저같이 여행할 줄 모르고 또한 여행하기도 안 좋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ㅎㅎ) 도착해 보니 그렇게 조그마한 모래사장은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ㅎㅎㅎ 이렇게 저희 부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해서 한 번 더 싸우지 않다가 신혼여행까지 가서 처음으로 싸웠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제 중심인지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Timothy Keller 목사님의 말처럼 제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저의 눈을 멀게 하므로 나 자신을 못 보게 하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못 보게 하되 특히 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못 보게 하며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제 입장에서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이 얼마나 아내 보다 제 자신을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저의 잣대로 아내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은 저로 하여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잣대로 아내가 판단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제 마음에 불만과 제 입술에 불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저로 하여금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마음속으로라도 아내를 ‘틀렸다’, ‘잘못 한다’ 등등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은 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내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기중심적인 경향은 아내에게 제 자신의 의 (self-righteousness)를 드러내기만 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 아내에게 ‘당신 잘났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못 보게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경향과 싸워 조금씩 조금씩 승리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이고 아내 중심적 등 사람 중심적이 아닌 주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이기적인 경향에서 이타적인 경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사 나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아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아직도 너무 멀었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제 입장에서 보다 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한 마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시며 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게 만드시되 성령님께서서는 제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 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하. 오히려 결혼이란 사랑의 물댄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참고: 렘 31:12).

둘째로, 자기중심이란 상대방으로 인하여 나를 과민하게 만들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한 전도사님이 나중에 결혼하면 번기 뚜껑 때문에도 부부가 싸울 수 있다고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설마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 결혼 초부터 부부가 싸울 수 있는 요소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제가 아내를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여자가 읽는 책들도 사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도 정확히 제 아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구요. 그 이유는 많은 여자들 중에 제가 결혼한 여자는 딱 한명 제 아내이며 제 아내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ㅎㅎ 그 만큼 저는 독특한 여자인 제 아내를 알아가고 싶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지금, 또한 앞으로 더욱더 아내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의 다른 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서로의 다른 점들을 자기 기준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금년에 들어와서 부터인지 작년 말부터인지 부부 싸움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잘 기억이 안남). 오히려 저희 부부는 지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에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특히 2001-2003년에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살 때에는 부부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토요일 오후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하다가(기억도 안남 ㅎㅎ) 화를 내면서 말을 쏟아내는데 저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서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저 저 여자를 제 사랑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ㅎㅎ 그 때 그 순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 아내가 저렇게 화가 나서 나에게 이런 저런 말들을 쏟아내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마음과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새벽기도회 부터 여태껏 교회 사역하고 지금에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면서 말할까.’ 저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혼자서 외국과 같은 한국에 와서 혼자서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헤아려 주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 따뜻한 사랑의 한 마디라도 지혜롭게 잘 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저 저는 이기적으로 저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거의 몰랐습니다(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한참 후에야 자기가 한국에 살았을 때 우울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정도로 저는 아내를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내 입장에서 거

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저는 제 자신 중심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부부 싸움을 많이 했을 때 저는 아내의 말(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인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과민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저는 아내의 의중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아내의 말에 과민 반응하면서 아내의 말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미국에 돌아와서도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혀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해주었더니 아내는 저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군요. ㅎㅎ 제 생각에 아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저를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는 결혼 초부터(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ㅎㅎ 지금은 아내가 포기한 듯 ㅎㅎㅎ) 분노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분도 있는 아내는 부부 싸움할 때 화가 나면 전반전에 확실하고 짧게 쏟아 붓고 뒤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 후반전에 강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도 전반전에는 제가 물리고 후반전에는 제가 좀 밀어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ㅎㅎ 그 때에는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참 과민하였고 또한 서로 화를 내면서(아내 말로는 자기는 겉으로 화를 내지만 저는 속으로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함 ㅎㅎ)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성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때보다 참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저희 부부는 죽을 때까지 더 나아지도록 기도하며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할 것이지만요). 지금은 전처럼 서로에게 과민 반응하지도 않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으며 또한 서로에게 화를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민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쁘게 하며 또한 화를 내기보다 전보다 더 잘 참게 성령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나 아내가 각자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보다 좋아지고 있기에 이렇게 수평적인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내가 좋아하는 캘리그래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전보다 더 많이 엿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제일 사랑하고 계시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아내는 내적에서 부터 표현되는 외면의 밝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서 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모

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결혼이란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란 사랑과 행복의 물댄 동산입니다.

습관적인 비판

"많은 부부들이 대화중에 사용하는 “절대로” 또는 “맨날”과 같은 말 속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쑥셔대는 공격의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당신은 맨날 TV 앞에만 앉아 있으니 편하겠구려”라는 가시 돋친 한 마디 말을 내뱉자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당신이 더 편하지 않은가?”라고 빈정거립니다. 이때부터 이들 부부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때 “내가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나 보지?”라고 대답만 했더라도 그들 부부사이의 대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겠지요. 이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하라”(약1:19)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가 말한 것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경우 객관성을 잃은 채 자신만을 변호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부부사이의 대화의 목표는 어느 누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양말을 벗어서 거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릴 때 아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비판하는 대신 “여보, 당신의 양말을 집어 던지는 습관이 점점 걱정이 되네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즉각 대응하는 대신 아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갓패밀리]

저희 부부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 "당신은 맨날 TV 앞에만 앉아 있으니 편하겠구려."

나: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당신이 더 편하지 않은가?"

물론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직장에 다니기에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가정 살림, 그리고 교회 사모로서 섬기는 아내에게 저는 속으로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 비판들을 살펴보면 그 깊은 곳에는 아내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참 계산적입니다. 나 또한 가정 일을 아내를 도와 이것저것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아내는 나에게 불평(?)을 할 때 TV에 앉아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는 그러한 자유의 시간을 못 가지냐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왠지 TV보는 게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아내의 말에 별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화는 나지만 저는 속으로 냅니다. 아내를 향한 별의별 비판의 소리가 제 머리 속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들립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하면서 멈추기가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괴로운 생각 싸움입니다. 이러한 내적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길 기원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아내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 훈련은 내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생각, 즉 말씀으로 죄악 된 비판의 생각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 때도 많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생각(내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아내의 불평에 대한 나의 반응이 감정(예를 들어 분노)적이 될 때는 생각 싸움도 하기 전에 입으로 비판의 소리와 분노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하기를 더디 하라는 성경 말씀이 참 진리임을 경험합니다(약 1:19). 참고 또 참는 가운데 분노의 감정(Feeling)보다 사실(Fact)인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 저의 습관적인 비판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습관적인 비판이 아닌 습관적인 칭찬 및 사랑 표현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갈등

갈등 (1)

부부들이 갈등(conflict)을 다룸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마치 양탄자 밑에 쓸어 집어 놓듯이 잊어버리려 했고 또한 무시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가리켜 '훌륭한 방법'이라고 불렀으며 또한 크리스천이 됨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파묻는 것은 당신 안에서 더 큰 원망을 일으키므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하게 하며 또한 당신의 매일 삶의 관점을 흐리게 합니다. 서로의 다른 점들로 말미암은 갈등을 파묻는 것은 그것들을 살아서 파묻는 것으로써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갈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우리는 갈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의 축복 아니면 갈등의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마음의 원망과 입술의 불평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결심을 한 기억이 납니다: '나는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과거의 일로 원망하며 불평을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과거 부모님의 갈등 속에서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던 원망과 불평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사랑하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부 싸움에서 과거의 역사가 청산유수처럼 나온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이것을 심히 싫어했기에 결혼을 하면 절대 안 하리라고 역반응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만해도 저는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갈등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긍정적인 점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갈등'이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회인가 하면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갈등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이며 또한 서로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징검다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아내와 저는 우리 첫째 아이로 인해 좀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을 통해서 저는 아내와 제 자신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서로의 자라난 배경이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이유는 저는 제 아들이 양보하며 살아가길 원했고 아내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을 양보하는 사람으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문제로 다뤘던 것입니다. 그 때 깨닫게 된 것은 아내는 자라나면서 딸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걸머지고 그 기대에 맞춰 사느라 많은 경우 부모님께 양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내는 첫째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는 दिल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보다 하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신 아버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항상 양보하며 살아가는 인격자 아들을 양육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서로의 자라난 배경에서 받은 영향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로 저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며 사랑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갈등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갈등을 기회로 삼자는 도전입니다. 갈등을 무조건 내가 힘들고 상처를 입고 아프다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등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항상 억누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 큰 원망을 심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존재하는 갈등을 파묻지 말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지혜를 터득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부부 관계나 아니라 모든 인관 관계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 (2)

피할 수 없는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전통적인 방법은 억누르는 것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삼키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에스키모식 해결방법). 또 다른 갈등 해결 방법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오해가 생기면 싸울 자세를 갖추고 말이라는 총알을 쏘아대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내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자신들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냥 남아있고 서로에 대해 상처만 더한 것입니다(카우보이식 해결방법). 현실도피식 해결방법은 갈등을 아예 회피함으로써 처리하는 유형으로, 술을 마신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마약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일에 빠져드는 등 문제를 현실의 도피를 통해서 은폐하는 방식입니다. 최악의 갈등 해결 방법은 바로 폭력적인 해결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불행한 방법으로써 남들을 거칠게 다룸으로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욱하다가 사태가 악화되어 폭력을 쓰게 되며, 원래 야기한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거리감을 발생시키는 유형입니다.

결혼 생활의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해 낸 커플들은 거의 대부분 갈등을 해결하는 실용적 수단을 알고 있고, 결혼의 파경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해독제를 알고 있는데 그 해독제는 바로 “화해 정신”입니다. 이 영향은 사람들을 화해하기 쉽게 만들고 갈등에 대처하는 그들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진정한 화해정신을 가지고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갈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우리 눈이 열려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들이 자신들의 결혼에 대해 매일 기도한다면 결혼 생활의 갈등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할 때 서로에 대해 손가락질 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갈등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지 보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배우자와 정면으로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공식적인 평화 회담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알맞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중립적인 분위기에서 평화 회담을 갖고자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평화 회담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커플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 불가피하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련의 비열한 행위 (빈정담, 빗대어 말함, 뻔뻔함 등)를 금해야 합니다. 평화 회담을 어떻게 해야 하나?

(1) 긍정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바로 문제에 뛰어드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기 내가 생각한 것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평화 회담은 더 화기애애해질 수 있습니다.

(2) 기꺼이 비난을 받으십시오.

혼자서 기도할 때 자라난 통찰력과 마음가짐을 평화 회담에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갈등이 일어나기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책임 없는 비난은 받지 말되, 받아야 할 비난은 완전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사과의 힘은 놀랍습니다. ‘미안해’라는 짧은 말은 사업상 동료와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그리고 결혼생활을 파경에서 구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의사소통의 통화선을 개통시킵니다.

(3) 적개심 대신 상처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문제는 상처 때문에 시작됩니다. 상처는 실망과 곤경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고 그것을 결코 부인하거나 속에 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표현되고 의논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쌓여서 분노로 바뀌도록 놔둘 때 상처가 문제가

되므로 상처가 분노로 바뀌기 전에 평화 회담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상처를 내보임으로써 이해와 연민의 가교를 놓을 수 있지만, 불평을 터뜨리면 그 가교는 폭파되어 버립니다. 상처를 분노로 바뀌게 하는 또 다른 잘못은 불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상처 하나는 다룰만하지만, 상처가 두 개가 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 이상으로 쌓이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막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만이 생기는 대로 바로 처리하십시오.

(4) 직접적으로 말하십시오.

암시나 즉흥적인 말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평화 회담 중이든지 일상적인 대화중이든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십시오. ‘처럼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쓰십시오. 평화 회담 계획이 ‘당신이’라고 시작하는 비난의 말로 와해되어 버리는데 이 말은 배우자에게 적대감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평화 회담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은 적의를 훨씬 적게 일으키고, 계속 의논할 수 있으며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결코’와 ‘항상’을 피하십시오. 불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정확하고 진실 되고 사실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항상,’ ‘결코’는 항상 진정한 문제로부터 초점을 이동시켜 버립니다. 부당하게 비난을 받은 배우자는 아마 원래의 문제는 제쳐두고 그들 관계의 갈등이 상대방의 서투른 의사소통 기술 때문이라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5) 좋은 생각이 있어!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평화 회담에 임할 때, 앞의 방식을 사용하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을 때 계속 되던 의견 충돌과 실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6) 진실한 순간

과거의 커다란 상처를 주었던 문제들과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들은 평화 회담 중이더라도 서로 최악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는 평화 회담 과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즉 서로 대화 중에 서로 이해하는 것보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나타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도피하든지, 대화를 그만두고 싶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대화 테이블에 남아 있으면서 ‘오늘은 1인치 진보를 이루었어. 아마 내일도 1인치 더 앞으로 나가게 될지 몰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평화 회담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신뢰하는 친구나 커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줄 친구들이랑 모여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존경하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8)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아직 친구들과 믿을 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 다 마음 편히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그리고 그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때는 카운슬러에게 가보십시오.

정신 나간 주기

(Crazy Cycle)

“그로부터 사랑이 오지 않으면 그녀는 존경 없이 반응하게 된다. 그녀로부터 존경이 오지 않으면 그는 사랑 없이 반응하게 된다. 그것은 계속해서 순환한다. 나는 그것을 ‘정신 나간 주기’라고 부른다”(에거리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성경 말씀은 명확히 우리 부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에베소서 5장3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자신 같이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입니까?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들이 부부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때에 각자의 필요인 사랑(아내) 또는 존경(남편)이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의 필요인 존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에 남편을 존경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는 서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정신 나간 주기’(Crazy Cycle)가 부부 사이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남편으로서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에베소서 5장 25-31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 사랑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교회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존경하든 안하든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임조차도 많은 믿는 남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왠지 많은 때에 아내하고 충돌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아내가 분노 가운데서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쏟아낼 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상황에서 주로 동굴로 들어갑니다.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침묵할 때에 아내는 무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자는 자기의 가치를 남편이 하찮게 여긴다는 느낌도 듭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랑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주로 선택하는 접근 방법은 남편을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에거리치). 그리고 이러한 비판과 불평을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멸(contempt)로도 해석합니다(에거리치). 그러나 실제로 아내의 비판과 불평은 남편에게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는 표현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침묵하는 남편과 불평하는 아내, 결국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사이에 지속되는 침묵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는 정신 나간 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신 나간 주기를 의식하고 깨트려 버리는데 부부가 다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부부 관계에서의 존경하지 않음과 사랑하지 않음의 순환을 그냥 방치해 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부부들은 더 이상 정신 나간 부부들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부부로 거듭나는데 재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아내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알아가는 가운데 아내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조건 없이 존경해야 합니다. 결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내가 남편을 존경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아내 또한 남편을 존경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5:33). 그리고 아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남편

을 존경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알아가야 합니다.

남편, 아내 둘 다 자기의 장점들을 좀 내려놓고 자기의 단점들을 개발해 나아가야 합니다. 즉, 남편은 자기의 장점인 다른 이를 존경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자기가 잘 못하는 사랑을 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사랑 하는 것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남편에게 똑 같은 사랑을 기대할 때에 그녀를 만족케 할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점을 좀 내려놓고 아내는 자기가 잘 못하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그 제도 아래 남녀를 부부로 짝지어주신 것을 보면 우리 부부들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서로의 장점에게서 배워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배우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배우는 부부 관계,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과 아내로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하기 위해 암호를 해독하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들은 것이 아니며, 당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신 나간 주기(Crazy Cycle)에서 계속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대화 문제입니다. 그 대화 문제는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남편이 공감해 주길 바라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녀의 느낌을 공감하기보다 오히려 아내가 자기에게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불만족 속에서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남편의 말 또한 아내가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남편은 스스로 혼자 고민하다가 (이것 또한 아내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말을 해서 함께 고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말을 꺼내 얘기할 때에는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므로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내는 오히려 남편의 의중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므로 남편을 세우기보다 남편으로 하여금 더 혼자 침묵하며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서 남편이 말하는 의중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많은 여인들은 남편의 말을 자기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녀 둘 다 자기중심으로 서로의 말을 듣고 있기에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정신 나간 주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정신 나간 주기에서 헤어 나오려면 서로의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대화법을 배워야 하며 아내는 남편의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대화법을 좀 내려놓고 먼저 마음과 귀를 열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속히 해야 합니다.

다(약1:19). 즉,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남편은 좀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아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도록 애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아내로부터 감수성을 민감하게 해야 합니다. 지적 개발보다 감수성 개발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내로 하여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 또한 자기의 감정적인 대화방식을 좀 내려놓고 남편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감정보다 지적 개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감정적으로 듣기보다 논리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편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듣고 또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엇갈리는 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정신 나간 주기 속에서 허덕이기보다 남편은 존경을 받고 아내는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며 또한 만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성숙한 부부 관계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아내와의 대화

“우리가 배우자의 시각을 고치려고 서두를 때는 상대의 고통에 동감하기보다 오히려 옳고 그름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아내와 대화할 때 여유를 갖고 듣자(서두르게 해결 제시를 하지 말자).

아내의 감정에 먼저 공감하자(아내의 입장에 듣고 아내의 고통에 동감하자).

그런 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성경 말씀을 나누자(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자)

남편과의 대화

“남편들이 침묵할수록 아내의 공유하며 확인하고 싶은 욕구는 더욱 가중된다. 그리고 아내가 요구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아내들은 남편의 침묵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 못하고 아내들이 계속 공유고 확인하고 싶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면 그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더욱더 침묵하게 만들 것이다. 침묵도 남편들에게는 대화의 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의 침묵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하여 의심과 불신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내들은 남편의 침묵 대화법을 배워야 한다.

가정 이야기: 세상에서 최고의 만찬

2008년 6월 3일

Tony Roma's라는 식당을 아십니까? 제가 그 식당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11년 전입니다.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하와이 마우이(Maui)로 갔었는데 아내가 Tony Roma's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처음으로 그 식당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신혼 때라 아내랑 함께 하는 것이 마냥 좋았기에 Tony Roma's이든 어느 식당이든 전 그리 상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때 그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후 약 2년쯤 지나서 아내가 UCLA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UCLA 대학원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 때 하루는 임신한 제 아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제가 앉아 있던 거실로 와서 꿈속에서 Tony Roma's에서 Ribs을 먹는 꿈을 꿴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Tony Roma's 식당이 하와이 마우이(Maui)만 있는 줄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 '이 여편네가 임신하더니 별 소리를 다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때 아내는 별 반응이 없는 저를 보고 부엌으로 향하면서 "구워 먹을래?"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주로 주일 저녁에는 집으로 와서 장모님이 애리조나에서 보내주신 갈비를 구워서 쫄면과 함께 먹곤 하였습니다. 제가 면을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하하. 그래서 저는 아내가 갈비를 구워 먹을래 라고 저에게 물어본 줄 알고 저는 아내를 사랑한답시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Its' okay"(괜찮아)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아내를 생각해서 힘들까 봐 갈비를 굽지 말고 대충 먹자는 의도로 "It's okay"했는데 그냥 울며 방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아내는 저에게 "구워 먹을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거 먹을래"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아내는 부엌으로 가면서 꿈에서 Tony Roma's에서 Ribs을 먹는 꿈을 꾸는 것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ㅎㅎ 그래서 아내는 "그것 먹을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저희 부부

가 살고 있었던 UCLA 대학원 아파트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 있는 Tony Roma's 식당에서 Ribs를 먹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때 처음으로 Tony Roma's가 하와이 마우이에만 있지 않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 5-10분 거리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도 그 식당이 있더군요. ㅎㅎ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의 오해를 풀고 저희 아파트 근처에 있는 Tony Roma's 식당에 가서 아내가 꿈속에서도 먹고 싶어 했던 Ribs를 주문해서 함께 웃으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록 음식은 만찬이 아니었지만 임신한 아내가 꿈속에서도 그리 먹고 싶어 했던 Tony Roma's Ribs에다 임신으로 배가 부른 가운데서 음식으로 더 배가 부른 아내의 모습과 만족스러워 하는 밝은 미소를 보았을 때 그 식사는 적어도 저에게 있었던 세상의 최고의 만찬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

“The cost of forgiveness is great, but the harvest of forgiveness is a beautiful thing”(용서의 값은 크지만 용서의 수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Paul David Tripp, “What did you Expect?”]

용기를 내어 용서하며 용납하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녀 앞에서 그/녀의 잘못함의 많음과 크기를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사랑하는 그/녀를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 그/녀를 마음으로 용납하여 전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를 놓치지 말고
용서해야 하는 사람에게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용서하기

[이 글(1) ~ (3)은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토대로 YouVersion Korea에서 섬기고 있는 이윤선 간사님이 쓴 글들입니다.]

배우자 용서하기 (1)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장 32절).

“용서가 잘 안됩니다. 내게 잘못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참습니다. 성경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전 13:4)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또 입힙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 구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나에게 잘못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싫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서로에게 무수히 잘못합니다. 아니 부부는 서로에게 무수히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각자의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돌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두 죄인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죄인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죄를 범할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그렇게 무수한 잘못과 죄를 범한 후에도 서로를 잘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도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만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를 더디 하고 또,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bitterness)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자 용서하기 (2)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태복음 6장 14-15절).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서로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한 잘못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서로를 비판하며 정죄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의”(self-righteousness)를 서로에게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 잘못하고 상처를 입힌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므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마다 판단하고(마음으로라도) 비판하며 심지어 정죄까지 하면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가 옳다는 것은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처와 쓰라림 속에서 자기 배우자

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지적과 비판과 정죄를 배우자에게서 받는 상대 배우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상대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 등이 계속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를 향해 폭발할 것이고 그들의 부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 용서하기 (3)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누가복음 11장 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5). 부부는 서로에게 잘못했을 때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미안하다(I am sorry)’라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I am wrong)’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되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헌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은 이기적이라 내 잘못보다 상대의 잘못이 더 크고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상대방을 용서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기를 더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의 최악 된 이기적인 본능과 싸워 이겨서 내 배우자

를 용서해야 하니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값을 치러야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막8:34). 그러나 이렇게 큰 값을 치러 내 배우자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수확은 아름답습니다. 내 배우자가 큰 값을 치루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상대 배우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합니다(엡4:32).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수히 죄를 범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을 믿으며 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눅11:4).

배우자 용서하기 (4)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누가복음 7장 47절, 현대인의 성경).

전에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제일 큰 위로자(encourager)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나에게 제일 큰 낙심케 하는 자(discourager)도 된다.’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Jane,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당신의 말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찔러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그랬더니 그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나에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말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 진짜 내가 자기가 한 말에

상처 입은 것을 몰랐다 말인가? 그럼 앞으로도 내 마음이 아프면 솔직하게 아프다고 아내에게 말해줘야겠다.’ 그 때 그 대화 이후 저희 부부에게는 계속해서 부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나마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더 잘 생각(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금이나마 전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된 점들을 터놓고 조심히 그리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상처가 아프고 힘들기에 위로 받기를 원하며 또한 치유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그러한 본능조차도 무시된 것처럼 아무 위로와 치유가 없이 우리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상처가 한두 개 계속해서 쌓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상처로 인하여 그 쌓인 상처들을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폭탄처럼 터져서 부부 관계에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마치 지뢰밭에 숨겨져 있는 폭탄들을 제거하듯이 우리 부부 사이에 깊이 숨겨져 있는 폭탄들을 발견하여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배우자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폭탄 제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되 우리는 폭탄제거기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탄제거기란 바로 “용서하기”입니다. 우리 마음 밭에 있는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선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우리는 우리 배우자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용서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배우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먼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자 자기 집으로 초대한 “한 바리새인”이 자기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36절).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37-3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죄인”인 여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눈물로 자기의 발을 적시며 머리로 자기 발을 닦고 또한 자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놔두시고 심지어 향유를 자기 발에 붓는 것을 그리 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됐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이시라면(신18:18)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을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만지도록 그냥 두실까 그 바리새인은 아마도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죄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인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자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마음속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 죄인 여자를 부정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그 죄인 된 여인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막지 않으시고 그녀가 자기 발에 행하고 있었던 일도 허락하고 계셨으니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 남녀가 결혼에서 함께 살다보면 서로에게 놀랄만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혼 전 연애했 때에는 몰랐던 점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난 후 그런 점들이 들춰지고 두 눈으로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했 때에는 몰랐던 점들인데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그 점들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었을 때 좀 놀라고 충격 받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알게 된 점들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망하며 또한 그 점들을 문제 삼아 부부 관계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참고 인내하며 많은 때에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잘 보이는 그 문제점들로 인하여 우리 부부는 서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부부는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때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을 하므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말한 자신은 모를 수 있겠지만). 물론 서로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꼭 상대방이 한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부는 충분히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므로 말미암아 각자 마음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비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비판합니다(마7:1).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서로 업신여깁니다(롬14:3). 또한 우리는 서로 헐뜯기까지 합니다(약4:11). 심

지어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눅6:37).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서로의 약한 점을 용납하지 않고 서로의 말까지도 비판합니다(롬14:1). 그리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됩니다(약4:11). 이 지경까지 오면 우리는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배우자 앞에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녀 앞에서 그/녀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많음과 죄의 크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많음과 크기를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깨달아 알면 알아갈 수록 우리는 우리 배우자의 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살펴 볼 시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배우자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을 보십시오: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36절)인 “시몬”(40절)이라는 사람에게 한 말씀으로써 “빛 주는 사람”이 “빛진 자” 두 사람(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 또 다른 사람은 50 데나리온)이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둘 중에 “누가 그(빛 주는 사람)를 더 사랑하겠느냐”였습니다(41-42절). 그 때 시몬의 대답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였습니다(43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39절) 취급한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왜 예수님께서서는 탕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47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현대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시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47-48절).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이유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47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되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우리 배우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용서 구하기를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기회를 놓쳐 우리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배우자 앞에서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눅 10:29). 즉, 우리는 우리 배우자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justify) 시키려고 해서 우리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보지 못하고 우리 배우자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더 많이 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용서 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진정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배우자에게 다가가 겸손히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만일 우리 배우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마음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우리를 마음으로 용납하여 전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과 배우자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범한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도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도 진정으로 자기가 회개하였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자기 남편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변화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내는 사랑하는 그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그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로 자기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특히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한 많은 큰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고 크다는 사실로 인하여 말미암아 사랑으로 자신의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내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용기

를 내어 용서하고 아내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 많음과 죄의 크기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많고 큰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가정 이야기: **Forgiving is powerful.**

2009년 8월 9일, 주일.

오늘 오전 교회 목양실에 있는데 한 어린아이의 서럽게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자세히 듣고 보니 저희 집 첫째 딸 예리의 서럽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우는 소리는 아마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5분도 안 되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저는 사랑하는 딸의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리에게 가고 싶었지만 여전도사님도 화장실 앞에서 예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아내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 달라는 아내의 소리에 예리는 계속 서럽게 울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한 2-3분 지나서야 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채 저는 중보기도 시간이 되어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보기도 및 한국어 예배, 점심 식사, 영어 예배, 교사 성경공부 및 교역자 모임을 다 끝나고 나서야 교인들이 거의 다 갔을 때 저는 예리를 불러서 목양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울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리는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도 누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영어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Are you okay now?"(지금 너는 괜찮느냐?)라고 물었더니 "I am okay"(난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예리에게 잘 했다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것 잘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예리는 대화를 마치면서 저더러 엄마에게 다 얘기했으니깐 엄마에게 들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몇 시간 흘러서 제가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랑 예은이는 부엌에 있고 딜런은 화장실에 양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리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겠지 하고 옷을 갈아 입으려고 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 숨어 있다가 예리가 저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ㅎㅎ 그래서 제가 예리에게 침대에 아빠 옆에 앉으라고 한 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 생각을 짧게 나눴습니다. 한 마디로 "Forgiving is powerful"(용서는 강력하다)라

고 말해 주면서 저는 예리에게 "I am proud of you"(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지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부엌에 다 모여 있었을 때 다들 좀 앉으라고 말한 후 내가 중요한 말을 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예리에게 말해 주었던 "Forgiving is powerful"라고 말하면서 예리가 자랑스럽다고 다시 가족들 앞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와 싸워서 아빠가 엄마를 속으로 미워하면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요 그러나 아빠나 엄마가 서로를 용서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 또한 예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었기에 예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으로 보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힘은 powerful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재헌신했습니다. 아빠보다 훌륭한 예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잠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Trust not only needs to be build, but it needs to be protected”(신뢰란 두텁게 쌓아야 할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필요가 있습니다)[Paul David Tripp, “What did you Expect?”]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같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선불리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남편/아내가 다른 여자/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번 바람을 피워 부부의 신뢰 관계를 깬 배우자를 다시금 신뢰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이어 주신 우리 배우자와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을 때에야 만이 수평적인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바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명철(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 만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 신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요2:24).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24-25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들은 서로를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되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신뢰를 주면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만 신뢰를 주기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그 사랑하는 사랑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장차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의 신뢰를 깨고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그 사랑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뢰를 깨고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명철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면 우리는 불신 속에서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줬다가 배반당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누군가를(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기에 우리 배우자에게 신뢰를 주기보다 그/녀에게 신뢰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그/녀에게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된 부부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 중심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주기보다 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이기적일 수밖에). 그러나 만일 우리 부부 관계가 하나님 중심된 부부 관계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주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이타적일 수밖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는 먼저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또한 먼저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줍니다. 그러다가 실상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된 부부는 자기 백성에게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우리의 명철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그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서로들 앞에서 진실 돼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빌1:8)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솔직하고 분명하며 투명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되 우리는 ‘나-중심’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상대방-중심’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원해서 말을 하기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길 원하여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상대방을 조종하여 그/녀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 내고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나님을 조종하며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고 분명하며 투명한 기도를 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솔직하고 분명하며 투명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시 15:2).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잠 12:19).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듯이(시 33:4) 우리도 다 진실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그/녀하고 한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요일 3:18).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잠 25:19).

넷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충분히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므로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발전되어 그들은 서로를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서로의 마음에 불만족을 만들어 내며 결국에는 입술로 서로에게 불평하게 되며 또한 서로에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음에 있는 이러한 불만족은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핑계를 되면 거짓말을 한 것을 합리화를 시킵니다(선한 거짓말이라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무익한 것입니다(렘 7:8). 우리는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레 19:11, 골 3:9).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뱉었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잘못된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다시는 똑 같은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그/녀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가 잘못된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

서하되 우리는 그/녀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기록해 놓으면 아니 됩니다(고전13:5). 하나님께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우리) 죄악을 지워주”신 것처럼(시 51:1) 우리는 그/녀의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서 다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그/녀를 신뢰하기로 재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어느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미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한 4가지로 나뉩니다(인터넷):

- (1)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때렸으니 두고 보자 형: 이는 아동기 때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 (2) 해준 게 뭐가 있냐는 형: 이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부모님들의 속물근성이 지나쳐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경우입니다.
- (3)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는 형 -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열등감이 지나친 아이들에 해당됩니다.
- (4) 나를 잘못 키웠다 형: 부모님들에게 심한 구속을 받은 과잉보호 자녀들이나 애정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내성적이고 외톨이로 밖에서는 양전하지만 가정에서는 반항적이고 기물 파괴, 폭행, 증오심, 폭발, 폭군 등의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외톨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 현상은 부모의 과잉보호와 너무 사랑한 결과로 생기게 된 것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만든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제 학생 뒤에는 언제나 문제 가정,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기능가정의 모습은 사랑, 가정의 평화, 부부간의 화목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가정의 모습은 가정의 평안이

나 부부간의 화목이 있기보다 갈등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기능가정을 길가, 돌밭, 가시 떨기 밭으로 비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기능가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어린아이가 바르게 양육될 수 없는지 한 5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넷):

(1) 역기능가정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합니다.

역기능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해야할 성인이 문제를 안고 있어서 오히려 자녀들이 그 성인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순기능 가정은 이와 반대입니다. 순기능가정은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2) 역기능 가정은 감정의 표현을 많이 제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묻어두어야 합니다. 역기능가정은 왜곡된 신앙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신앙을 접하면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성인아이가 신앙을 가질 때 자꾸 왜곡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3) 역기능가정은 어떠한 분명한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막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억압, 무관심, 덮어두려고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습니다.

(4) 역기능가정은 가족 내의 자녀들에게 생존역할을 강요합니다.

가족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복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역할이 강조됩니다. 부모가 콤플렉스가 많아서, 자녀를 대리인으로 자꾸 세우려 합니다. 부모의 욕구불만에 의해서 억압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희생양을 강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책임을 떠맡깁니다. 자녀들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5) 역기능가정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공급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 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합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인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 격분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욕박지름으로, 화를 냄으로, 자극적인 말을 함으로, (2) 잘못된 징계, (3) 부모가 인격적으로 형편없이 살면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4)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여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다루거나 자녀를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피종진).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을 보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언제 화나게 하며 낙심시키는지 한 6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 말과 행동을 달리 하는 것, (2) 항상 자녀들을 원망하면서 절대로 칭찬을 안하는 것, (3) 일관성이 없고 징계에 있어서 불공평 한 것, (4) 집 안에서 편애를 하는 것, (5) 약속을 한 후 지키지 않는 것, (6) 자녀들에게 있어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 제 생각에는 이것들 외에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그들은 노여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5장 25-33절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는 성령 충만한 아버지를 가정의 삶 속에서 보지 못하므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집에 영적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바울 시대 때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 앞으로 그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만일 아버

지가 그 아기를 집어 올리면 그것은 그 아기를 자기 집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 아기를 집어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기가 거절을 당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절을 당한 아기는 팔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햇볕에 드러내 놓고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부모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자녀들을 학대하는데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에 반대말은 자녀를 격려(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1)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의 아빠, 엄마로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22-32절에서 아내(엄마)는 남편(아빠)에게 복종하는 모습, 남편(아빠)은 아내(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 부모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26-27절을 보면 먼저 남편(아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아내(엄마)를 또한 그렇게 지도하므로 부부(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자녀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결코 말만 거룩한 척하면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보여주면 안 될 것입니다.

(3) 자녀들에게 복돋아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즉, 자녀의 좋은 점을 칭찬하라는 말입니다. 복돋아주는 메시지는 자녀가 보기에 자신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독립성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제임스 L. 웰러는 그의 책 “상처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치감과 자아 존중감”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자기 정의를 지지받지 못한 사람들은 때때로 불안감을 느끼면 쉽게 흔들린다. 격려와 후원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이 억세게 몰아쳐도 아주 견고하게 설 수 있다.”

둘째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강건하게 하며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5장29절에 나와 있는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는 가정에 영적 지도자로서 아내를 양육 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1)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in the training of the Lord)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께 징계를 받아 고치심을 받은 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지혜로운 길 또는 경건한 삶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저는 특히 제 자녀들과 교회 자녀들에게 3가지를 가르치려고 부족하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 바른 가치관(Right Value), (2) 뚜렷한 목적관(Clear Purpose) 그리고 (3) 영원한 인생관(Eternal View of Life)입니다.

(2)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로(in the instruction of the Lord) 양육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충고하며 경고하며 또한 권고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자녀들을 버릇없게(spoil)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해야 할까요? Tedd Tripp은 그의 책 “Shepherding a Child’s Heart”에서 한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Rich, full communication(대화를 충분히 하는 것)과 The rod(회초리).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은 회초리보다 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우리가 자녀들과 할 것입니까? 한 3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1)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자녀들과 얘기해야 합니다(Don’t talk to your children; rather, talk with them). (2) 부모는 자신의 생각만을 표현하지 말고(잠18:13) 자녀로 하여금 그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Don’t just express your thoughts only; rather, learn how to draw out their thoughts). (3) 부모는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Focus on understanding your children).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그들의 감정을 터뜨리는지 이해하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훈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훈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는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 점잖은 교훈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인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좇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로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리더십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로 부터 원하는 결과를 바로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진재혁,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과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남편)들에게 권위(authority)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야(lead)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authoritarian father)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로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행동이나 결과는 바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abuse)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할 때 우리는 결코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다보니 자녀들도 어머니를 본받

아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위가 남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신뢰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자녀들을 신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빠른 결과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을 신뢰하는데 헌신할 때 점진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해야 한다.

특히 아버지들은 아들들하고 마음 문을 열고 일대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말이 없는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화보다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가 이뤄질 때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장들이 자녀들을 잘 이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의 행복 방정식

“한국 부모들은 대체로 최고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며 또 그렇게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한국 부모들의 행복 방정식은 곧 성공이다.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진재혁,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 열심, 그 목적은 자녀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해서 일류대학을 가고, 일류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공부” “공부” 또 “공부”라는 소리를 수 없이 듣고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공부가 다인가요? 학원에 가서 밤 10시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 과연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성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관”이 비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자녀들의 성공, 그들에게 최고를 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최선이 저는 성경에서 빛나간 성공관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부를 잘해서 일류대학을 가고, 일류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잡아 출세하는 것인가요? 출세한 후 자녀들이 그 위치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풍족한 생활, 아니면 적어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들의 뜻을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자녀들

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은 결국은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며 자신들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곧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성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창39:2). 어떻게 요셉이 성공한 자인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 하다가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 그를 섬기다가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약 2년 갇혀 있었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고생한 자요 불행자이지 결코 행복한 자요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한 자”(2절), 즉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45:5). 누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인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의 생명과 그들의 후손들의 생명입니다(7절).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5, 7절). 그러므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자, 즉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성경적인 성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부모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은 부모의 사랑이란 명분 아래 당신의 뜻을 자녀들에게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결코 행복은 공부를 잘해서 일류대학을 가고 일류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이러한 세상 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창39:2, 3, 23; 수1:5, 9).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므로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패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잠언 5장 11-14절).

저는 세 자녀들을 둔 아버지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딜런, 예리 그리고 예은이가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 비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제 자신이 사춘기 때 비뚤게 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 세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만 미래 일을 알 수 없기에 저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1-14절을 보면 잠언 기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자기가 죽고 나서 아들이(1절) 나이 들어 몸(육체)이 쇠패할 때에 (11절)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잠언 기자가 두려워했던 아들의 후회하는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왜 내가 부모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며 가볍게 여겼는가?’(12절)와 (2) ‘왜 내가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는가?’(13절). 우리 인생의 여정에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바로 부모님과 의 만남과 선생님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 두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우리의 삶에 제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끼치는 부모님의 영향은 선생님의 영향보다 더 크고 엄청납니다. 물론 선생님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부모님의 훈계와 꾸지람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영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서는 부모님의 교훈과 꾸지람을 싫어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잘되라고 교훈하며 꾸짖으신 부모님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바램과 달리 우리는 비뚤어진 길로 가며 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제자가 최악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길 원하겠습니까? 지금 잠언 기자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후 아들은 나이가 많아 육체가 쇠패할 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부모님의 교훈과 꾸지람을 싫어하고 가볍게 여긴 것을 후회하며 또한 선생님의 가르침에 청종치 아니한 것을 후회하면서 모든 악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잠언 기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님의 교훈과 꾸지람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은 결말이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잠언 기자와 같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미 두려워하던 일이 이미 현실로 일어났습니까?

과연 저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언 기자처럼 “내 지혜”와 “내 명철”(1절)을 세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 지혜와 명철을 세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까? 물론 저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그 보다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과 세 자녀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제 마음은 세 자녀를 향한 이 아버지의 두려움이 현실화되지 않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창세기 39장2-4절).

제 마음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란 작년 7월 첫째 주 일 오후 1시 30분에 하나님께 드렸던 장학 예배 도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하여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그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어머니는 자기의 손을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 얹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시는 어머니인데 자녀를 위하여 저렇게 무릎까지 꿇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예수님을 믿든 아니든 다 동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녀가 다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 ... 과연 자녀들이 다 잘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만사형통인가요? 아무 문제없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뜻대로 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은 매년 이맘때면 성경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맘때에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형통한 자)가 누구인지를 제 자신에게 상기시킴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자와 구분하곤 합니다. 그러면 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원하곤 합니다. 그런데 새해 2012년을 맞이하여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도제목은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입니다.

창세기 39장 2, 3, 21, 23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다’입니다. 지금 요셉은 원치 않게 자기 아버지 야곱과 떨어져 이방인 나라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와 있습니다. 주위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2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형통의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과 평생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루도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의 첫째 아기 주영이가 중환자실에 살아 있을 때 저희 부부가 아이와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어 밤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병원에서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거의 매일 밤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또는 “Hide Me in the Shelter”)이란 영어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는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영이를 품어 주시사 보호해주시고 지켜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육의 자녀뿐 아니라 영의 가족인 교회 모든 자녀들을 포함해서)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실 때 그들은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 주세요’입니다.

창세기 39장 4,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4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14-18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20절) 전옥(the chief jailer)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21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이미 은혜를 베푸시사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자식들과 아내들을 주시고 또한 그를 심히 풍부하게 하셨습니다(30:43). 야곱은 그 모든 식구들과 노비와 양떼와 약대와 나귀들을 다 데리고 다시금 그의 조상의 땅 그의 족속에게로 돌아가고 있는데(31:3, 18) 에서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온 것입니다(33:1). 약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던 그의 형 에서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왔으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8, 10, 15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로 하여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나가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서 은혜도 입게(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은혜를 입게(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인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던 죄수 요셉으로 하여금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요셉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선생님/교수님과 상관에게 은혜를 받는 자녀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그 불신자 선생님/교수님, 직장 상관 등 그들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39:5).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주세요’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보디발이 요셉으로 “가정 총무”(personal servant)으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합니다. 보디발은 히브리 종(17절)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되(5절) 아무 것도 요셉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뿐이었습니다(9절).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6절) 요셉을 유혹하되(7절) 요셉이 거절하니까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

하자고 유혹합니다(10절). 그러던 중 그 집에 단 둘이만 있게 되었을 때(11절)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12절). 그 때 그녀는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간코자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14절)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15절). 그리고 나서 그녀의 남편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보디발에게 또 다시 거짓 증거를 하여 결국에는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옥에 넣게 만들었습니다(20절). 그러나(영어 성경 21절, “But”)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 위기 가운데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므로(21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22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보디발과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가정 총무로, 그리고 옥에 갇혀있을 때에는 옥중 죄수들의 제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하는 사람으로 높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왕 바로의 총리로 높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으로 바로의 집과 옥중 죄수들을 관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나라를 관리하며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새해 2012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란 기도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젠 제가 장성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게 만드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 및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보존)하시사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신 것입니다(45:5, 7).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그와 함께 하시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로 하여금 보디발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옥에서 죄수들의 제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하는 자로,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높이(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통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

[역대상 22장 5-16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요즘 의도적으로 가정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들 중 어제는 “아들을 위하여”라는 책(저자: 찰리 웨드)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웨드 목사의 성년이 된 아들 필립이 결혼을 하기 몇 주일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님, 어떻게 해야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는지 저 한테 편지 좀 써 주시겠습니까?”라는 요청에 의하여 쓰여진 편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아들 딜런에게(그리고 두 딸인 예리와 예은이에게도) 이 메일을 쓰는데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 다. 특히 요즘 아들 딜런이 엄마와 함께 새벽기도회에 왔다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아내가 곧장 교회에서 직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딜런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비록 짧은 20분 시간이지만 아들과 대화를 좀 더 시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는 아들 딜런에게 그 어린 6학년 나이에 새벽기도회에 꾸준히 나오는 것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이 아빠는 전도사가 되어 교회 2층에서 자면서도 3층에서 드린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인 딜런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딜런에게 이 아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제 아들 딜런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거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딜런”(Dillon)이란 이름 뜻인 “진실하고 신실하다”(truthful and faithful)란 뜻대로 “하나님, 딜런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대상 22장 5-16절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또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생겼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 제 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면서(6절) 자기가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7절) 전쟁들을 통하여 피를 심히 많이 흘린 고로(8절)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10절)을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후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11절).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때에 그는 형통(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1절).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참고: 창세기 39, 45장). 그러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였습니다(11절).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과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Build His Church, Build His Kingdom!) 쓰임 받는 하나님의 왕국 일군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성공)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 제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기(축)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길 원했습니다(12절).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대하1:7)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Give me wisdom and knowledge, that I may lead this people)라고 말했습니다(10절).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와 지식을 구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 제목이 아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대상22:12). 그 래서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길 기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왕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 중 하나였습니다. 곧 왕은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신 17:18-19). 그 이유는 그리할 때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20절).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성공)할 수 있기에(13절)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한 것입니다(12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사람인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과 안정을 주셨습니다(9절).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므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 제 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역대상 22장 13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찌어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young and inexperienced)한 줄 알았습니다(5절). 그런데 그가 건축해야 할 하나님의 전은 극히 장려하고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했기에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with great pains) (14절)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하였고 (4절) 금, 은, 놋과 철 등을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습니다(14절). 또한 그는 많은 공장들 곧 석수들과 목수들과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을 예비했습니다(15절). 한 마디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습니다(5절).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찌어다”라고 도전한 것입니다(13절).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길 기원하였습니다(16절).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바라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어 극히 장려하고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힘써 일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과연 나는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과연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딜런, 예리, 예은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만한 가르침을 나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여태껏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마다 나 자신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3가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했었다: 바른 가치관(Right Value), 뚜렷한 목적관(Clear Purpose), 그리고 영원한 인생관(Eternal View of Life).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한 5가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되었다.

첫째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좋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은이나 금이나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favor)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노아가 생각난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favor)를 입은 자였다(창6:8).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였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9절). 나는 딜런, 예리, 예은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길 원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인정하는 좋은 이름(good name)을 가진 딜런, 예리, 예은이가 되길 기원한다.

둘째로, 주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다 지으셨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이나 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 풍부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한 궁핍하게도 살아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풍부함이나 궁핍함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빌4:11). 다시 말하면, 빈부가 섞여 사는 이 세상에 딜런, 예리, 예은이가 살아가면서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기원하는 것이다.

셋째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숨을 때는 숨어야 하고 피할 때는 피할 줄 아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싶다. 닳듯처럼 사울에게 피하면서 굴에도 숨을 줄 아는 자들로 말이다. 무모하게 자기 자신을 해하며 생명을 위기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양육하고 싶지 않다.

넷째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크리스천 덕목에 있어서 겸손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길 원한다. 그러한 가운데 딜런, 예리, 예은이도 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 있길 원한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딜런, 예리, 예은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마지막 다섯째로,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5절을 보면 성경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를 징벌하신다. 그 징벌은 바로 가시와 울무이다. 나는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가 가시와 울무같은 길을 걷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그 세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자들로 양육하고 싶다. 나는 그들이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패역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도를 걷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주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세 자녀인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에게 그들이 늙어서도 떠나질 않을 마땅히 행할 길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많이 들춰졌다. 그 아이들이 늙었을 때에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텐데, 죽기 전에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쳐야겠다. 재물보다 명예를, 빈부보다 주님을, 어리석음보다 슬기로움을, 교만과 악보다 겸손함과 하나님 경외함을, 그리고 패역한 자보다 영혼을 지키는 자로 잘 양육하여 그들이 늙어서도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잠언 17장 2절).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를 보니까 “자녀 양육의 방법보다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제목 아래 글이 있어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글 내용은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 원칙”이란 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인터넷). 이 책에서 저자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잘 배워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 방법론이나 스킬보다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훈련함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와 훈련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한 8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모범을 통한 교육과 즐거운 가족 시간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2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말씀을 계속

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가치를 더욱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양육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전 보다 더 생각하게 되고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 잠언 17장 2절에서 솔로몬 왕은 슬기로운 종, 즉 지혜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잘 다스리므로 그 아들의 형제처럼 유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대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주인에게 유업을 나눠 얻는다는 말을 지금 솔로몬 왕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그의 주인에게 아들처럼 유업을 나눠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종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종(또는 슬기로운 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지혜”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란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 19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6:20). 그 좋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17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주인의 아들처럼 자기도 유업을 나눠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근심이요 그 어머니의 고통이라고 잠언 1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므로 그의 아버지의 근심이요 그의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미련한 자를 낳는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또한 미련한 자식을 둔 아버지는 낙이 없다(the father of a fool has no joy)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미련한 자”란 히브리 원어는 ‘이해가 느리고/둔하고’(dull), ‘우둔한/멍청한’(thickheaded)라는 의미며 두 번째 “미련한 자”란 단어는 ‘영적 통찰력과 예민함이 부족함’(one who lacks spiritual perception and sensitivity)을 뜻합니다(Walvoord). 즉, 미련한 자식은 둔하고 멍청할 뿐만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예민함이 부족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므로 부끄러운 짓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근심이요 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근심과 고통이 되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삶의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는 먼저 우리 부모가 적어도 한 3가지를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16:20).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합니다(10:8).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9:9).

(2)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4장 7절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7절). 만일 우리가 미련한 자를 떠나지 않고 사귀게 되면 우리는 해(고통)를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13:20).

(3)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가 지혜가 부족함을 말씀 목상을 통하여 깨달아 갈 때 우리는 더욱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6절을 보십시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라.” 여기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은 좁게 해석한다면 손자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기쁨과 위엄(joy and dignity)을 준다는 말입니다(Walvoord).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한다면 후손들은 조상에게 면류관이란 뜻으로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수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신앙과 경건한 영향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므로 나타나되 그것이 자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MacArthur).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 때 그 부친에게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 때에 그 선조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길을 걸다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참고: 16:31)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우리가 걸어온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겠습니까? 물론 자녀 양육이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생산될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본도 제대로 잘 보여 주지 못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은, 부모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도 그들이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본받아 올바르게 살아만 간다면 이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시는(가셨던) 이러한 부모님이 계시다면(계셨다면) 성경 잠언 17장 6절 하반절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은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삼 세대가 등장하는데 손자는 할아버지의 기쁨과 영광(“면류관”)이고 아버지는 그 자녀의 자랑스러움(pride)이라는 사실이 흥미롭고 참

귀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고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는 가정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손자)의 관계,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삼 세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므로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니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엡 6:4).

셋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친구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저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겠지만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대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대학교에 가서 좋은 교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지만 더 나아가서 좋은 룸메이트,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신앙 좋은 친구들을 만남으로 우리 교회 대학생들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7절 상반절에서 솔로몬 왕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친구의 사랑이 더욱더 빛을 발함을 말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을 보십시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이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이러한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이러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므로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구 사랑 외에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 우애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고 성경은 말

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한 혈통에 속한 형제들은 환란 때에 자발적으로 서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박윤선).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들끼리 자발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 부모가 양육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도 귀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들 때 형제들끼리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는다는 것은 참 귀한 형제 우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위급할 때 서로 돕고 사랑하므로 그들에게 형제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넓게 높게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엡3:18-19).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7장 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한 3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3)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친구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하여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녀 사랑,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찌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역대상 22장 5절).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부모의 욕심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고 부모의 욕심이라고만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인 성전을 짓는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기를 기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결코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인 다윗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만의 뜻이라면 자식에게 이루지 못한 성전 짓는 꿈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아버지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인 성전을 짓는 것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요 또한 다윗의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님의 뜻이요 그 뜻을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었기에 다윗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또한 아들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과연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아들인 솔로몬을 위하여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위한 재료였습니다. 그 재료란 예를 들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일 백만 달란트, 놋과 철, 재목과 돌(14절) 공장인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15절)이었습니다. 준비하되 다윗은 “많이”(5, 15절) 준비했습니다. 특히 놋과 철 같은 경우는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습니다(14절). 왜 다윗은 이렇게 많이 준비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5절). 준비하되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와의 전을 위하여 많이 준비하였습니다(14절). 다윗은 평안한 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습니다(5절).

과연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죽기 전에 무엇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되 우리가 죽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되 우리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뜻을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여 우리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로서 도움이 돼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아들인 솔로몬을 위하여 죽기까지 기도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12절). 자식인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평생 죽기까지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와 (2) ‘하나님,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는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대하1:7-10).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대상22:12). 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였

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12절).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솔로몬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도 아버지인 다윗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한 이유는 주님의 많은 백성들을 능히 재판하여(대하1:10)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왕상3:9). 한 마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는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자식인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대상22:11).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죽기까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인 줄 알았기에 아들인 솔로몬이 그 형통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13절).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 인줄 믿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요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자녀로 세우(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부모는 죽음이 가까왔을 때 우리 자녀에게 유언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남긴 유언은 무엇이 었습니까? 열왕기상 2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 왕에게 남긴 유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였기 때문입니다(대상22:5).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였기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이 유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죽기까지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왕상15:5).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본을 보이며 사는 부모는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가까워도 자녀에게 유언하기가 거리끼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함에 있어서 유언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가 자녀에게 유언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유언이 효과적이고 힘 있는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유언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죽음이 가까왔을 때 우리 자녀에게 유언하기 위해선 그 유언대로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오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그 형통의 길을 걸으라고 유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 순종의 삶을 살라고 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유언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유언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유언이 우리 자녀의 심비에 적혀 우리 자녀가 그 유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좋은 기회가 바로 부모인 우리가 죽기 전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땅에서 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져야 할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있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표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되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자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우리가 죽어도 그 자녀 마음에 남길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죽기 전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 많이 준비하므로 우리 부모의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많이 준비한 것이 다윗처럼 건축 재료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한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해 놓는다면 우리 자녀의 심비에 부모의 큰 사랑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의 마음에 부모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 특히 부모가 기도의 삶을 살면서 숨질 때 되도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숨지기 전에 우리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을 유언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범사에 잘 되고 행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 무엇을 준비시켜야 하나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다니엘 11장 32-35절).

우리는 미리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잠24:27).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싱글 남녀는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남녀가 결혼해서 집을 짓고자 한다면 그들은 집 짓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눅14:28-30). 만일 그들이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공사)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기초만 쌓고 완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때 완공 하지 못하고 기초공사만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책임인 재정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 싱글 남녀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얼마나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그들은 주님을 좇음에 있어서 희생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참고: 예수님의 망대를 건축하는 자의 비용 예산 준비(28-30절)과 전쟁하려는 임금의 군사력 강화의 준비(눅14:31-21)]. 그 뿐만 아니라 그 두 남녀는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돼 있는지 각자의 마음의 헌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부모는 우리 자녀를 결혼시킴에 있어서 재정 준비도 해야겠지만(물론 자녀가 스스로 부모의 재정 도움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들에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과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

야 합니다. 특히 자신을 부인하는 삶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 32-35절의 배경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환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부모가 장차 올 환난을 대비하여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준비시켜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이란 책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장로교 모태 신앙인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라’와 ‘하라’는 명령에 초점이 맞춰져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저는 ‘하지 말라’는 계명에 불순종했고 ‘하라’는 말씀은 반대로 하지 않으므로 제 양심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 양심의 죄책감마저 없어져서 저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읽고 나서 부터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Who is God?)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약 17년 전쯤 첫째 아기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왜 이런 일이 우리 부부에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부부에게 일어났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던지기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랍고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게 그리고 많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나 특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책임은 성경책을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

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또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우시사 강하고 담대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어떠한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우왕좌왕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또한 삶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저는 나의 하나님을 제 세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그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더욱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은 이유는 그리할 때 저의 자녀들은 장차 다가올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점점 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을 것입니다(호4:1).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것입니다(6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점점 더 잊어버릴 것입니다(6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입니다(7절).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교회를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과 교회를 더럽히고 또한 “더러운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단11:31).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써 우리 자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야 합니다(호6:3).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니엘 11장 33절을 보십시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이름의 뜻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제 한국어 이름은 “김지원”입니다. “지원”이란 이름의 뜻은 ‘지혜에서 으뜸이 되다’(지혜 “지”자에 으뜸 “원”자)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생각하신 말씀이 제가 알기론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과 제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이름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길 기원합니다. 특히 이악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수 없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되 뱀 같이 지혜롭길 원합니다(마10:16).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우리에게 장차 닥쳐올 환난을 조심성 있게 대처하여서 그 환난을 모면하거나 극복하길 원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겉으로 양의 웃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목사들이 더욱더 많아질 텐데(마7:15; 10:16) 뱀 같이 지혜로워서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만을 듣고 전하길 기원합니다. 전하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뱀 같이 지혜롭게 행하여 장차 다가올 환난과 위기를 잘 모면하고 극복해 나가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니엘 11장 35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저는 “연단”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잠17:3). 연단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우리)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셨습니다(사48:10).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연단시키시되 하나님은 고난의 통로를 걷게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되게 만드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찌꺼기와 흔잡물과 같은 우리의 믿음(사1:25)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정화시키시사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케 하십니다(단11:35).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결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과 정결케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양보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연단시키시사 그들을 정결케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큰 환난을 대비해야 합니다(21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장차 올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살전3:3)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시50:15, 120:1) 또한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결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장6절).

북한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 참사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후폭풍과 유리 파편으로 눈에 심한 부상을 입어 수많은 사람들이 실명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룡천 소학교에서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 대부분이 안구를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이 룡천 소학교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은 시인 김용택씨는 그의 시 "룡천 소학교 아이들아"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 룡천의 아이들아! 언 땅을 뚫고 돌아나는 새 풀잎 같은 이 땅의 아이들아! 학교를 잃어버린 아이들아 동무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아 돌아갈 집과 부모 형제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아 뜨거운 불길에 덴 얼굴들아! 아! 이 느닷없는 죽음, 고통, 슬픔, 추위, 배고픔, 이 공포를 어찌 할까나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나 ..."

저는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나"란 부분에 도전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육의 안구가 아닌 "영의 안구"가 부상을 입어서 "영적 실명"에 놓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부모로서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나"라는 탄식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녀들이 "영적 실명"에 놓여 있음을 보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의 "영적 실명", 이것은 곧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입니다(마 15:14).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2장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3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Right Value)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과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정 삶 속에서 보여 주고 있는지 한 번 뒤돌아 봐야합니다. 과연 신앙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가치성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 가정의 믿음 생활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눅16:15)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우리가 값지게 여기는 혹은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졌던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보화를 더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보화"를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뚜렷한 목적관(Clear Purpose)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삶을 방화하며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관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턴 소요일 문답 제 1문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뚜렷한 목적관은 참 우리가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다니엘 1장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기회인데 그는 그것을 마다한 이유는 뚜렷한 목적관,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에 그의 삶을 환경을 초월하여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인생관(Eternal View of Life)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쉽게(?) 자기의 귀한 생명을 앗아 갑니까? 영원한 인생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위로는 바로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짧은 인생,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인생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관문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나라의 관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기쁨과 면류관"인 영혼들에게 삶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였습니다(빌4:1). 인생의 종착점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인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 많은 사람은 참 영원한 인생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람에게 온 삶을 바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안구를 다쳐 실명 위기에 놓인 룡천 소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탄식한 한 시인처럼 우리는 영의 눈이 실명을 당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과 갈등과 기도 가운데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 뚜렷한 목적관, 영원한 인생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가(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 아하시야(여호사밧의 손자, 여호람의 아들)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꺾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역대하 18장 1절, 21장 6절, 22장 3-4절).

만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기로 한 날짜 하루 전에 당신에게 와서 약혼녀하고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부모로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특히 당신의 아들이 그 약혼녀하고 결혼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그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크리스천 부모로서 당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과연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 약혼녀하고 헤어지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미 상견례도 하였고 결혼 침청장도 주위 모든 사람들도 다 보냈을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 결혼을 멈추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결혼 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의 결혼을 멈추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로써 우리 자녀를 결혼 시키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하지만 또한 결혼 시키지 말아야 하는 일에도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못 결혼 시키게 되면 우리 자녀만 잘못 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녀인 손주도 충분히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1절과 21장 6절과 22장 3-4절을 보면 남쪽 유다 나라의 세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이 이름은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의 할아버지이고 여호람은 아하시야의 아버지입니다. 문제는 아하시야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므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으므로(18:1) 그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21:6).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6절)인 아달라(22:2)와 결혼 시키므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21:6). 이것은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한 말의 결과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19:2). 그 렘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나중에 심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를 하였습니다(20:35). 그 후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21:1).

여호람 왕은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4절)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11절). 즉,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게 하였습니다(13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16절).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의 창자에 들게 하시사 결국 2년 만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죽습니다(18-19절). 죽되 여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20절).

여호람이 죽은 후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22:1) 그 또한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그의 어머니인 아합 왕의 딸 아달라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3절).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후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4절).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

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요람이 상하니까(5절) 아하시아는 이스르엘로 내려가서 요람을 방문하였다(6절)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신 예후에게(8절) 죽임을 당합니다(9절).

저는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아버지 여호람 왕과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 왕을 생각할 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 시키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결혼 시킨 것이 큰 화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람 또한 아무리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딸 아달라와 결혼 시키려고 했다 할찌라도 그녀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버지로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인 아합과 교제를 하지 말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인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 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써 여호람은 아달라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잘못된 자녀 결혼 선택으로 인하여 아들 여호람 뿐만 아니라 손자 아하시아도 잘못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결혼을 잘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 자녀의 결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잘못된 결혼은 우리 자녀의 인생만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녀인 손주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의 결혼 선택에 있어서 실수로나마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까지도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이 참 막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우리 손주들에게까지도 본이 되어야함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하여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로 세움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과 결혼 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화 이루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 이야기: 미련한 아빠, 미련한 목사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후.

오늘은 우리 집 막둥이 예은이의 11살생일, 비록 아내가 출장가기 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축하를 했지만 아무래도 당일에 식사라도 함께 하면 좋을 듯싶어서 수요기도회 전에 종종 가는 월남국수집으로 갔다. 예리에게 동생과 식사 기도를 부탁한 후 함께 국수를 먹는데 국수 그릇에 양념을 넣어서 비빔 양파 한 그릇도 우리 넷이서 함께 다 끝냈다. 예리도 얼마나 그 양파를 잘 먹는지 ... 하하. 식사 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한국마켓에 갔다. 딜런과 예리에게 봉어빵을 5불 어치(6개를 줌) 사라고 돈을 준 후 너희들끼리 하나 더 추가로 받아보라고 말하였다(합계: 7개). ㅎㅎ 그렇게 말한 후 나는 예은이와 함께 마켓에서 과자를 샀다. 예은이더러 너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라고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 딱 한 봉지만 들고 오길래 하나 더 사라고 했다. 머뭇거리더니 한 봉지 더 들고 온 예은이와 함께 나는 계산을 하고 출구 근처에 예은이와 함께 서 있었다. 얼마 있다가 딜런과 예리와 봉어빵 봉지를 들고 나왔는데 물어보았더니 봉어빵을 하나 더 추가로 받아 합계 7개를 받아왔길래 잘 했다(Good job!)하고 칭찬했다. ㅎㅎㅎ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왔는데 지난 주 금요일 교회로 전화 왔던 정 모씨라는 사람이 내 핸드폰으로 전화 왔다(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곤 오늘 오후 8시 수요기도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면서 좀 교회 일찍 와서 나에게 기도도 받고 싶다고 하길래 버스타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다시 알려드렸다(지난 주 금요일도 알려드렸었는데). 교회 도착한 후 30분쯤 지나 그 정모씨가 교회 근처에 도착했다고 하여 뛰어가서 함께 교회 목양실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부터 해서 이런 저런 말을 쭉 하다가 다시 북가주에 있는 집으로 부인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차비로 85불을 좀 해결해 주기를 나에게 부탁하였다. 그 때 나는 수요기도회 시간이 가까 오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 그의 등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예배실로 인도한 후 다시 목양실로 와서 봉투에 돈을 넣어 기도회 후 그 아버지를 데려다 주도록 부탁한 집사님께 그 아버지를 내려다 줄 때 전달해 주길 부탁드렸다. 결론

은 내가 그 아저씨에 속았다는 것을 예배 후 교회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어떻게 장로님은 제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딱 알아보셨는지….

나는 수요 예배를 마친 후 아이들과 함께 차타고 집으로 오면서 이 아빠가 아까 그 아저씨에게 속은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 있었던 딜런은 그 아저씨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아빠에게 한 것처럼 돈 받으려고 속이다가 좀 썸(?) 목사님에게 걸리면 혼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ㅎㅎ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막동이 예은이는 자기의 목소리를 굵게 하더니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월로 보고… 승리장로교회에는 법이 있고…’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때 옆에 앉은 딜런을 보니까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 하하. 예리를 생각하면 안 그래도 지난 주 금요일 그 정모씨로 부터 전화를 받은 후 예리와 예은이에게 말했더니 예리는 나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예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기에 그 아이에게 할 말이 없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이 생각난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가정 이야기: 자녀 교육

2015년 2월 19일 저녁.

어제 수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히스패닉 사역을 섬기고 계신 고메즈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용을 듣고 보니 아마 내 아버님께서 교회에서 새벽기도회 때부터 기도하신 후 집으로 가시려고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회 근처 길가에 주차해 있는 2014년도 차의 side mirror를 좀 치셨나 보다. 그런데 다행히 고메즈 목사님이 교회에 계셔서 상황을 파악하고 내 아버님을 돕다가 집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다. 고메즈 목사님은 차 주인이 차 dealer에게 가서 original side mirror로 바꿔달라고 한다고 나에게 말하면서 그 original side mirror 가격이 얼마인지 좀 인터넷으로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신뢰하는 약 34년 된 정비사 친구에게 연락해서 들은 상황을 대충 말해 준 후 가격을 알아봐서 고메즈 목사님에게 직접 연락해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이에 나는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다. 혹시나 좀 놀라셨지 않으셨을까 해서다. 알고 보니 아버님은 그 차 주인이 나올 때까지 그 차 옆에서 기다리셨나 보다 (그냥 종이에다가 아버님의 핸드폰 번호를 써 놓으셔도 되셨을텐데...). 그래서 나는 아버님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좀 있다가 고메즈 목사님이 그 차 주인하고 차 dealer에 가는 도중에 나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에 의하면 아버님이 “honest”(정직)하게 차 주인을 기다리셨다는 말과 또 한 가지는 내 아버님이 좀 “nervous”(불안해)하셨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차 주인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목사님은 돈이 많이 들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친구 정비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차 original side-mirror 값이 dealer 가격으로 대충 \$29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그 차를 dealer에 가지고 가면 인건비도 한 \$150 든다고 말하면서 고메즈 목사님이 10분이 고칠 수 있으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나에게 충고를 해 줬다. 나는 그 이야기를 고메즈 목사님에게 했더니 이미 고메즈 목사님은 차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차 dealer에서 고치길 원한다고 말하길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후 전화 통화를 끝냈다. 그런 후 오후에 나는 예리의 학교에 가서 예리를 좀 일찍 데리고 나와 교정치과에 데려다 주었다. 그 이유는 예리 생일날에 드디어 이(teeth)에 꽃고 있었던 braces를 빼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예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ㅎㅎ 그래서 나는 예리에게 braces를 뺀 후 아빠가 In-n-Out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말하니 자기가 braces를 빼고 제일 처음 먹는 음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In-n-Out 햄버거라며 너무 좋아했다. 한 1시간 30분 후에 교정치과에서 예리가 연락왔길래 나는 집에 있다가 예리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둘이서 함께 In-n-Out 햄버거를 사러 가면서 예리는 braces를 뺀 자기 이를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다(아내가 원했기에 ㅎㅎ). 예리가 셀피하면서 나의 팔뚝까지 나오게 하길래 나는 두 번째 찍을 때는 좀 힘을 줬다. ㅎㅎ 예리는 braces를 뺀 것이 자유(free)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 때 그 말을 들은 나는 내 머리에 “bondage of sin”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리에게 그 생각을 나눴다: ‘예리, 너가 약 2년 동안 braces를 이에 끼고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냐. 그러나 이렇게 빠니까 너 말대로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으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 나와 너가 “bondage of sin”(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시므로 나와 내가 죄의 사슬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지금도 어제 예리와 그 대화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내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고 또 적합한 타이밍에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나는 감사하고 기뻐다. 햄버거를 사서 집에 도착한 후 예리는 부엌 식탁에서 햄버거를 먹고 나는 내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부엌으로 왔다[교회에 가야했기에(아내와의 저녁 식사 및 수요기도회 인도)]. 그 때 나는 예리를 hug해 주고 싶어 예리에게 다가가서 “I am happy for you”하면서 포옹해 주었다.

오늘 목요일 오전에 나는 고메즈 목사님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한 후 그 차 고치는 값을 교회에다가 두었다고 말씀드렸다(예은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야 했기에). 그리고 나는 예은이 학교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요즘 열심을 내고 있는 “연애, 결혼, 가정” 책 원고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외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합니다”란 책 원고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합니다”란 책 원고 및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 글을 올리는 일을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아직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란 책 원고는 수정을 시작도 못했다 ㅎㅎ). 그러다가 아내도 집에 오고해서 나는 딜런을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ymca에 운동하러 가려고 딜런과 함께 차를 탔다. 그리고 나는 차 안에서 딜런에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정직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차사건 이야기를 해 주면서 ‘이 아빠(나)는 언젠가 너희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다가 교회 앞 좁은 골목에서 세워놓은 남의 차 side mirror를 내 차 side mirror로 친 일’을 딜런에게 ‘자백’했다. 좀 부끄러웠지만(더 부끄러워했어야?) 나는 계획도 한 것도 아닌 게 그냥 딜런에게 말하고 싶었다. 아마 나는 딜런에게 이 아빠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딜런이 알기를 원했었을 지도 ...

나는 딜런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ymca에 운동하러 갔다. 나는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오늘은 운동하다가 어제 아버님께서 남의 차를 그렇게 하신 후 불안해하신 것 같다는 고메즈 목사님의 말을 생각났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라 나는 내 개인 웹사이트 여기저기마다 이런 글을 올렸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이웃에게 잘못을 한 후 조금이라도 불안해(nervous)해야 하는데 ….” 내가 이렇게 “… 해야 하는데 …” 라고 쓴 이유는 그 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다가 교회 앞 좁은 골목에서 세워놓은 남의 차 side mirror를 내 차 side mirror로 친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나의 아버님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예리가 그 때 내 옆자리에 앉아서 다 보았는데 나는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여 교회로 왔기 때문이다. 그 때 나는 아버님처럼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냥 그런가보다는 식으로 담대하게(?) 넘어갔다(?). 그냥 지나친 것이다. 예리가 다 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나의 아버지는 정직한 모범을 나에게 보이셨지만 그 때 나는 예리에게 그리하지 못했다(안했다가 더 적합한 말인 듯).

운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 나는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 두 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아내는 운동하는 중이었기에. 아내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니 나는 기쁘다). 준비하면서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예리와 식탁을 닦고 이것저것 돕는 막동이 예은이에게 딜런에게 자백한 것처럼 자백을 하였다(솔직히 처음에는 말을 할까 말까 좀 망설였음 ㅎㅎ). 특히 나는 예리를 생각하고 말을 하였다. 나는 내 아버님의 차사건 얘기를 해주면서 나의 아버님의 정직함 등 이 아빠가 배운 교훈을 나눈 후 그 때 내가 교회 앞길에서 길가에 세워 놓은 차의 side mirror를 내 차 side mirror로 치고도 그냥 운전하고 간 잘못을 그 아이들에게 자백하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리가 그 때 그 사건(?)을 자기가 확실히 잘 아는 것처럼 나에게 하는 말 … ‘아빠’하면서 그 때 그 길가에 차 side mirror 아무 흠집도 안 나고 다만 접혀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찼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ㅎㅎㅎ 근데 나는 그 기억은 나지 않고 내가 그 차 side mirror를 내 차 side mirror로 치고 그냥 운전하고 간 것만 생각난다(지금도). ㅎㅎ 나는 아직도 누구의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ㅎㅎㅎ (나이가 14살인 예리 아니면 나? ㅎㅎ) 나는 예리의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내가 예리에게 자백(말)한 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ㅋㅋㅋ 그 이유는 예리가 그렇게 말하니 위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ㅎㅎㅎ 내 기억력이 좀 불안한 것 같다 ㅋㅋ

이번에 나는 아버님이 실수로 길가에 세워놓은 차의 side mirror에 손상을 입힌 것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아깝지가 않았다. 결코 나에게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벼웠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버님의 정직함의 모범과 실수로 잘못을 하시고도 불안해 하셨다

는 사실과 내가 예리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그 때 그 일이 생각난 것의 가치가 \$500보다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리에 의하면 그 때 내가 길가에 서 있는 차의 side mirror를 쳤을 때 아무 손상이 없이 다만 접혀서 자기 손으로 폈다고 확신 있게(?) 말하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버님이 나에게 정직함과 불안해하는 모습(?)의 본을 보이셨으니 나도 예리와 딜런 그리고 예은이에게 그러한 본을 보이는 아빠가 되어겠다는 다짐이다.

가정 이야기: 귀걸이

2011년 2월 26일, 토요일 오전.

어제 저녁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아내가 교회에 있었던 나에게 전화를 했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첫째 딸 예리의 귀걸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는 예리에게 토요일에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귀걸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엄마로서 딸 예리하고 대화하면서 이 아빠가 예리에게 귀걸이를 함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노예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길 바란다. 이 아빠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리가 주님께 헌신의 편지를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중에 예리가 커서 우리가 그 편지를 예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10살 때 귀걸이를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토요일 오전 사랑하는 귀한 딸 예리가 gmail(인터넷 이 메일)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리는 엄마가 어제 자기에게 오늘 귀걸이 하러 가기 전에 아빠가 편지를 쓰는 것을 원하. 는 말을 꺼내면서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여 나는 다시 한 번 직접 예리에게 이 아빠의 마음을 전달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지난주에 예리가 왜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귀걸이를 한 후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거냐는 식의 질문을 나에게 했었다. 아마 예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성경에 나오는 노예처럼 귀걸이를 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주님께 헌신한다는 표현으로 귀걸이를 하는 줄 아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어제 아내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아내로 하여금 예리에게 귀걸이를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리와 이 아빠만의 특별한(unique)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도록 부탁했다. 나는 이 말을 다시 예리에게 해주었다. 그리고 마음에 편지를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예리는 지금 곧 쓰겠다고 하기에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한 후 채팅을 끝냈다. 조금 전 나는 예리에게 이 메일을 받았다. 그 내용은 이렇다: ‘아빠, 저는 10살의 생일이 1주일 지난 오늘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 저는 아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 귀걸이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정으로 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기에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이유만으로 귀걸이를 할 거예요.’ 나는 이 이멜을 받고 사랑하는 딸 예리에게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 주님께서 예리를 사용하시사 두배의 열매(twice fruitful)를 맺게 하시길 이 아빠가 계속 기도한다고 말하였다(참고: “예리”의 이름을 질 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름 뜻: Twice fruitful)을 생각하며 이름을 저주었음. 그리고 나는 예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두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음).

오늘 오후 귀걸이를 한 예리의 모습을 볼 생각하니 나는 기대가 된다. 그 이유는 귀걸이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한 10살의 사랑스러운 귀한 딸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이야기: '이 아빠도 눈물을 흘렸단다.'

2011년 8월 17일, 수요일 저녁.

오늘 수요일도회를 마친 후 본당에서 교제실로 걸어 나올 때 딜런이 나에게 7학년(중1)을 시작하면 학원을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만일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ipod 사서 집에서 게임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딜런을 데리고 목양실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으라고 말한 후 나는 딜런을 마주보는데 앉아서 딜런에게 왜 이 아빠는 딜런이 학원을 가기보다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를 설명하였다. 나는 딜런에게 '너가 너 자신을 discipline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딜런에게 이 아빠가 너와 예리, 예은이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숙제를 먼저 열심히 하고, 악기 연습 한 후 자유 시간을 갖도록 여태까지 한 이유가 바로 너와 너의 동생들을 discipline하기 위해서였음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딜런에게 여름방학 때 summer school에서 택한 pre-Algebra 과목을 통하여 배운 교훈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면서 '너가 노력하면 이 아빠는 딜런이가 혼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해주었다. 딜런이 Summer school 때 숙제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울면서까지 숙제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나는 딜런에게 학원가서 학원 선생님에게 숙제를 도움 받다 보면 계속해서 선생님을 의존할 수가 있으니 너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정 어려워져서 못하겠으면 이 아빠에게 말해주면 엄마랑 얘기해서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우선 한 학기는 혼자서 스스로 공부해 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딜런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 딜런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딜런에게 이 아빠가 너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딜런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말할 때 딜런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한 두 번이 아니다. 딜런은 나하고 심각한 대화(?)를 할 때면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곤한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의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딜런에게 '이 아빠도 지난 주 토요일에 눈물을 흘렸단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딜런에게 지난 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식당에 음식을 사러 가기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왜 이 아빠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를 마음 문을 열고 나눴다. '딜런, 너의 누나인 주영이가 죽고 나서 이 아빠와 엄마

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다음 아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딜런 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다. 그래서 이 아빠는 지난 주 토요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단다.’ 이렇게 나는 딜런에게 말한 후 나는 딜런에게 ‘이 아빠는 딜런에게 감사하단다’라고 고백하였다. 나는 딜런에게 ‘딜런이 나의 아들임을 감사한다’고 고백하였다. 안 그래도 지난 주 토요일 하나님 앞에서 딜런으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린 후 오후에 집에 가서 딜런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저녁 딜런의 눈물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 나는 기뻐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딜런에게 이 아빠에게 오라고 말한 후 딜런을 내 오른쪽 무릎에 앉혔다. 그런 후 나는 딜런을 팔로 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딜런(이름 뜻: ‘신실하고 진실하라’)을 향한 나의 기도 제목인 ‘하나님, 사랑하는 딜런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다.

미련한 아들

[잠언 19장 10, 13-14, 18, 26-27절]

여러분, 혹시 한국의 전래동화 중 “미련한 소금 장수 아들”이란 글을 읽어 보셨나요? 그 동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인터넷):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둔해서 늘 걱정거리인 아들 ... 다 자랐음에도 셈도 못하고, 쌀과 보리도 구분을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당연지사 ... 소금 장수는 언제나 미련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소금장수가 되겠다고 하기에 소금장수는 그의 아들에게 소금 지게를 지워 내보내면서 나가서 소금을 팔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미련한 아들은 광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일하는 광부들에게 오히려 그는 욕만 실컷 얻어먹고 소금 한 바가지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소금장수는 그런 곳에서는 같이 땅을 파주고 일을 도와주면서 사람들이 쉴 때 소금을 팔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길을 나선 아들은 이번엔 혼인 잔치를 벌이는 곳을 기웃기웃 거리다가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며 신랑신부 옆으로 가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사스러운 날 무슨 짓이냐며 몽둥이를 들고 혼내 주려했고 아들은 깜짝 놀라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런 데 가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말하면서 춤을 추고 소금을 팔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아들은 소금을 팔러 나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경사로다 경사로다 말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소금을 사라고 외쳤는데 그 곳은 다름 아니 불난 집의 마당이었습니다. 매만 맞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런데 가서는 물을 끼얹고 불을 끈 다음 소금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아들은 그 다음 날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물을 핵 끼얹고 소금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들에게 우르르 몰려들어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을 뿐인데 소금도 못 팔고 매번 사람들에게 맞기만 했기에 다시는 소금을 팔러 안다닐 거라며 죄 없는 아버지만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걱정거리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

까? 아버지의 말만을 기억해 행동을 옮겼지만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 보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아들이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서 “미련한 아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늘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박윤선).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미련한 아들”이란 제목아래 한 2가지를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아들은 어떠한 자이며 그리고 둘째로 부모가 그 미련한 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미련한 아들은 사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0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언젠가 한국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이라고 하면서 타조가죽으로 만든 100만원대 국내 명품 가방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국내 영세업체가 수작업으로 만든 가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때 그 뉴스를 접하면서 스쳐간 생각은 ‘저 가방 불티나게 팔리겠다’였습니다. ㅎㅎ 그 이유는 대통령이 그러한 가방을 들고 다니니 나도 그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명품을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값 비싼 명품을 구입하는 계층이 넓어지면서 인기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웹사이트를 보니까 “사치스러운 여자란?” 제목의 글이 있어 좀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남자들은 사치스러운 여자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치’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다섯 가지 목록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00만 원짜리 루이뷔통 백이 2개쯤 있다. (2) 루이뷔통은 사치가 아니고, 사넬쯤은 되어야 사치다. (3) 점심은 대충 먹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사치다. (4) 자기가 벌어서 쓰면 괜찮고, 부모 돈으로 쓰면 사치다. (5) 일 년에 한 번 해외로 여행을 다닌다면 사치다. 답은 위에 다섯 보기 중 없습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주장은 남자에게 사치스러운 여자의 기준이란 ‘내가 현재 벌고 있는 또는 앞으로 가능한 소득수준에서 그녀의 현재 소비패턴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가 보기에 사치스러운 여자에 대한 기준이지만 일리가 있는 사치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정서적으로 사치스러운 시대 … 그래서 고독. 절망 더 깊어져”란 제목아래 글이 있어 좀 읽어 보았습니다. 한 문학평론가와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 문학평론가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공감이 되어 좀 나눕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치스러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옛날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고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고독감과 절망, 좌절감을 더 심하게 느끼지요”(인터넷).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치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7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사치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웃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하여 과부의 심정을 외면하고 과부 앞에서 남편 자랑하는 것이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앞에서 아이 자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어려움, 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쓰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정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치를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인터넷).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사치란 가난한 자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내키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9장 10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향락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런데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뿐 아니라(10:23) 이 세상의 향락으로 낙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19:10). 특히 가정에 있어서 미련한 아들은 집과 재물을 그의 부모님에게서 상속 받아서(14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여(12절) 그 재물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한 것(13절)처럼 미련한 아들은 그의 부모에게 재물을 상속 받아 사치스럽게 삽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오늘 성경 잠언 1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히5:8).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받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2)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니라.” 이 말씀을 언어 히브리어로 개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연거퍼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박윤선).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말씀들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0:1, 17:21, 25). 그리고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고통이 되며(17:25) 또한 미련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는 낙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1절). 그러다가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에 와서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앙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a)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이유는 부모 된 자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인력으로는 면할 길이 없고 별 수 없이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인력으로 면할 수 없음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고통이요 재앙입니다.

(b)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이유는 명예상으로든지 재산상으로든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미련한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명예상으로든지 재산상으로 손해 보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도 봅니다. 웬지 “손해”라고 하니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미련한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탕자처럼 방탕 생활하는 자녀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을 다 갈아 먹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손해요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c)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이유는 이런 괴로운 일은 선한 사람들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요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자녀 농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고 정성들여 물과 거름을 주면서 돌보았는데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다른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한 가정에 어떻게 비뚤어진 미련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에서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의 가정에서 맏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가정에는 10명의 자녀들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버리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뿐입니까? 다윗의 가정에서는 암논이 자기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미련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과 슬픔과 불행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 말씀대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딸들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큰 기쁨이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다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3) 미련한 아들은 그의 부모님에게 부끄러움과 능욕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6절을 보십시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를 구박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박한다’는 말은 ‘도둑질한다’는 뜻입니다 (Swanson). 다시 말하면,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미련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물건을 어떻게 도둑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낭비하는 것이 생각은 나지만 말라기 3장 8절 말씀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공경과 더불어 물질(용돈)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잠언 2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 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이 죄를 하나님과 자기의 부모님에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를 쫓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아들은 자기의 어머니를 집에서 몰아냅니다. 어머니를 모시기보다 오히려 집에서 쫓아내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서도 어머니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 노인 아파트 등 다른 곳에서 살게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미련한 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분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아들은 그의 부모님을 구박하고 쫓아내므로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줍니다. 성경에 미련한 아들이 그의 부모님에게 부끄러움과 능욕을 끼치는 것 외에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는 자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6-17절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7절).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련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며(눅18:20) 부모에게 효를 행합니다(딤후5:4).

마지막 둘째로, 부모가 그 미련한 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부모는 그 미련한 아들에게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즉 ...” 여러분, 왜 우리 부모가 미련한 아들에게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아들에게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 부모는 그 미련한 아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미련한 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를 징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미련한 아들을 징계해야 합니까? 잠언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가 미련한 아들을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징계하는 채찍이 우리 아들의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부모는 그 미련한 아들로 하여금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7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미련한 아들에게 희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에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련한 아들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지식을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므로 나름대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여 양육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부모님에게 비뚤어지게 나아가는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자녀 농사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양육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부모로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련함을 보이기보다 지혜로움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잠언 19장 10, 13, 14, 2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치하는 삶을 살지 말고 검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만일 우리에게 미련한 자녀가 있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능욕을 가져오며 우리에게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며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에베소서 6장 1-3절).

언젠가 CNN 인터넷 뉴스에 10년 동안이나 실종됐던 여성 3명이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6일(월) 밤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찰스 램지라는 사람이 여성의 비명과 문을 박차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곧장 그 집 현관으로 달려가 납치당한 3 여자 중 한명인 어맨다 베리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부셨고 베리라는 여자는 울면서 뛰쳐나와 이웃집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므로 결국 같이 1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다른 두 여자들과 한 아이도 경찰이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금한 50대 남자는 지금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10년이나 실종되었던 또 다른 여성인 조지나 드지저스의 어머니 낸시는 병원에서 딸을 만나 아마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엄마의 직감으로 딸이 살아 있다고 느꼈다”,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10년간 딸을 찾아 헤맨 부모들은 “어머니의 날을 앞두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선물 외에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 저는 우리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자녀가 성경적 효(hyo)를 가정(home)에서 실천하므로 우리를 행복(happy)하게 하며 가정 천국(heaven)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최고의 선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효는 무엇인가? 성경적 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며, 부모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인터넷).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효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적 효가 가정지키기에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중심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성경적인 효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들께 여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습니까? 속상하시죠? 부모에게 있어 순종하는 자녀는 ‘착한 자녀’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녀는 ‘못된 자녀’입니다. 착한 자녀는 축복하고 쓰다듬어 주고 무엇 하나라도 더 손에 쥐어 주지만, 못한 자녀에게는 충고하고 책망하면서 한 편으로는 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안타까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하는 부모의 기도는 ‘쥐어짜는 심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불순종하는 자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불순종은 그 부모의 마음에 깊고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일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헬라어 원어 의미는 ‘밑에서 혹은 아래서’ + ‘듣다’입니다(‘to listen under’). 곧 자녀 된 자로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히 듣기에 속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참고: 약 1:19). 현용수 목사님은 그의 책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훈련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쉽게 인정하고 순종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기 위해선 성경적인 아버지의 권위가 집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즉, 어머니는 그녀의 남편을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로 어머니에게 배워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되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 밖에서’라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따로 있어서 순종해야 할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성경적이지 않은 일을 명할 때에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에 대한 이동원 목사님의 생각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네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면’의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면) 우리는 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3장 20절 상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for this is right)(엡6:1). 그 이유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for this please the Lord)(골3:20). 이 말은 조건적이고 내 감정과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들께 여쭙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 입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세상에서 누구보다 제일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부모님을 대하였습니다: “...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5-6절). 즉,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

님에게 드러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변명을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매우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3절)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을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엡6:2하).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견해는 개신교의 입장으로 십계명이 두 돌비에 쓰여졌는데 아마도 첫 번째 돌비에는 1-4계명까지, 두 번째 돌비에는 5-10계명까지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1-4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계명 그리고 5-10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를 말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에서 첫 번째 강조된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2) 두 번째 견해는 십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이 덧붙여진 계명은 이것뿐이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네가 잘되고”란 말은 구약에서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이 축복의 개념이 달라져서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젠가 조선일보에 어머니에 관한 안타까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오늘 어버이날] 아! 어머니 ... 장애 딸 등굣길에 트럭이 덮치자, 딸 밀쳐내고 숨져”였습니다(인터넷). 7일 오전 8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아주동 치안센터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배모(여·37)씨가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고 함께 있던 딸 한모(9)양은 다리 등을 크

게 다쳤다고 합니다. 배씨는 이날 정신지체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45인승 통학버스가 서는 곳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모녀가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지났을 무렵 정모(43)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배씨 모녀를 향해 달려왔고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으나 덤프트럭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덤프트럭이 갑자기 나타나자 어머니가 자신과 함께 있던 딸을 밀쳐낸 뒤 자신은 차에 바로 부딪히고 말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배씨가 딸을 밀쳐낸 덕분에 한 양은 왼쪽 다리에 트럭 바퀴가 지나가는 부상만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상은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경찰은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배씨는 장애 특수학교 4학년인 딸을 1학년 때부터 통학버스에 태우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양의 학교 관계자는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에 꼭 통학버스가 도착하는 곳에서 딸아이를 챙기는 자상한 어머니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생각납니다. 1절 가사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가정 이야기: 아빠가 배운 교훈은 무엇이에요?

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나는 딜런과 예리는 교회에 데려다 주고(pre-teen class가 있기에) 예은이만 데리고 아내가 일하는 직장으로 갔다. 그 이유는 아내를 pick up해서 예은이와 함께 일본 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은이는 세 자녀들이 있는 어느 엄마에 대하여 ‘그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았네요’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나는 예은이에게 ‘너의 엄마는 아이를 낳이나 낳았다’고 말해주었다. ㅋㅋ 그러면서 나는 예은이에게 죽은 첫째 아기 Charis(주영)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예은이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What is the lesson did you learn from God?’ (아빠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교훈은 무엇이에요?). 나는 그 질문을 받고 서슴없이 예은이에게 ‘하나님의 사랑’(God’s love)”라고 답했다. 실제로 나는 첫째 아기 Charis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에 예은이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예은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죽이셨는데 사랑을 배울 수 있는냐는 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예은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나는 그 질문을 받고 좀 머뭇거렸다. 그 이유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배운 그 깊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혼자 하는 말 같았는데 내가 듣기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듯이 아기를 죽이시므로 ...’였다. 아마도 예은이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아내가 직장 건물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예은이에게 ‘저기 엄마가 나온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예은이도 뒷좌석 창문 밖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함께 아내가 차에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ㅎㅎ 나는 아내가 차에 타서 앉자마자 예은이가 한 말을 짧게 말해 준 후 예은이의 질문을 아내로 하여금 대답해 보게 하려고 말을 꺼내려니까 예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한국어로 아내에게 예은이가 첫째 아기 Charis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질문했다고 말해 준 후 어떻게 그 아기의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는지 질문했는데 답하기가 난감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예은이가 당선하고 나누는 것을 원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나에게 ‘아마도 예은이가 아빠하고만 대화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저녁 식사하러 식당으로 가면서 더 이상 첫째 아기 Charis(케리스)에 대하여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막둥이 Karis(케리스) 예은이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첫째 아기 케리스를 데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케리스를 엄마와 이 아빠에게 선물로 주셨다.'

가정 이야기: '모하니'

2014년 1월 12일, 주일 저녁.

주일 한국어 및 영어 예배를 다 드린 후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계시는 장인어른이 계신 양로원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서 장모님과 처제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28장)를 찬양하는데 장인어른도 좀 크게 소리 내어 부르시길래 나는 좀 놀랐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셔서 ... 비록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 가족 기도 모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후 아내와 함께 부랴부랴 다시 교회로 돌아와 가족 기도 모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장인어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였다. 기도회 후 나는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있는 부엌으로 갔다. 아내에게 파스타를 저녁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미 물을 올려놓고 쓰레기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길래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 쓰레기 봉지를 묶어서 밖에 큰 쓰레기통에 넣은 후 길가에 내놓았다(내일 월요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오기에). 그리고 나서 내 방으로 올라가면서 빨래 통에 빨래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막둥이에게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라고 부탁하려고 그 아이에게 “워하니?”(What are you doing?)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자기 방에 있다가 내 말을 들은 예은이가 “money?”(돈?)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ㅎㅎㅎ 나는 어이가 없어서 ... 그냥 내 방으로 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예은이는 “mommy!”(엄마!)하고 부르면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옷을 갈아입은 후 빈 바구니를 들고 빨래 통 앞에서 세탁기에 넣어야 할 옷들과 양말들을 바구니에 넣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막둥이 예은이가 다시 2층으로 올라오면서 빨래를 바구니에 넣고 있는 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모하니?”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다. ㅎㅎㅎ 그러고는 예은이에게 ‘워하니가 뭐냐?’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내가 자기에게 “워하니?”란 말을 듣고 아빠가 왜 자기에게 “money”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안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ㅎㅎㅎ 그래서 나는 할 말을 잃고 우스워 그냥 예은이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와 세탁기에 넣은 후 이렇게 앉아서 이 가정 이야기를 쓰고 있다. ㅎㅎㅎ 에이.. 아이들 시킬 생각 버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가 보다. ㅎㅎ

가정 이야기: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어요!)

2013년 2월 4일, 월요일 저녁.

드디어 오늘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글렌데일 통합 학군) Spelling Bee Contest가 있는 날이다. 글렌데일 지역구에 있는 20개 초등학교(약 만 명의 학생들이라고 함)를 대표하는 20명의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단어 철자를 맞추는 대회이다. 이러한 대회에 예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자기 학교 spelling 대회에서 1등을 해서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된 것이다. 안 그래도 작년에 나는 노회 고시부 일로 참석을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참석할 수가 있어 기뻐다. 아내도 직장에서 집에 좀 일찍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뒤 철자 경연 대회에 가려고 차에 탔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고 한 후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더불어 예리를 위하여 기도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단어들이 잘 기억나게 해주시길 기원하면서 특히 예리로 하여금 이 대회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께 한 차로 철자 경연 대회 장소로 갔다.

도착했을 때 별로 사람들이 와 있지 않았다. 우리가 일찍 도착한 것이다.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한국 어머니가 단어를 적은 종이를 들고(1,500개 단어를 외워야 했음)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공부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회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가고 예리는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방 103호로 들어갔다. 대회가 시작되는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앉을 자리가 없어 밖에서 TV로 보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다행히 우리는 일찍 도착하여 앞자리 쪽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드디어 다른 아이들 속에 우리 예리도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심판관들 중 한 선생님이 20명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단어를 발음하면 각각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단어를 spell하기 시작했다. 처음 라운드에는 모든 20명 학생들이 다 단어를 맞췄다. 그런데 계속해서 진행될 수록 한 학생씩 탈락되기 시작하였다. 참 감사했던 것은 심판장이 학생들이 단어를 맞출 때 박수치지 말고 탈락해서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로 들어갈 때 박수쳐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한 학생, 한 학생 탈락해서 6명이 남았을 때 나는 속으로 '이젠 예리가

작년보다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다(작년에 예리가 7등을 했고 자기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잘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런데 결국 다 탈락하고 예리와 예리 옆에 앉아있었던 한 여학생, 이렇게 둘이만 남게 되었다. 심판장이 나와서 결승전은 규칙이 다르다고 하면서 설명한 후 결승전이 시작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심판장이 더 이상 못보겠던지 일어나서 두 학생이 같이 공부한 것처럼 막상막하이니까 공동우승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하. 결국 예리와 그 여학생이 제 37회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Spelling Bee contest에서 공동우승을 하게 된 것이다.

대화를 다 마치고 사진을 찍을 때 사랑하는 아내는 앞에 나가서 예리와 공동 우승한 아이와 교육구 이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후에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저녁 준비하면서,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심지어 밤 11시 다 되어가도록 예리로 하여금 단어를 외우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예리와 나를 사진 찍어준다고 하길 때 나는 예리를 hug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집에 가자고 뒤돌아서는데 아내 왈 “왜 자기랑 예리랑 사진 안 찍어주느냐?”고 말을 하길래 나는 “왜? 그럼 진즉에 말을 하지?” 라고 .. ㅎㅎㅎ (이렇게 아직도 나는 아내를 ... ㅎㅎㅎ).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모녀를 아내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었다(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찍은 나와 예리 사진은 잘 나오지 않고 내가 찍은 아내와 예리사진은 참 잘나왔음 ㅎㅎㅎ). 나는 차 안에 타자마자 나의 어머님께 전화 드려서 예리가 공동 우승한 소식을 알려드렸다. 기뻐하시는 어머님은 아내와 대화한 후 예리와 통화하시면서 기쁨으로 축하해주셨고 전화 끝은 후 1-2분 있다가 여동생이 전화 와서 예리와 통화하면서 수요일교회 전에 저녁 사겠다고 약속했나 보다. 그리고 예리 말로는 할아버지가(나의 아버님) 예리에게 ‘honor to our family’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아마 예리 고모가 통역을 해준 듯).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한국 영화에 “가문의 영광”이란 영화가 있다고 말해 준 후 그 영화는 “gangster family”(조폭 가족)라고 말해주었다. ㅎㅎㅎ 그 때 다들 한바탕 크게 웃었다(뺑 터짐 ㅎㅎㅎ). 옆에 앉아 있었던 아내도 speaker phone로 해서 장모님께 공동우승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장모님은 놀라며 감격하여 우셨다. 옆에 앉아 있는 아내를 보니 아내도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장모님과 아내(모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엿보았다. 전화 통화 후 나는 아이들이 In-n-Out 햄버거를 먹고 싶어하길래 밤 9시가 지나서 햄버거 집으로 갔다. 알고 보니 예리가 상금으로 \$50을 받았다고 하길래 나는 그 돈으로 햄버거 사먹자고 했다가 아내에게 맞았다. ㅋㅋㅋ 웃자고 한 말인데 아내도 웃자고 살짝 내 어깨를 친 것 같다. ㅎㅎㅎ 나는 예리에게 상금으로 받은 \$50 중에 \$5을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리라고 권면했다. 그랬더니 예리가 하는 말, 지난번 받은 세뱃돈에서도 이미 십일조를 했다고 말하는데

아닌가. 나는 속으로 매우 기뻐다. 예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먼저 십일조를 드렸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햄버거랑 to go해서 집에 와 그 늦은 시간에 맛있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다들 위층으로 올라간 후 부엌에는 나와 예리만 남았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서 예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Thank you”하면서 hug를 해주었다. 나 또한 예리에게 “Thank you”하면서 그녀를 hug했다. 나는 진심으로 예리에게 감사했다. 예리로 인하여 양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다. 우리도 2층에 올라가 잠들 준비를 하면서 나는 아내하고 예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다. 아내 생각에는 예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confidence 해졌다고 말하길 때 나 또한 동의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예리가 교회 pre-teen class에서 전도사님과 pre-teen 친구들에게 spelling bee contest를 위하여 기도부탁까지 하였다. 가정 예배 때도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예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고 기뻐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렇게 오늘 공동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God did it!”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

[잠언 23장 15-23절]

이번 한국의 여객선(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사망한 학생들 중에 고 정차웅(17살)이란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도 3단의 유단자로 체육학도 꿈을 키웠던 정 군은 사고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는 등 다른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생일 하루 앞두고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 때 최고등급 수의 가격은 400만원이 웃돌았는데 정군의 유족은 최하등급인 41만 6천 원짜리 수의를 정군의 마지막 길에 입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군의 유족이 국민의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비싼 것을 쓸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장례용품 담당자에 의하면 "정 군의 유족이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르자 옆 빈소의 정 군 친구 유족도 같은 장례용품을 주문하며 정 군 유족의 뜻에 동참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그 학생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부모님들은 아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를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23:13-14). 우리가 자녀를 훈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입니다(13:24).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얽힌 미련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22:15),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29:15), 우리 자녀를 죽음에서 건져(23:14) 생명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10:17) 우리는 우리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것입니다(29:17).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5-16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만일 우리 자녀

의 마음이 지혜롭고 우리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옳은 말을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정말 유쾌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입술도 옳은 말을 하는 자녀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지혜로운 부모에게 받은 진리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의 유일한 기쁨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 그대로 사는 데 있다”(박윤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3장 15-23절 말씀 중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무슨 진리를 받아 그대로 사는지 5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이 진리를 받아 그 진리대로 살아가므로 우리 자녀에게 본을 보이므로 우리 자녀도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첫째 진리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별로 듣기 안 좋아하는 말이 한 2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채팅이나 사람들이 리플 달 때 그 두 마디를 쓰는 것을 종종 보는데 그 두 마디는 바로 “덕분에”라는 말과 “부럽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말할 때 ‘당신 때문에’란 말보다 ‘당신 덕분에’란 말이 듣기는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사람들이 ‘덕분에’란 말을 할 때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럽습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할 때 저는 ‘왜 부러워할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룹 채팅을 하는데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23장 17절에서 성경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이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만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며 물질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인은 계속해서 형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의인이 형통하는 죄인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편 73편 아삽의 시가 기억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교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3절). 여기서 악인의 형통함이란 “그들은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4-5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6-7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합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는 백성이 많습니다(10절). 이 모습을 보는 의인 아삽은 악인과 달리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 아삽의 입장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었을 때 충분히 그 악인을 부러워 할 만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는 악인을 부러워했는가 하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허사구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잠언 23장 17절에서 성경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죄인에게에는 장래가 없고 희망(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죄인의 장래, 즉 악인들의 종말을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시73:17).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18-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갠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7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종말(최후)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멸망이요 전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3:17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녕히 장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18절). 여기서 “장래”란 말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종말은 내세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4:32). 바라기는 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장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둘째 진리는,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한 예로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듣고 지혜를 얻”어야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과 연관해서 묵상하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련하면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것입니다(1:7). 여기서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

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8:13).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23:17).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악 된 본능대로 죄를 지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악 된 본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 마음의 죄악 된 본능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한 3구절만 읽겠습니다: (1)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마15:19), (2)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5:19-21), (3)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3:2). 여기서 우리의 죄악 된 본능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돈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눅16:14).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었습니다(13-14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자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므로 탐욕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잠언 4장 10-1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옳은)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겸손히 듣고 배우며 또한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

를 얻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잠언 4장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듣고 받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진리는,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0절을 보십시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욕설을 일삼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하는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고전5:9-13).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헬라어 원의 문자적 의미는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욕설을 일삼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와 친밀하게 또는 가깝게 어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깝게 어울리지 말라고 말한 대상인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자, 욕설을 일삼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죄를(11절) 회개치 않고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으므로 온 교회에 그 죄의 악한 영향을 끼치는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고(12절) 그들과 가까이 어울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교제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러한 교인들과 사귀지 말고 관계를 끊되 그 악한 사람을 아예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13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까지도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13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교회의 순결성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잠언 기자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연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방탕

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성경은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잠언 20장 1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왜 우리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술은 거만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떠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만하게 하며 떠들게 하는 술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잠언 23장 29-30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나면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할 것”(33절)이며 또한 “감각이 없”어짐지고 술에 인박해서 못 꿂을 것이기 때문입니다(35절). 오늘 본문 잠언 23장 2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왜 성경은 술 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은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술 취하는 자들이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은 방탕생활을 하면서(엡5:18)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낭비할 뿐만(참고: 눅 15) 아니라 게을러서 잠자기를 좋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잠23:21).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엡5:18, 롬 13:13, 고전5:11, 6:10).

그러면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음식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탐식하는 자들입니다. “탐식”이 무엇입니까? 탐식은 음식에 대한 무질서한 섭취로 생각하는 일을 둔하게 만들고, 이성의 통제를 약화시키며 인간이 품위를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술 취하는 것이나 고기(음식)를 탐하는 것이나 과도하게 섭취하므로 결국에는 사람을 나른하게 만들므로(drowsiness) 졸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난하게 만듭니다(Walvoord). 그러므로 성경은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탕의 길로 걷지 말고 바른 길로 걸어야 합니다.

넷째 진리는, 아버지에게 청종(순종)하고 어머니를 경히(업신)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자녀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할 때 기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불순종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심지어 여러분을 경히 여기면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특히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멸시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 잠언 23장 15-16절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녀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요 입술이 정직을 말(옳은 말)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19, 22절). 그 부모님의 말씀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는 겸손히 듣습니다(25:12). 그리고 그는 더욱더 지혜를 얻어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23:19).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방탕의 길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20절).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는 자기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22절). 그러나 부모님이 늙었다고 업신여기는 자녀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11:12). 즉,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녀가 부모님을 멸시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3:13).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녀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도 업신여겨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23:9).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14:21).

성경 잠언 1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녀는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요 고통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조롱하며 부모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30:17). 그래서 그는 부모의 훈계와 법도를 떠나(참고: 1:8, 6:20)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립니다(수치를 줍니다)(19:26).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합니다(10:1, 15:20). 그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엡

6:1-2).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신28:2).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진리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고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3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보통 사업하는 사람의 심리는 물건을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웬만하며 돈을 들내고 물건을 사려는 것(값싸게 물건을 사려는 것)과 또 하나는, 진정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투자를 해서라고 구하려는 심리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23절에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값어치가 그 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7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어떠한(모든) 값을 치러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왜 성경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살되 팔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진리를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은 “돈 없는 자도 오라 ..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내지 않고라도 진리를 우리 소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거저 받은 것입니다(박윤선). 이렇게 거저 받은 진리를 우리는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를 제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더욱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참고: 약1:5).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순종하여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잠23:15-16).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는 다섯 가지 진리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5가지 진리란 첫째로,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17절), 둘째로,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19절), 셋째로,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20절), 넷째로,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22절) 그리고 (5) 다섯째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고팔지 말라는 것입니다(23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므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모본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룻기 2장11절)

“고부갈등”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인터넷 글을 보니까 고부갈등이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에 골이 깊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시어머니의 생각과 며느리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1) 며느리가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2) 자기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하며, (3) 너무나 며느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1) 시부모를 모시는 일에서 갈등, (2) 친척과 손 자녀로 인한 갈등, (3) 시어머니와 대화 결여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인터넷). 문제는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또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믿음과 인격으로 인하여 오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서로의 관계에 유익되도록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갈등을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줄 아는 마음의 넉넉함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부갈등은 결국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 중심으로 모본 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모본 된 며느리 룻의 모본 된 관계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성경적 원리를 찾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이 원리들을 잘 배워 고부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모본 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배워야 할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1) 며느리를 축복 기원하는 것

룻기 1장 8절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모압 지장에서 다 죽은 후(1:2)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1:6) 모압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와중에 두 자부에게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1:8)고 권면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축복 기원해야 합니다. 결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쓴 소리[“마라”(1:20)란 단어의 뜻이 “쓰다”(bitterness)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3:1) “...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 며느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

룻기2장 22절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릅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룻이 그녀의 죽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자인 보아스(2:1)의 밭에서 일하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이야기를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고하는 중 보아스가 자기에게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말을 하였을 때(21절)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씀이 바로 룻기2장22절입니다. 여기서 “... 좋으니라”는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딸”(3:1)과 같은 며느리인 룻의 유익을 구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의 유익을 구한 점을 우리는 룻기 3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며느리의 재혼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룻에게 구체적으로 보아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2-4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며느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 며느리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2) 며느리와 대화를 하는 것

룻기 2장 19절부터 3장5절까지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며느리인 룻이 어디서 혹은 누구의 밭에서 일한 것이 궁금했으며(2:19) 또한 사랑하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를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20절). 또 그녀는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20절).

고부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대화결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본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보여준 나오미와 룻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들은 서로 대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해야 합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며느리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3) 며느리를 잘 지도하는 것

룻기 3장 18절을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므로 그녀를 축복 기원하며, 그녀의 유익을 구하여 재혼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도 가운데 룻기3장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를지를 가만히 지켜보자고 나오미는 룻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됩니다. 나오미의 지도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4:13)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벧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17절).

마지막 둘째로, 모본 된 며느리인 룯에게서 배워야 할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1) 시어머니를 선대하는 것

룯기 1장 8절을 보면 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모본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선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본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선하게 대합니다. 물론 시어머니로부터 선대함을 받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선대하기가 좀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본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선대합니다.

(2) 시어머니를 좇는 것

룯기 1장 14절과 18절을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 그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에게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1:8)고 권면했습니다. 그 때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시어머니의 곁을 떠났지만 룯은 나오미를 붙좃았습니다(14-15절). 다시 나오미는 룯에게 “돌아가라”(15절)고 권면하였지만 룯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도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16-17절). 이 룯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18절).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좇는 룯의 모습을 생각할 때 모본 된 며느리는 주님을 좇듯이 시어머니를 좇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은 결심으로 좇아야 합니다.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룯은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좃았습니다. 친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모압도 떠나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좇아 간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좇는 며느리가 모본 된 며느리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것

룻기 2장 18절을 보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주은 보리가 한 에바즘 되었는데(17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렸습니다(18절). 어느 면으로 보면 과부인 룻은 또 다른 과부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때 나오미보다 젊은 며느리인 룻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음식도 시어머님께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모본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베풁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식사도 베풁 뿐만 아니라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면서 섬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4)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룻기 2장 19절에서 3장 5절 그리고 3장16절에서 18절을 보면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녀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3:16) “...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빠짐없이 룻은 나오미에게 다 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시어머니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웬지 룻을 생각할 때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룻은 자기를 사랑하여 복을 받고 재혼하도록 힘쓰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아스와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나오미에게 고하였던 것입니다.

모본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잘 합니다.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서 시어머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과 같은 며느리는 종종 시어머님께 전화도 드려서 시어머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아들의 이야기나 손주들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되 충분히 말씀해 드립니다. 이러한 며느리가 되어야 합니다.

(5)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

룻기 3장 5-6절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명한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였던 룻은 사랑하기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순종하는 며느리가 참으로 모본 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며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며느리입니다.

모본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4:15). 그렇습니다. 며느리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있어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였습니다. 이러한 며느리를 둔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의 의미대로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고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도 그녀의 곁을 떠났지만 끝까지 좇았던 며느리인 룻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벧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의 축복 기원처럼 룻에게 선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길 축원합니다.

콩가루 집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일천 일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사사기 17장 1-2절, 18장 19절).

어떤 물건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상태를 가리켜 “콩가루가 되다”라고 말합니다. 콩가루는 가벼운데다가 점성(서로 달라붙어 끈끈한 성질) 또한 없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흩어져서 날아갑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한 가족이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화합이 없고 특히 질서 등이 없고 서로 제각각 제멋대로들 살아가고 복잡한 집안을 가리며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콩가루 집안에는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 가족들 모두 각기 제멋대로 행동하고, 질서나 예의 도덕이 없습니다(인터넷).

바로 사사 시대 때가 콩가루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삿17:6, 21:25). 이러한 콩가루 시대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사기 17장에는 콩가루 집안인 미가라 하는 사람의 집안이 나오고 사사기 18장에는 콩가루 지파인 단 지파가 나옵니다(19장부터는 콩가루 나라인 이스라엘이 나옴). 저는 이 두 콩가루 집안과 콩가루 지파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콩가루 집안과 콩가루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한 몇 가지로 유사한 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과 주님 중심된 교회는 어때야 하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콩가루 집안인 미가의 집안과 오늘 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콩가루 집안의 유사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콩가루 집안은 어머니는 어머니의 소견대로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17:2)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에게 복 받기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13절). 어이가 없는 것은 콩가루 집안의 아들인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은 일천 일백을 도적질했다가 어머니에게 저주를 받을까봐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도적질한 아들인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2절). 아니, 어떻게 도덕 질한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빌어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머니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 일천 일백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3절) 은 이 백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게 하여(4절) 아들에게 줍니다(3-4절). 참 어이가 없는 어미의 행동입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놓고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주는 이 미가의 어머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미가의 어머니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떠한 어머니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입니까? 입술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좇는 돈(물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혼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자기들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매 주일 열심히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직분자이신데 주중의 집안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자기들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여자/남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교회 직분자이신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희생하려고 가르치시기보다 세상의 물질의 복과 성공을 계속 집에서 강조하시니 자녀들은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떨겠습니까? 미가와 같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가는 어머니로 부터 받은 그 신상을 자기의 집에 두었습니다(4절). 놀라운 것은 어머니로 부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2절)는 축복을 받은 미가에게는 신당(a shrine or house of gods)까지 있었습니다(5절).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만들어 가지고 있었

습니다(5절).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 중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5절). 다 자기 멋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 소년(7절)이 거할 곳을 찾고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왔을 때(8절) 미가는 그에게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레위 소년을 자기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10절). 그리고 나서 미가는 이제 레위 인이 자기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13절). 자기 멋대로 다 해 놓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복 주실 줄 믿는다고 하는 이 미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가는 그 어머니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서 우상을 선물해 준 것처럼 미가 또한 드라빔이란 우상 외에 신당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세운 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것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놀랍지만은 않은 것은 오늘 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미가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이었기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마6:24) 그 말씀을 여기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났기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복달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빙자하여 돈을 벌고자 눈이 먼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자녀들이 될 것을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미가와 같은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러한 콩가루 집안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날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콩가루 교회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분쟁과 분열이 있는 교회, 그리고 미가처럼 교회의 헌금을 도덕 질하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등등 도덕과 윤리가 없고 질서와 평화가 없는 교회, 콩가루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생각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샅군 목사들입니다(참고: 요 10:12-13).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들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야 할 우리 목사들이 사례비를 더 많이 주는 더 큰 교회로 가는 것을 마음에 기뻐

하기에 오늘날 교회가 콩가루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미가가 세운 레위 소년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는 미가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18:4 “고빙”). 미가가 그를 자기의 제사장을 삼고자 “해 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고 하니(17:10) 그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습니다(11절). 그러다가 단 지파가 라이스란 땅(18:7)을 기업으로 삼고자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 단 자손 육백 명을 데리고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러(13, 15절) 들어가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한 후(17절) 레위 소년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19절)고 말했을 때 그 레위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단 지파) 중으로 들어”갔습니다(20절). 샅군 제사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가에게 고용되었다가 단 지파에 고용된 이 레위 제사장을 생각할 때 오늘 날 우리 목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체험했을 때 흘렸던 그 뜨거운 헌신의 눈물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불타오르던 그 심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사로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단 지파가 기업으로 삼고자 한 라이스란 땅처럼 “한가하고 평안”하고(7절)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10절) 매우 좋아 보이는(9절) 목회지 찾기에 눈을 부릅뜨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욕심이 나서 큰 교회에 가서 큰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하지... ‘내가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큰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교만함도 드러내시지 왜 이런 저런 핑계 아닌 핑계로 더 크고 더 사례를 많이 주는데로 사역지를 옮긴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우리 샅군 목사들 때문에 교회는 콩가루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에게 무슨 진리의 말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 지파의 다섯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미가의 제사장 레위 소년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하라”(5절)고 말했을 때 그 레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Go in peace; your way in which you are going has the LORD'S approval)(6절). 어떻게 샅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은 미가의 제사장 레위인이 단 지파 그 다섯 정탐꾼에게 한 말(6절)되로 주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단 지파를 인정(approval)하신 것처럼 단 지파는 라이스란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27-29절). 참

으로 놀랍고 두려운 것은 주일 강단에서 샅군 목사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이뤄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사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축복이 아닌데 말입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던 것(31절)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송)배하며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콩가루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회개해야 하며 우리 자녀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여 우리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기억하여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는 주님의 사역에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양 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샅군 기질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변화를 받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목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다시금 불타오르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신실하시니 우리가 불성실할지라도 주님께서 값 주고 피로 사신 영혼들을 제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샅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보다 돈이나 다른 것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야망과 교만함 등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때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이상 콩가루 가정과 콩가루 교회가 아니라 주님 중심된 가정과 교회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의 주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승리!

영적 치매를 극복하는 가정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신명기 7장 18-19절, 8장 2, 11, 18-19절, 9장7절).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는 많은 선진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치매입니다. 현재 한국의 65세 노인 중 9%은 치매라 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습니다(인터넷).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인터넷). 이와 같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쁨, 구원의 사랑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행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치매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7장 18-19절, 8장 2, 11, 18-19절, 9장 7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3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묵상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 영적 치매를 극복하는 우리 가정으로 세움 받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7장 18-19절을 보십시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잘 기억하라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민족들로 인하여 심중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하면서(17절) 그들을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서

는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말고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구원의 능력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또한 그들 중에 계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21절)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조상이신 저의 증조할아버님과 할머니님은 이북 평양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의 증조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할아버님과 할머니님은 6.25. 전쟁 때 저의 아버님과 고모님들 및 삼촌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비록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일제시대 때나 6. 25. 전쟁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구원)을 얻은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한국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저의 큰 고모부님의 경우는 그의 아버님과 형님과 함께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갈림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셔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여 무사히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큰 고모부님은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해 지셔서 여기 미국 양로원에 계시지만 아직도 6. 25. 당시 그 때 그 순간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은 그 때 자기를 업고 남한으로 데리고 오신 아버님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님 쪽 온 가족들을 이북에서 남한으로, 그리고 남한에서 여기 미국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증조할아버님, 할머니, 친할아버님,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과 아버님의 형제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분들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은총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심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되 특히 우리가 현재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삶 속에 위기와 역경에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치매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십 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 2-4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2절).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3절).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16절)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적들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조상들이 일제 시대 때부터 해서 6. 25. 전쟁을 겪으시면서 이복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거의 모른다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위로해주시고 보호하시사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와 제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슬퍼서 우시는 것인지 여쭙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감사해서 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무엇이 그리 감사하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날 그 순간 할머니께서는 병실에서도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되 우리는 지난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과 우리는 고난의 풀무에서 단련시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치매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 11-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염려하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그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 은금이 증식되며 …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12-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였습니다(14절). 즉,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14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13절) 그들은 교만해져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줄 알았습니다(17절).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했습니다(18절).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성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

기며 그들에게 절”할까봐 염려하였습니다(19절).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19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9:6).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12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던 날부터 너희가(그들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24절).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교만함(8:14)과 자신들의 “공의”(9:4, 5, 6)을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함과 자신들의 공의는 영적 치매를 들게 하는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야 했습니다(8:2). 그들은 광야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야 했습니다(2-3절). 겸손이야말로 영적 치매를 극복하는데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복에서 남한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 미국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1980년 2월 말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저의 증조할머님도 여기 미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증조할아버님은 사진으로만 보였지만 증조할머님은 그 다음해 1981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장례식 때 저의 할머님이 우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님과 할머님에게는 일곱 자제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할아버님, 할머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삼촌 목사님 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맏이시고 이젠 동생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1월 1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신년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의 말씀으로는 저희 전 가족 인원이 한 70여명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큼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뒤돌아 볼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일을 하게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공의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합니다(신8:3). 우리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6절). 우리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10:12-13).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치매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며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사 장차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기억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치매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히12:2),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13:8)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so she said to Abram,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Go, sleep with my maidservant;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Abram agreed to what Sarai said)(창세기 16장 2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예수님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 세우기 원리를 찾아 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성경엔 가정 세우기에 대한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5-6장과 골로새서 3장 13-4장 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1-7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2절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성경적 원리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여기에 적어 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세우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던 사래가 (11:30) 가정을 세우고자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16:1)과 동침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래의 의도는 자기 남편이 아브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어 가정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 사래의 말을 듣고 결국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4절). 하갈은 자기가 잉태한 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이 사래를 멸시하였습니다(4절). 그 때 사래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를 원하노라”(5절).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사래는 자기 남편 아브람을 탓하니 말입니다(분명히 사래는 남편인 아브람에게 바가지를 긁은 것 같습니다). 그 때 아브람은 아내 사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6절). 결국 하갈은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8절).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아브람과 사래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래는 아내로서 남편인 아브람을 경외(존경)하지 않았고 아브람은 그의 아내인 사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사래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람을 경외(respect)하라는 성경적 부부 원리에 불순종하였습니다(엡 5:33).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하면 사래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람을 경외하였더라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믿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즉, 그녀는 남편을 진정으로 경외(존경)했더라면 그녀는 아브람의 말에 복종했어야 했습니다(엡5:22-24). 사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창12:1-3, 7; 15:4-5)을 남편인 아브람처럼(15:6)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녀는 불신앙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내가 이 땅(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12:7),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15:4),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하늘의 셀 수 없는 별처럼)(5절)를 믿지 않고 자기의 몸이 아닌 자기의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 남편과 동침케 하여 자녀를 얻어 가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15:4)고 말씀하셨는데 사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람이 75세 때(12:4)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5년 후인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고자 했던 것인데 사래는 10년 후(16:3)인 아브람이 85세 때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가정을 세우고자 여종 하갈을 남편인 아브람과 동침케 하므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사래는 주님께서 그녀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방법(아브람과 사래와의 동침 속에서 이삭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보다 자기의 방법인 여종 하갈과 아브람과 동침케 하므로 자녀를 얻어 가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사래는 믿음(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아브람은 자기의 아내인 사래를 사랑하라(love)는 성경적 부부 원리에 불순종하였습니다(엡 5:25-28).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만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더라면 그는 자신의 아내를 바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를 사랑했더라면 그는 그녀를 진리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사래가 그녀의 여종이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사래의 말을 들었습니다(창 16:2).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반대로 남편인 아브람이 아내인 사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왜 잘못 되었습니까? 분명히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15:4)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면 아내인 사래가 자기의 여종이 하갈의 몸을 빌려 자녀를 얻어 가정을 세우고자 했을 때 아브람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16:2)는 사래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거절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몸을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왜 믿지 않는 것이오?’라고 오히려 아브람은 아내인 사래를 사랑으로 면책(rebuke)했어야 합니다. 아내의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말에 순종하는 아브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고 자기에게 주는 하와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녀는 사랑으로 면책했어야 하는데 아담도 아내인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지도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지도력(leadership)을 발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내인 사래를 지도했어야 할 할 남편이 지도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아내의 잘못된 말에 순종하였습니다(창16:2). 만일 아브람이 아내인 사래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다면 그는 사래의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거절하고 그녀는 면책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진리로 바르게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 밖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의미(meaning)가 없습니다. 그저 아내의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말을 듣고 순종하므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면 이러한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으로는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아브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의 말에 복종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권위(권위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

신 신적 권위)에 복종하여 남편의 지도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세워 줍니다. 남편은 어떨습니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의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그는 진리로 자기의 아내를 지도합니다. 결코 그는 아내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사랑으로 면책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녀를 진리로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원리에 충실하여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우리의 가정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사도행전 10장 2절).

행복한 가정보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상발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안에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닌 우리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우리 남자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또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1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전도서 2장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경건한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악을 미워하는 가정이고 선을 행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힘써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경건한 가정은 많이 구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2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두 가지가 함께 동전 앞뒤처럼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동전의 뒷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면은 구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진정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웃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사실(행 10:2)이 소문이 나서 유대 온 족속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2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 우리 가정과 교회도 구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구제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종교요 경건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 따라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은 하루에 두 번(오전 9시, 오후 3시) 혹은 세 번(오전 9시, 정오12시, 오후 3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구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연결은 기도가 선행을 바탕으로 할 때 바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유상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

는 가운데 아래로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므로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선행을 수반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언 17장 1절).

여러분, 직장인들의 인생 최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인)가 직장인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8.7%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으며 그 1위는 화목한 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최종목표 1위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27.4%, ‘창업’ 16.0%이었으며 이외에도 ‘세계일주’ 9.0%, ‘내 집 마련’ 8.5%, ‘이직’ 4.2%, ‘종교귀의’ 0.9%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복수응답)으로는 ‘열심히 일을 한다’가 60.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 ‘돈을 많이 모은다’ 45.8%, ‘인맥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 34.4%,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31.1%, ‘재테크를 한다’ 26.4% 순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72.2%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8.5%,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7.1%,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6.6%,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2.4%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풍부하면서 가족 식구끼리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가족식구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남은 것을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레7:16; 19:6; 삼상9:24). 그런데 제사(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먹어야 할 그 자리에서까지 서로 다투는 가족은 불만이 심각한 가정입니다(박윤선).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을 드린 후 남은 돈 때문에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다투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화목함은 풍부함과 궁핍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은 다툼의 원인이 꼭 풍부해서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다
통을 멀리할 수 있는지를 한 4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 다통을 멀리하기 위해선 서로의 허물을 거듭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9절을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
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제가 지난주에 제 개인 페이스 북에다 이러
한 토론 주제를 올려 놓았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가 두려운(힘든) 것입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음
의 기도의 제목은 신뢰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큰 상처를 받거든요. 온
전히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 말을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 말처럼 기도제목을 내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
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거듭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거듭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거듭
말하게 되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처럼 “패려한 자는 다통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여 다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관계
를 보면 왜 서로 다텐니까? 거짓말쟁이인 사단이 우리 부부 관계를 이간하기 때문이 아닙
니까? 어떻게 사단은 우리 부부 관계를 이간합니까? 바로 거짓말로 이간하되 특히 사단
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허물을 더욱더 잘 보게 하고 그 허물을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서
로에게 말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하므로 부부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또한 다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데(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단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
을 우리 생각에 기록해 놓게 만들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서로에게 말하게 만들되 거듭 말하
게 만들므로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통과 불화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 왕이 잠언 18장 8절에서 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 하
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신 하나님의 사
랑을 목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

도와 함께 살리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5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되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또한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엡4:3).

둘째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충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서로의 충고를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10절을 보십시오: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서로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므로 감정이 상하여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자녀들이 서로 다투도록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녀들이 미련하여 책망을 해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로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녀들 중에 충고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얼마나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의 엉덩이나 종아리를 매 백대로 때린다면 우리 자녀들의 엉덩이나 종아리에 얼마나 큰 자국들이 박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거만하여(잠9:7) 자기의 잘못에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에게 충고한 마디 한다면 외적으로는 몸에 남는 자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의 마음에는 우리 부모의 충고가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성경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

망을 듣자마자 즉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닭이 울고(눅22:60)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날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61-62절). 닭이 울고 주님이 쳐다보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니 이 얼마나 총명한 자입니까? 이렇게 총명한 자들은 매 백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그의 말씀 충고(책망) 한 마디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이러한 총명이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명한 자, 즉 깨달는 자는 한 마디의 충고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적어 놓은 책인 논어에 보면 “문일지십”이란 사자성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자성어의 뜻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뜻으로 보통 영재나 천재들처럼 하나만 알려줘도 열 가지를 깨우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인터넷). 한 마디 충고를 해도 잘 깨닫고 그 충고를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옳은 길)을 걸어갈 때 어찌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화목한 가정은 악으로 선을 갚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선으로 선을 갚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므로 그 가정에는 재앙을 만납니다. 그 성경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악으로 선을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와 그의 나라에 충성하고 있었던 밋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므로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밋세바를 간음한 것처럼 다말을 강간하였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가족적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가족적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한 결과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가족적 재앙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깨짐과 다침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현대 가정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가정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가정,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결국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힐 때 성경은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mp3로 성경을 듣다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잠시나마 묵상할 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동일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롬12:21). 우리는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선을 행하나 상대방이 악으로 갚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외롭지만(시35:12)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살후 3:13).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가정에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시34:14).

넷째로, 화목한 가정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잠언 17장 14절을 보십시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 다툼 때에 주로 무슨 일로 다투니까? 큰 일 때문에 다투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일로 다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사자성어 한 3가지를 나눕니다(인터넷): (1) 百年偕老(백년해로) :

부부가 되어 서로 사이좋고 화목하게 함께 늙다, (2) 偕老同穴(해로동혈) : 부부가 화목하여,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히다. 부부사이의 화목함, (3) 蝸角之爭(와각지쟁) : 달팽이의 뿔 위에서 하는 싸움. 매우 사소한 일로 다툼. 작은 나라끼리 싸움. 이 외각지쟁이라는 사자성어의 배경 이야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위나라 혜왕(재위 기원전 369~기원전 319)이 제나라 위왕(재위 기원전 356~기원전 320)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 뒤 위 왕이 약속을 어겨서,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했다. 혜왕의 신하 공손연이 이 말을 듣고 당연히 군대를 파견해서 쳐야 한다 하고, 계자는 군대를 보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혜왕은 머뭇거렸다. 이를 본 대진인이 혜왕에게 “달팽이 왼쪽 뿔에는 촉나라가, 오른쪽 뿔에는 만나라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두 나라가 땅을 뺏으려고 싸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 만 명이었고, 도망치는 적군을 쫓아 보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라고 하니, 혜왕이 “뭐야, 함부로 씨불이(지껍이)나”고 하자, 대진인이 말을 이었다. “예, 그 ‘함부로 씨불이’의 알맹이를 보여 드리지요. 끝없는 우주 안의 나라들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나라 중에 위나라가 있고, 위나라 안에 서울이 있고, 그 서울 안에 임금님이 계십니다. 임금님과 달팽이 뿔 위의 나라와 얼마나 다를까요”(인터넷). 결국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원인이 매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7장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라스베이거스 근처에 있는 후버 댐 가보셨습니까? 만일 가보셨다면 그 후버 댐에 아주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버 댐 위에서 구경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댐에 지극히 작은 구멍이 있어서 물이 아주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후버 댐 위에서 계속해서 구경을 할 수 있겠는지요? 비록 물이 조금씩 흘러나올 정도의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아마 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피신하라고 하고 아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사자성어 “水滴穿石(수적천석)”가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뜻은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돌에 구멍을 뚫는다”(인터넷). 비록 큰 댐에 지극히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그냥 방관해 놓으면 그 댐이 무너지므로 큰 피해를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잠17:14). 그런데 주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시비를 그쳐야 하는데 왜 우리는 시비를 그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작은 일로 시작한 싸움이 점점 확대되어 더 큰 싸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싸우는 정욕”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싸우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정욕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잠언 17장 19절 말씀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 (loves sin)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17:19). 결국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원인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이요 그 정욕에는 우리 각자가 “욕심”을 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약4:2).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서로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욕심이 있는 그 원하는 욕심이 만족되지 못할 때, 즉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하는 것(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싸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니까?

여러분, 몽골 선교사인 이용규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을 알고 계시죠? 그 후에 쓴 책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명문대 하버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도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가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강조한 것은 그러한 학벌이나 세속적인 영광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을 내려놓음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내용 중 이러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울고 있는 아이다. 이 아이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속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우리는 우리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지 모른 채 그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만 안정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게 된다. 그만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모습에서 향유 옥합을 본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를 놀라움 가운데로 몰아가며 내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그런데 옥합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드러졌지만,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채로 남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 말씀에서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를 보게 되었다. 예수의 발 앞까지는 갔지만 정작 깨어져야 할 때 깨어지지 않으려는 나의 자존심을 본 것이다.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에서 깊은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나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봅니다. 저의 옥합을 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드러졌어도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를 발할 수 없다. 옥합이 깨어져 안에 있는 향유가 다 흘러나올 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인터넷).

우리나라 옛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라 위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하여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 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남을 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화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동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족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서로 이해, 용서, 위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인터넷).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열왕기하 18장 3, 7절).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한 가정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므로 그는 형통하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곧 “성공”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므로 그는 성공하였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3절).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성경적인 원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히스기야에게 찾아 저는 그 원리들을 우리 각자 가정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적용해 봄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와 도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가정의 모든 죄악을 없애 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십시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여러 산당과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다 깨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정직히(옳은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집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배우자나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집 안에 모든 죄악들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 자녀들을 주님의 교향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노엽게 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가문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우상들과 죄악들 다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을 없애 버리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이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전후 무후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히스기야, 그는 앗수르 왕 산헤립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을 치려고 했을 때(17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19:14)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15절). 그는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19절).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18:6).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사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19:34).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정직히(옳은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곤란한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구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행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왕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했습니다(신17:18-19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19절). 그리할 때 왕은 그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했습니다(20절).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은 성경책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하는 가정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집안의 모든 우상과 죄악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 이야기: 감사와 기도

2012년 8월 16일, 목요일 저녁.

저녁 9시, 우리 방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가족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린 후 세 자녀들에게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번 여름 방학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으냐?’ ‘이번 여름 방학에 배운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세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이들 나름대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이 아빠의 생각으로는) 다들 감사하다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감사했다. 나름대로 아이들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다고들 하니 감사하다. 배운 점을 얘기해 보라고 하였더니 막둥이 예은이가 어디에 있던지, 무슨 일을 하던지, 어떠한 상황에 접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what circumstance you are trust God!)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아마 여름성경학교에서 전도사님에게 배운 듯하다. 하하. 감사와 배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후 나는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예리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말하였다. 예리는 새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고,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아내는 가족 식구들을 더욱더 잘 먹일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하였고, 아내 옆에 앉아 있었던 딜런은 갑자기 이 아빠의 핸드폰 얘기를 하면서 새 핸드폰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ㅎㅎ 아마 엄마가 출장간 사이에 세 자녀들과 함께 T-mobile 가게에 가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새 핸드폰을 사는 것을 보고 딜런이 왜 아빠는 안 샀는지 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다(물론 아내도 공항에서 아이들과 함께 pick up해서 새 핸드폰을 선물했을 때 buy one, get one free를 왜 안했냐고 거의 화내다시피 해서 아내에게 나는 새 핸드폰이 필요 없어서 안 샀으니 그저 미안해하지 말고 “Thank you” 한 마디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음. ㅎㅎ). 그래서 그 기도부탁을 듣고 나는 딜런에게 이 아빠는 새 핸드폰이 필요 없으며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사고 싶다고 하여 꼭 살 필요 없다고 말해주었다.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여 사게 만드는 유혹(?)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다. 하하. 내 말을 듣고 딜런은 좀 이해를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막둥이 예은이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나는 예은이에게(또 딜런과 예리에게) 이 아빠는 너희가 좋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길

기도한단다 라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제목을 나눴다. 요즘 목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생각나서 나는 아내와 세 자녀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잘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눈 후 예리부터 엄마를 위해서, 엄마는 세 자녀들과 특히 딜런을 위해서, 딜런은 예은이를 위해서, 예은이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예리와 온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감사하였던 것은 특히 세 자녀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신 나의 아버님(China grandpa)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엄마가 출장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감사해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니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예은이의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 이 아빠를 위한 예은이의 기도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렇다: (1) God, help daddy to continue to be a great pastor (하나님, 아빠를 계속해서 great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2) God, help daddy to continue to work hard (하나님, 아빠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

가정 이야기: “새해 돈 많이 주세요”

2012년 1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형님 댁에서 온 가족들(다 모이면 한 70여명)이 신년 모임을 갖기 전에 저는 먼저 우리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금년 우리 승리장로교회 3 목표 중 하나인 한 달에 한번 가정 찬양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아내와 아이들에게 “God is so good”(좋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부가 약 15년 전에 하나님께 결혼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억나게 하신 시편 34편 8절 말씀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란 말씀이 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알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God is so good”을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 찬송가 411장 “Jesus loves me this I know”(예수 사랑하심은)를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가 잠들기 전까지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던 그 아기에게 불러주었던 그 찬송가를 아내와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저는 세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에게 세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리가 심각하게 진짜 모른다고 말하면서 묻기를 세배할 때 “새해 돈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묻더군요. ㅎㅎㅎ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줬나고 물었더니 아무도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리가 진짜 몰라서 물었던 것입니다. ㅎㅎ 그래서 제가 예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준 후 우리는 가족 모임을 향하여 가고자 차에 타려고 하는데 막동이 예은이가 저금통을 가지고 가려고 하더군요. ㅎㅎ 왜 이겠습니까? ㅎㅎ 세뱃돈 받아서 다 저금통에 넣으려고 한 것이겠죠. ㅎㅎ 그래서 저는 예은이에게 저금통 잃어버릴 수 있으니 집에 두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뭐라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 안에다 저금통을 갖다 놓고는 손에 봉투를 들고 나오더군요 ㅎㅎ

가정 이야기: 두 손 모아 기도

2011년 4월 15일, 금요일.

어제 목요일 저녁, 나는 아내와 함께 세 아이들에게 오후에 사다가 먹고 남았던 El Pollo Loco chicken과 지난 주일에 먹다가 남은 파스타 등 대충 저녁을 준비해서 부엌 식탁에서 먹게 한 후 아내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빵 두 개씩 버터를 넣어서 microwave에 heat up 한 것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이를 전 수요기도회 때 목사인 남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내가 나누기에 나 또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세 아이들은 저녁 식사를 다하였고 다른 거실에서 TV와 DVD를 켜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와 나는 그 영화가 끝나고 아이들이 이층 자기 방으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대화를 나눴다. 특히 우리 부부는 요즘 아내가 읽고 도전을 받고 있는 헨리 나우웬의 책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Jane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아내가 나에게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케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할 때에 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Jane(제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아내의 이름 “Jane”을 한국어로 천천히 발음하며 ‘죄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기에 ㅎㅎ)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내를 더욱더 겸손케 해주시길 원하는 것이다.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고 여겨졌기에 나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한 내가 왜 아내에게 튜립(Tulip) 꽃송이 하나와 장미 꽃 여섯 송이를 가끔 선물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아내에게 말해주었다. 그 이유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인 T.U.L.I.P.인 Total depravity(전적타락)와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제한적 구속)과 Irresistible grace(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Perseverance of the saints(성도의 견인)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대화를 다 마칠 즈음에 아내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한 후 두 손을 모은 아내의 두 손을 내 두 손으로 덮어 아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내는 흐느꼈다. 그녀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그리고 진실 되게 기도를 드린 것이다. 아내가 기도를 마칠 즈음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에 나는 아내가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특히 사랑하는 아내 제인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삶 속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인으로 하여금 전적 타락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제한적 구속의 은총을 입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여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사 시작하신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보니까 예은이가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왔다가 다시 부엌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있기에 나는 예은이에게 아빠와 엄마만의 이러한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다같이 이층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Dillon의 방에 불이 꺼지는 소리를 듣고 나는 딜런 방에 들어가 딜런에게 기도하자고 말한 후 누워있는 딜런 이마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죽은 후 딜런을 통하여 회복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딜런과 함께하시사 그로 하여금 그의 이름 Dillon의 뜻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한 후 눈을 떠 보니 누워있는 딜런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딜런에게 Good night!을 한 후 나는 옆방에 있는 딸들 방으로 들어갔다. 막둥이 예은이를 보니까 이미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고 예리가 아직 자고 있지 않았기에 이불을 덮어준 후 함께 기도하자 말한 후 예리의 이마에 내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예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풍성한 사랑을 체험케 하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리로 하여금 두 배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 드리며 살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 드린 후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우리 방으로 들어와 성경책을 들고 나도 아내 옆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크게 웃는 것이 아닌가. 하하. 얼마 전에도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크게 웃더니 이 날도 … ㅎㅎ 그래서 나는 왜 웃느냐고 물었더니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모세를 순종했던 것처럼… 이란 말에 아마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해주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기에… 그래서 우리 부부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0장 36-38절).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라고 고 김자옥 권사님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이별 준비를 해야겠다.’ 제가 그리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불러 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자신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때 항상 이별 준비를 조금씩 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36-3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란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17절) 고별 설교(18-35절)를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소리 내어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록된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7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항상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현대인의 성경)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3년(31절)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이 항상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18절). 과연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적어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3년 기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18절)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항상”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잘 알 정도로 바울은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항상”,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또는 신실하게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언제 이별할지 모르겠지만 그 날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길 원합니다. 진실하신 주님께서 저 같은 불성실한 죄인에게도 행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그 은혜의 힘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되 제가 죽고 나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를 생각할 때 ‘내 남편/우리 아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오셨어’라고 저의 삶의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물론 사랑하는 식구가 저의 불성실함을 제일 많이 보게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 남편/우리 아빠가 그나마 일관되게 살아왔는지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식구에게 일관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 마음에 저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나타난 주님의 신실함 모습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현대인의 성경)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

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3년 동안 거하면서 항상 신실하게 행하였던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19절).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1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신실하게 섬겼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였습니다(19절). 겸손히 섬겼을 때 괴로운 일이 많았을 텐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31절). 그의 “눈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여 신실하게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섬겨준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눈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그의 가르침과 훈계는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흘린 그 눈물은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므로 주님을 섬겼던(19절) 바울을 생각할 때 작별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 그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 크게 울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1987년도 5월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흘렸던 세 종류의 눈물인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헌신의 눈물을 더욱더 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 눈물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 따라 눈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더욱더 결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할 때 주님 안에서 이러한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내 남편/우리 아빠는 평생 주님만을 섬겼어요. 주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괴로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도 오래참고 견디시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도 내 남편/우리 아빠처럼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고 싶어요’라고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요 유익한 죽음입니까?

셋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의 유익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21절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되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섬겼습니다(19절). 특히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20절). 그가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21절).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24절).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습니다(27절).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했을까요? 왜 그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느 남편/아버지가 가족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양은 저는 남편/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세 자녀를 “양육”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과 6장 4절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어떻게 저의 가족을 양육해야 할까요? 저는 제 아내와 세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마 28:19). 저는 가정의 영적 교사로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20절).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녀를 “말씀으로 깨끗하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이전에 제 자신이 매일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겠지요)(엡 5:26). 그리할 때 저희 부부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벧전1:22). 또한 저는 제 세 자녀들의 영적 교사로서 그들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엡6:4). 양육하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1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2절) 다른 어른들도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요삼 1:2). 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아내와 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명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습니다(22절). 그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자기)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23절).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24절). 즉, 그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완성) 함에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24절).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1987년도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께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저로 하여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제 인생을 항복하고 주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사가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받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2003년도에 한국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때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란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 새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찬양할 때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피 흘려 주님이 사신 사랑하는 승리장로교회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 11월 말에 한국에서 섬기던 서현교회를 사임하고 12월 3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12월 21일에 승리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요6:1-15)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마16:18).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는 가정에서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세워야 하며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이 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우리 아빠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이 끌림을 받아 겸손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그가 그리워하던 주님의 품안에 안겼어요.’

다섯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28절). 그가 그들에게 이리 말한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외부적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9절).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부적으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았습니다(30절). 그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31절). 그런 후 바울은 에베소 교

회 장로들을 주님과 및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겼습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그가 그리한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32절). 상상이 됩니까? 교회 장로들(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 양 떼(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적으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믿음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려는 극심한 유혹 가운데서 온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하게 된 이유는 한국 서현교회에서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가 미국 승리장로교회로 다시 돌아와 노인 사역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관점을 더욱더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관점으로 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과연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의 삶은 어떠할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 등등 이런 저런 생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사랑하는 제 가족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5:7)고 말씀하고 있듯이 저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제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족을 맡기되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라는 교훈을 받습니다(행20:32). 그러기 위한 저의 책임은 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24절)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제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저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움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여섯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탐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현

대인의 성경)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33-34 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하였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탐심을 자극하는 물질의 유혹이 많아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한 은장색 데메드리오(19:24)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돈으로 유혹 할까봐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그것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시험”(20:19)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러한 시험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있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자기처럼 그러한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골3:5)고 충분히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신들의 장로들의 탐심이 없는 모습을 보고 탐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울처럼 열심히 일해서 손수 벌어서 쓰는 것이 아니었을까요(행20:34)?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이웃인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의 십계명에 명하고 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 네 이웃의 소유를 남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출20:17). 그리고 그들은 바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여 손수 돈을 벌어서 썼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돈에 탐심이 없이 깨끗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모범된 신앙생활입니까?

약 19년 전 아버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저의 고민을 나눴을 때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물질을 초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결혼 예물인 가구들을 사려고 보러 다닐 때였습니다.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인 아내의 결혼을 약 10년 동안 기다려 결혼시키려고 준비하셔서 저희 부부에게 결혼 예물로 가구를 좀 비싼 것으로 사주시길 원하셨는데 제 아내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저렴한 가구를 사고 싶다고 하여 두 모녀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두 자매님 사이에 제가 끼어 어찌할 바를 몰라 제 아버님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장모님이 이기셔서(?) 저희 부부에게 과분한 가구를 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갈비를 먹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한 것입니다 ㅎㅎ. 아마도 아내 입장에서는 전도사가 비싼 갈비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그렇지만 결국에 저는 갈비를 먹었습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 물질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를 누리는 마음, 탐심이 아닌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바울처럼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빌4:11-12).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내 남편/우리 아빠는 탐심(욕심)이 없이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잠드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현대인의 성경)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탐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주 예수님의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35절). 그랬기에 바울은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자신과 자신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34절).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35절). 이러한 모본을 보였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도 자신의 모본을 본받아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35절).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지 사랑하는 저의 세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빠의 뒷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진리의 모본”(롬2:20)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의 눈을 뜨고 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벧전2:21). 특히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므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마음의 새겨진 저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TV 뉴스에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9/11 사건으로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한 미국 여자(Josephine Smith)가 아버지가 죽은 13년이 지나서야 자기의 아버지의 발자국(her father's footsteps)을 따라서 시험과 고된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뉴욕시 소방관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두 장면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 Smith라는 소방관이 소방관 모자와 옷을 입고 어느 빌딩 사닥다리 위에서 환하게 미소를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은 그 여자의 죽은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인상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47살 때 9/11 사건으로 사망했으니까 그 때 Smith라는 그의 딸은 고등학생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때 사춘기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도 소방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본받아 소방관이 되어 뉴욕시를 섬기는 Josephine Smith란 여인을 생각할 때 저 또한 제 사랑하는 세 자녀들에게 더욱더 본이 되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습관화함으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모든 탐심을 계속해서 버리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려 겸손히, 신실하게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뒷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유익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좇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그들의 심비에 남기고 싶습니다.

가정 이야기: “Dad, when you die, I will remember you.”

(아빠, 아빠가 죽은 면 제가 기억할게요)

2009년 2월 24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참으로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 된 일과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임을 더욱더 피부로 느낍니다.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에 무거움과 아픕이 줄습니다. 좀 더 무겁고 좀 더 아프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주신 추억들을 되새기며 마음에 더욱더 귀히 간직하길 원합니다.

저는 ‘인생은 추억 만들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만남들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만남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한 형제, 친척, 친구, 선생님 등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한 만남은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함께 하는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을 심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그렇고 또한 부부의 만남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만남은 잠깐 스쳐가는 짧은 만남 같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마음판 한 구석에 깊이 심겨지는 추억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의 폭이 넓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짧은 만남들을 통하여 잊지 못할 추억들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주 하시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서로를 위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추억들을 고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 강도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약 2년간의 주님 안에서 동역자의 교제이지만 그 강도사님과의 서너 번 한국에서의 만남들이 잊히지 않

습니다. 그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감기로 학교에 가지 못한 막내딸 예은이도 엄마와 아빠인 저에게 열심히 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방에서 컴퓨터로 편지를 쓰고 있었고 사랑하는 딸 예은이는 거실에 있는 책상에서 열심히 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은이는 자기가 만든 카드를 가지고 아빠인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는 것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예은이가 만든 예쁜 카드를 열어 보았습니다. 아빠를 사랑한다는 글과 더불어 자기가 만든 카드를 아빠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영어로 쓴 글을 보고 저는 예은이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을 때 예은이는 제 옆에서 아빠가 한글로 타자를 치는 것이 신기했는지, 아니면 아빠가 한국어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아빠의 친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은이에게 사랑하는 아빠의 친구가 많이 아파서 언제 죽을지[아이에게 “die”(‘죽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주세요] 모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는 저에게 “Dad, when you die, I will remember you”(아빠, 아빠가 죽은 면 제가 기억할게요)라고 말하더군요. 하하. 예은이는 아빠가 빨리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기색이 없는 순수하고 단순한 예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 아이가 저에게 해 준 말 “아빠, 아빠가 죽으면 제가 기억할게요”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기억해 준다니 마음은 감사하고 흐뭇했습니다. 하하. 저를 기억해 줄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저는 제 딸 예은이에게 어떠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은이 뿐만 아니라 달린과 예리, 또한 제 아내,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외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등등,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추억을 심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추억의 내용이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것들이라면 그러한 추억은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제 안에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들 심비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제 추억 만들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결론

주님께서는 연애도 한번 못해본 저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로 최고의 배우자인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이든 현실적이든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겠지 라고 믿고 제 결혼과 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하여 제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로 하여금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사랑에 빠지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약 35시간을 잠도 못자고 San Francisco에서 제가 있는 Los Angeles로 왔을 때 Santa Monica 해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제가 아내에게 “Are you willing to sacrifice with me to the Lord?”(당신은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겠습니까?)라고 프러포즈를 했을 때 아무 답변이(?) 아내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난 지 약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ㅎㅎ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예배를 올리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일들이 마치 비디오처럼 제 머리에 떠오르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시편 34편 8절 상반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이 몽클해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그 순간 서로 아무 대화도 하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어 함께 부부의 여정을 시작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연애 때는 한 번도 다투지 않았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하여 저희 부부는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부부는 서로나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너무나 몰랐고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혼준비 한답시고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말입니다. 하하. 지금은 언제, 어떻게 수없이 다투고 싸웠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ㅎㅎ 기억나는 것은 신혼 초에 저희 부부에게 “주영”(뜻: 주님의 영광) 또는 “Charis”(뜻: 은혜)이란 귀한 생명을 주셨고 임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55일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제 품안에서 잠들었던 그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첫째 아기의 죽음이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큰 시련 가운데서 시편 63편 3절 말씀인 “Thy

lovingkindness is better than my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를 저희 부부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굉장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마음과 입술과 눈물로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임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주님께서 둘째 아이인 “Dillon”(뜻: 신실하고 진실하라)을 저희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셋째인 예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신 주님께서 막둥이 예은(뜻: 예수님의 은혜) 또는 “Karis”(죽은 첫째 아기와 동일한 이름과 뜻임)를 선물로 주셨을 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God is love)라고 고백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 부부와 저희 자녀들, 저희 가정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많은 가정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추억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나쁜 추억들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정을 향한 꿈은 주님 중심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가정으로 세움을 받아 가정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 가정이 ‘가정 증인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꿈입니다.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